

왜  
내게 이런  
시련이  
...

위기 속에서 배우는 삶



이 책의 제2판부터,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내 동생 아벨리 슈테게만과  
그녀의 자녀 토르스텐, 타나, 크리스티안  
그리고 그녀의 남편 올리히에게 바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 4:4)



100년 전통의 “산상신시”(山上神市, der Stadt Gottes auf dem Berge),  
즉 장애우·환우·사회적 추방자를 위한 시설인  
디아코니센터 헤파타(Hephata)의 설립자이며  
최초의 신도회와 헤센 지역 성인교육의 창설자인  
제 선조 헤르만 슈하르트와  
나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부모님  
칼과 에르나 슈하르트를 기억합니다.



㉠ 차례

한국어판 추천사 1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나침반 • 11

한국어판 추천사 2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선물 • 14

추천사 1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 16

추천사 2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증언들 • 19

제11판 및 제12판 출판 기념 개정증보판 서문 위기 속에서 배우는 삶 • 20

이 책의 삽화에 대하여 나선형-마음여행의 상징 • 26

신호 독자가 보내온 편지 • 29

Chapter 1 위기를 맞은 사람들과 그 가족의 경험 · 35

Chapter 2 위기극복-학습과정의 8단계 나선형 모델 · 55

수기 저자와 수기에 대한 자료 · 81

장기적 수기 연구 사례

-필 박의 위기극복 『자라지 않는 아이』 · 88

Chapter 3 수기를 통해 본 보호자와 신앙 · 101

소아마비 장애인의 경험

루이제 하벨 『주여, 저 계단을 없애주소서!』 · 103

우울증 환자의 경험

잉그리트 베버-가스트 『당신은 나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으므로』 · 118

시각장애와 정치적 박해자의 경험

자크 뤼세랑 『다시 찾은 불빛』, 『삶은 오늘 시작한다』 · 131

지적장애아 부모의 경험

루트 뢰러-가른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실비아·알베르트 괴레스 『장애아 부모의 삶』 · 145

암환자의 경험

로렐 리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 160

Chapter 4 보호자의 문제 · 173

Chapter 5 고난과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에 대한  
신학적 관점 · 197

한스 쾅의 『하나님과 고난』 · 201

도로테 쾅레의 『고난』 · 210

A. M. K. 필리의 『가해자의 도그마의 몰락』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 220

기스베르트 그레스하케의 『사랑의 대가』  
-고난에 대한 성찰 · 225

신학에 대한 고찰과 질문 · 234

Chapter 6 요약과 결론 · 239

주 · 250

참고문헌 · 259

주해 및 내용요약이 포함된 2,000여 권의 저서 목록 분류표 개요  
(1900년-현재) · 277

알파벳 순서에 따른 위기극복 관련 2,000여 명의 작가 및  
도서 제목 목록 개요(1900년-현재) · 281

◎ 도표 차례

나선형: ~에 대한 상징 · 54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위기극복 · 75

수기 저자들의 생활권 · 82

지난 1세기 동안 발표된 위기극복 관련 수기 및 자서전의 출간연도,  
발행부수, 주제 · 83

서술관점 I-V와 위기사건의 수 · 84

위기극복 관련 수기에 나타난 주제 변화(1900년-현재) · 85

위기관리의 보완적 모델 · 86

통합된 위기관리의 보완적 모델 · 87

저자의 서술 관점 상징 I-V · 279

개관: 저서 목록 분류표 K<sup>1</sup>-K<sup>17</sup> · 25, 280



##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나침반”

에리카 슈하르트 박사의 저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이...위기 속에서 배우는 삶』(*Warum gerade ich?—Leben lernen in Krisen*)의 한국어판 출간을 축하합니다. 이미 영어와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 출간돼 전 세계에서 독자를 얻고 있는 이 책이 마침내 국내 독자들을 만나게 돼 기쁩니다.

슈하르트 박사는 하노버 라이프니츠 대학에서 교육학, 성인교육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국회의원(1994-2002), 독일 개신교회협의회 총대(1972-1990), 유네스코 독일위원회 부회장(1984-1996), 세계교회협의회(WCC) 위원, ‘체르노빌의아이들을위한재단’ 창립 위원(1989-현재)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실천적 지성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통이론, 환경과 여성 연구,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한 성인교육에 관련된 많은 저서를 집필하였는데, 특별히 『왜 내게 이런 시련이...위기 속에서 배우는 삶』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제12판, 2006)은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슈하르트 박사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엄청난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지체장애, 심리장애, 감각장애, 지적장애, 만성질환, 정치적 박해 등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구체적인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고찰한 것입니다. 고난은 외부의 공격과 내면의 자기파괴적 힘이 싸우는 데서 오고, 이 과정에서 고난 받는 인간이 8단계의 위기극복 학습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슈하르트 박사는 풍부하고 현실적인 사례들과 통계를 통해 보여줍니다.

슈하르트 박사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한 그녀의 신학적 통찰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한스 쾨링, 도로테 쾨레, A. M. K. 뮐러 등 고난을 신학적으로 성찰한 신학자들과 대화하며 고난과 위기극복과정에서 신앙은 공격성을 멈추게 하고 위기를 수용하게 하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삶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렇게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난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고난 받는 삶에 대한 신학적 접근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인간적 보호를 관련시키는 시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을 추상화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적입니다.

슈하르트 박사가 검토하고 제시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대부분 서구

적 경험이라는 것이 이 책의 한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과 의미를 해석하는 시각은 동서양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공통점, 고통에 시달리고 고난 받는 인간의 경험의 공통성은 고난 경험의 다양성을 나선형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도 독자들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고통 받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책은 희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한신대학교 총장

채수일

##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선물”

지금으로부터 125여 년 전, 독일과 한국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때때로 양국에서 비롯된 긴장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든든한 우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관계의 상징적 신호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기 200여 년 전, 당시 북경에 불모로 억류된 한국의 소현세자(1612-1645)가 독일 예수회 신부 요한 아담 샬 폰 벨(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2-1666)로부터 선물을 받은 17세기 중반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받은 선물은 성경과 자연과학 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귀한 정신적 선물을 독일인에게 선사하였습니다. 예컨대 작가 이미륵(1899-1950)과 그가 독일어로 집필한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ßt*)는 패전 이후 내외적으로 고향을 찾던 독일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인 강의 기적’은 한국에서는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집

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양국 사회에 상처도 가져다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 이러한 상황에 *Warum gerade ich?—Leben lernen in Krisen*의 한국어 번역판이 200년 전의 그것과 같이 독일에서 전해온 반가운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독일 본 대학 한국어 번역학과 교수

알브레히트 후베(Albrecht Huwe)

##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이 책이 재판을 거듭해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또 다른 고통에 대해 언급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인간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경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하르트 박사의 책이 계속 출간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는 불행을 간과하려는 모든 행동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며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책은 특히 주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슈하르트 박사를 통해 비로소 알려지게 된 체험담은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해답과 설명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전달한 이후에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공격성과 분노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맞서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과 만나게 되고, 이는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책에 소개된 수기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체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체험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하는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일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먼저 낮설고, 비밀스럽고, 침묵하는 분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음을 예감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밀이 계속 이야기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심오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문턱에서 침묵을 참아 내며…” 이와 같은 믿음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던 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무력함과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완전히 새로이 인식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십자가에서 고통 받은 그리스도가 던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슈하르트 박사의 책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책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새로이 관계 맺

도록 용기를 줍니다. 모쪼록 이 책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92년 9월/2001년 8월 칼스루에에서

전 독일개신교회(EKD) 의장

주교회 감독 클라우스 엔겔하르트(Klaus Engelhardt)



| 추천사 2 |

##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증언들”

세대간의 고리가 약해져 종교적 전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진보하는 산업화 시대에는 아쉽게도 인생의 기술을 전수하는 데 많은 틈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유익한 관련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질병과 불행과 재난을 다룰 때 사용되던 가족 단위의 종교적 의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슈하르트 박사가 새로이 선보이는 이 책은 위기 속에서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갖가지 삶의 증언을 소개해줍니다. 슈하르트 박사의 업적에 존경을 표하며 이 책이 조언을 구하고 또한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널리 읽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 하노버에서

독일개신교회(EKD) 의장

만프레트 코크(Manfred Kock)

## “위기 속에서 배우는 삶”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독자들과의 다양한 만남과 의견교환이 있었 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이 책이 일종의 독서치료로서 수용, 소개 되고 있으며 또 이 책을 읽으려는 독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쁨 과 감사의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간 20주년을 기념하여 이 책을 다시 한 번 다듬고 참고문헌을 보충하여 이제는 ‘고전’이 된 이 책을 다시금 새롭게 선보이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출판사 대표 아르트 루프레히트(Armdt Ruprecht)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흑한과 때서운 겨울바람이 새로 눈뜨는 자연에 굴 복하는 것을 보고서 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 찬가지로 거의 절망적으로 보이는 힘겹고도 기나긴 여정을 통해 삶의 위기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번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왜 내게는 이런 시련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는 거의 묻



나선형 - 마음여행의 상징  
백금을 사용한 일산화탄소 산화 시 나타나는 나선형 파장으로 자기조직화의 한 사례이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21세기

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돌이 굴러와 위기에 처하고 그리하여 일순간에 삶이 변화되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거대한 바위를 계속해서 산꼭대기로 굴러 올려야 하는 시시포스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노력과 지속적인 좌절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는 긍정적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바위가 산중에 멈춰 서지 않은 것은 하나의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지와 정체 그리고 끝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위를 굴러 올리려는 희망적인 시도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멈추지 않고 생명력을 잃지 않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시시포스의 임무는 탐색활동입니다. 이 말은 바로 과정이 곧 목표가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성경 말씀 또한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던가요?

나는 위기와 질병 그리고 장애와 죽음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길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190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전 세계 6,000여 개의 수기를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며 쌓은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고통 받는 인간은 내 연구의 주제가 되었고, 특히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기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를 상승하는 8단계 나선형의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배우는 특별한 과정입니다. 인생의 힘겨운 문제나 고통, 경험을 나누는 것은 행복을 공유하게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그리스도 계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고통의 길을 비켜갈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신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끈기 있게 뒤따르며 신을 찾고, 그를 새로이 발견하는 감추어진 현재임을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 지난 1세기 동안 발표된 수기 분석 결과

이 책의 제12판 출간과 함께 우리는 고통 받는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수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 세기를 조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발전과 경향 그리고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한 특징은 20세기의 마지막 30여 년간 이 테마와 관련한 출판물들이 현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중반에 겨우 100여 권에 불과하던 수기가 20세기 말에는 6,000여 권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특징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된 주된 이유가 장애에서 장기질환을 거쳐 이별, 박해, 임종, 죽음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사건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도표 <저자의 서술 관점 상징 I-IV>과 <저서 목록 분류표 개요 K<sup>1</sup>-K<sup>17</sup>> 참조)

1970년대에는 평생교육의 선전, 생활지침을 동반한 성인교육의 제도화라는 배경하에 인생의 짐을 글로 풀어내려고 한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기회균등의 이념은 장애인들을 포함한 차별받는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장기질환(암, 에이즈, 지적장애)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주로 희생자들로 인해 홀로코스트(Holocaust) 청산작업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1990년대의 토크쇼와 빅브라더 문화 그리고 세기 말에는 커밍아웃과 성추행같이 더는 터부가 아닌 테마들이 공론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생의학과 유전체 연구 영역에서 인간 삶에서의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도표 참조) 이러한 발전 경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일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누구나 새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21세기 인터넷 시대에는 이것이 보다 쉬웠지요. 1987년까지 도서목록과 지하 문서실을 오가며 일일이 손으로 자료를 찾아야 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디지털 기술을 지닌 정보·통신·오락사회에서도 삶의 장애를 지닌 인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글을 쓴 분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매체이자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동반적인 조언 매체라는 이중역할 중 위기관리 부분을 계속 담당할 것입니다. 이에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연구해온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을 8단계 나선형 모델로 도표화하여 공개합니다. 또한 고통 받는 각 개인의 목소리가 간과되지 않도록 수천 명의 목소리를 모아 선보입니다.

2001년 봄/2006년 하노버와 베를린에서

에리카 슈하르트

## 개관: 저서 목록 분류표 K1-K17

2001년까지	중대한 인생사건	
176	삶의 장애 · 위기원인 의존적 여성 · 인공유산 · 실업 · 가정 문제 · 위험 임신 · 모병 · 성적 경향 · 당뇨 · 간질 · 심장마비 · 뇌졸중 흡수장애 · 폐쇄증 · 편두통 · 신경성 피부염 · 신경병 · 파킨슨병 · 뇌졸중 · 투렛증후군 · 장기이식	K <sup>1</sup>
48	성폭력 · 성학대 근친상간 · 성폭력 · 성착취	K <sup>2</sup>
196	임종 · 사망 · 자살 · 슬픔	K <sup>3</sup>
39	이별 · 버림받음 · 외로움 입양 문제 · 아흔 · 결혼가정자녀 · 버려진 아이들 · 버림받은 배우자	K <sup>4</sup>
489	박해 · 감금 · 폭력 홀로코스트 · 강제수용소 · 강제노동 · 망명 · 전쟁 · 피난 · 인종주의 · 망명신청자 · 여성적대적 전통	K <sup>5</sup>
180년까지	장기질환	
54	에이즈	K <sup>6</sup>
21	알츠하이머	K <sup>7</sup>
199	알	K <sup>8</sup>
27	다발성 경화증	K <sup>9</sup>
258	심리장애 불안 · 자폐 · 경계성 중후군 · 다식증 · 거식증 · 우울증 · 정신분열/다인격 · 자해 · 강박증	K <sup>10</sup>
154	중독 알코올 · 니코틴 · 약물 · 도박	K <sup>11</sup>
1970년까지	장애	
92	정신장애	K <sup>12</sup>
126	신체장애	K <sup>13</sup>
9	학습장애	K <sup>14</sup>
112	감각장애 시각장애 · 실명 · 난청 · 청각장애/청력상실 · 청각 및 시각장애	K <sup>15</sup>
17	언어장애	K <sup>16</sup>
17	행동장애	K <sup>17</sup>



| 이 책의 삽화에 대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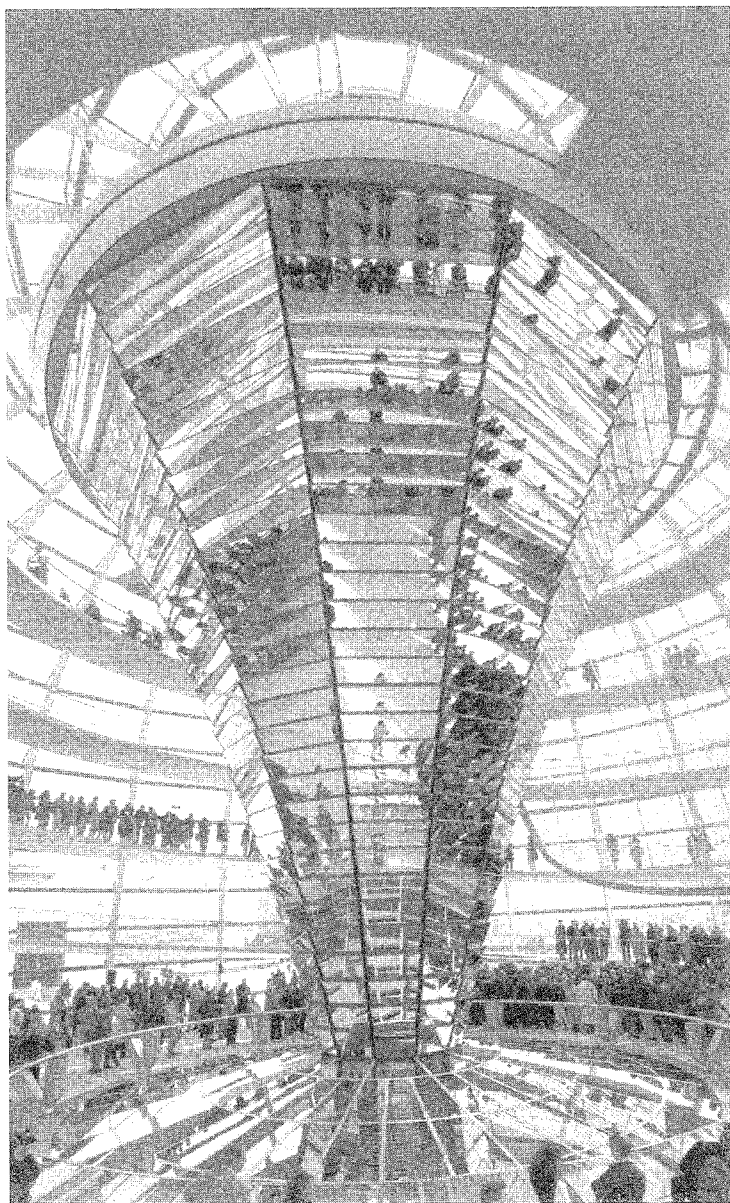
## 나선형-마음여행의 상징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수천 개의 삶의 기록들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여러 가지 공통점과 법칙을 발견하였고 이를 위기극복의 8단계 나선형 모델로 정의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고자 노력하던 중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고 휘감기며 올라가는 링 형태의 나선형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는 한참 뒤에야 비로소 이 모델이 하나의 '전형'(카를 구스타프 융을 참조하라.)을 표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달팽이와 미로와 나선형은 태곳적부터 회화와 건축물에서 인간의 인생여정과 마음여행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징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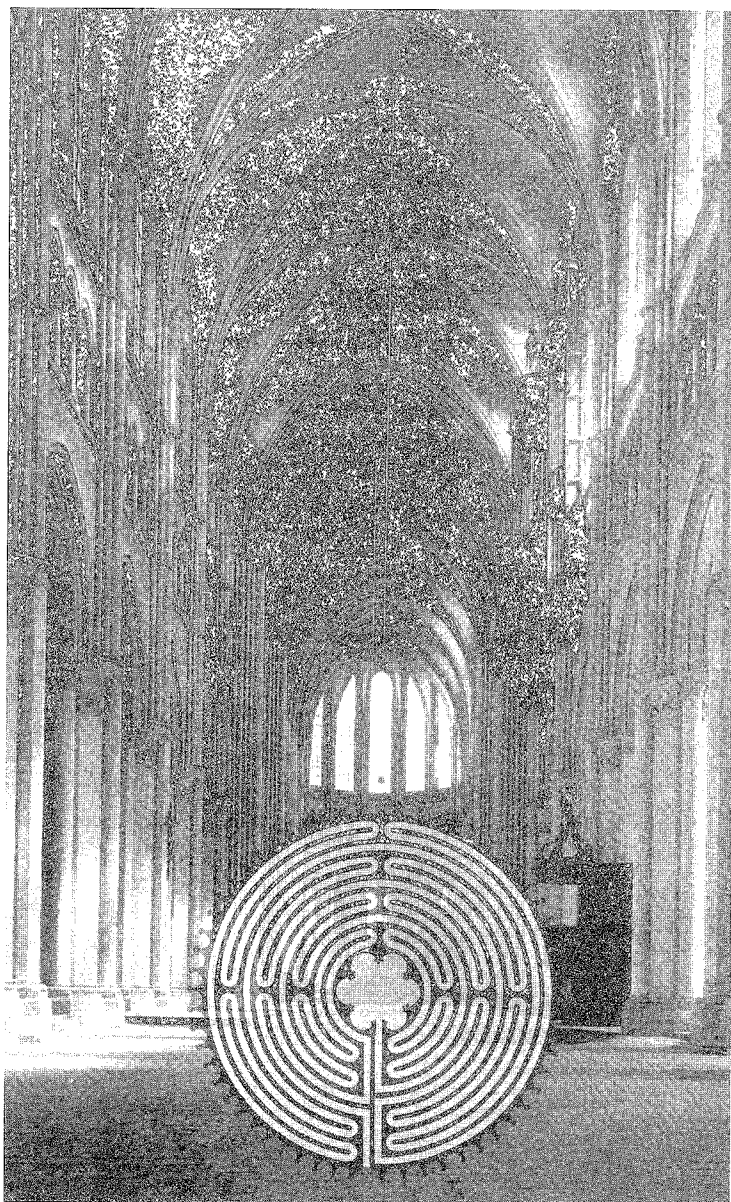
그 한 예가 바로 유서 깊은 베를린 국회의사당의 유리 돔 회전로를 구성하는 이중 나선형이다. 탁월한 미적 감각을 자랑하는 이 '은빛 금속으로 된 빛나는' 이중 나선형은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념의 빛을 향해 다가가는 통일 독일의 상징으로 이해된다.





**나선형-마음여행의 상징**

베를린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위, 지붕의 유리 돔으로 가는 보원적 나선형 길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 베를린, 1999



**나선형 - 마음여행의 상징**

샤르트르 대성당의 나선형 미로, 바닥 모자이크

지름 12.87m, 총길이 약 250m, 프랑스, 11세기

|신호|

## 독자가 보내온 편지

약한 자를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가 혼자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걸을 때도 부축해주어야 한다.-중국 잠언

병원에서 퇴원한 뒤부터 제 머릿속엔 이 글귀가 자주 떠올랐습  
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퇴원하면 완치된 것이며 어떻게든 혼자  
서도 잘 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병의 (또는 다른 위기 상황의) 초  
기 단계에는 모두가 곁에 있어줍니다.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그 중간단계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에리카 슈하르트 박사는 그녀의 책을 통해 중병이나 다른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  
니다. 운이 좋은 경우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가족과 배우자 또는 몇몇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맞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경청해주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신호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에리카 슈하르트 박사의 책에도 쓰여 있듯 우리는 위기극복의 모든 학습단계를 고통을 당하는 보호자들과 함께 이겨내고 두려움과 무력감과 어려움을 견뎌내되, 그들에게 “모든 일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병에 걸린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세요.”라는 말로 위로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극단적인 상황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라면 기꺼이 포기하겠다고요. 제겐 예전의 삶이 더 의미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말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처음부터 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리란 걸 알고 있었어.”라는 생각과 함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고립 상황으로 몰고갑니다. 이 책을 읽으며 보호자들의 의심과 두려움,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고백도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신뢰감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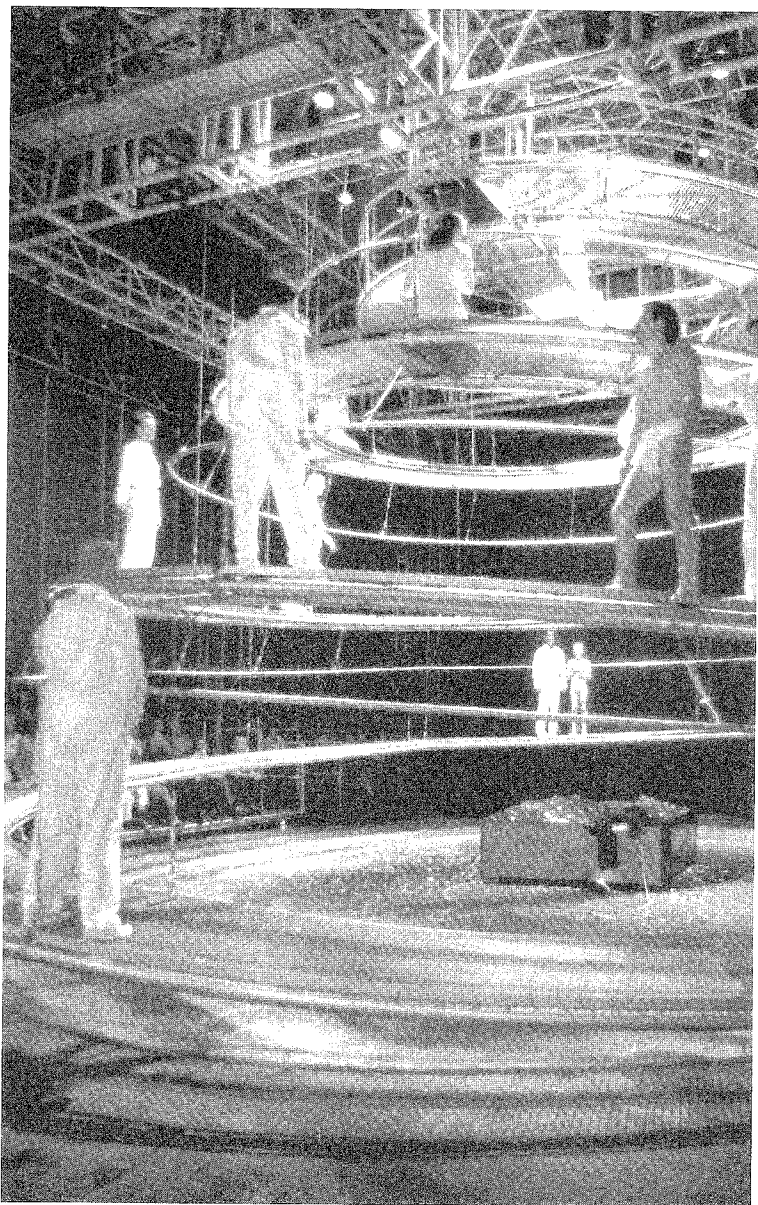
힘겨운 불행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모든 기도가 헛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나요? 제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내버려두십니까?” 저 역시 주님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비난하는 한 주님은 제 안에 존재합니다.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가 죽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허용되는 과

정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품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 속에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의지와 이 의지를 통해 다시 생겨난 삶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삶으로, 아마도 질병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일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2001년 봄 에틀랑젠/뉴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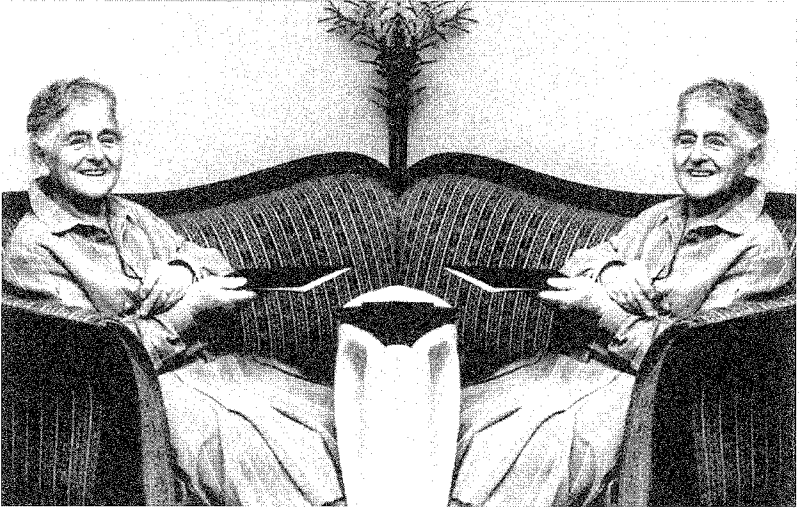
의대생 T. S. (26세)



**나선형 - 마음여행의 상징**

구원의 나선형, 파우스트 II 공연의 마지막 장면

페터 슈타인(Peter Stein) 연출, 하노버, 2000



나의 어머니 에르나 슈하르트가 자신의 저서를 읽어주는 장면, 1984







Chapter 1

위기를 맞은  
사람들과 그 가족의 경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불행을 당한 산증인들<sup>1)</sup>은 이렇게 묻는다.

해롤드 쿠시너는 아들 아론의 세 번째 생일날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고, 길어야 1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들이 죽은 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비극은 이기적이고 불성실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랍비로서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와 내 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여러 책을 통해, 그중에서도 특히 『지상의 모든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수인은 장성한 의붓아들이 지병으로 인해 24시간 동안 돌봐주어야 하는 환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고통을 『오직 사랑의 힘으로』라는 책에 서술했다.

안나 바스티안은 10살 때 불치의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지개 아래의 눈물』에 실린 〈무인지대〉라는 글은 그녀가 걸어간 한계의 길을 독자들과 함께 체험하도록 해준다.

독일 서적협회 평화상을 수상한 한스 요나스는 아우슈비츠라는 엄청난 불행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의 답을 찾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도 아우슈비츠 희생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진 바 있다.

우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위기를 맞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이와 유사한 위기상황에 처한다. 갑작스러운 불행을 맞이한 이들은 잘 정돈된 인생의 한가운데서 파괴를 경험한다. 창조의 틈이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나 그 가족 또는 배우자와 대화를 해보았거나 같이 생활한 사람들은 대화 상대자가 이해받기 바라고, 공동체를 찾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실현될 수 없는 이 기대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향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입장에서도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고자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 197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서는 <교회의 단결-인간의 단결, 장애인과 하나님의 전 가족>이라는 추천문이 통과되었다.<sup>2)</sup> 이어서 1978년 구동독지역인 바르사로우에서는 유럽교회 각서가 통과되었다.
- 1979년에 세계교회협의회는 제네바에서 ‘1981년을 유엔(UN) 장애인의 해’로 결의하는 것을 논의하고 이를 교회의 자기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과 연결시켰다. 이는 담당사무소를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을 담당자로 임명함으로써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는 “참여”를 선언하고 전 영역에서 교회 의결위원회에 장애인을 포함 시키기로 결정했다.<sup>3)</sup>
- 1984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루터교연맹(LWF) 총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 1993년에는 문서와 현실 간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나는 부다페스트 총회에서 <장애인의 참여>라는 분과의 대면인으로서 연구결과를 보고할 기회를 가졌다. 다음과 같이 시작한 이 보고는 1만 2,000명의 관중들에게 도발적 언어로 들렸다.

<장애인> 분과 자체가 ‘장애를 지닌’ 그룹이었던가요?... 315명의 파견단 중에 단 3명의 위원만이 이 분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고문 자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청한 3명의 파견의원 모두 직간접으로 장애 문제와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sup>4)</sup>

이로써 우리는 연구의 핵심에 이르게 된다.

- 위기를 당한 사람들과 이들의 보호자는 교회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보호자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평신도이거나 평범한 인간인 이들은 교회를 특히 사회적 인접환경에서 경험한다. 즉 교인 및 교우, 교회 자원봉사자와 간호사, 기독교 사회복지사 또는 목사를 이웃으로 만나게 된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과 그 가족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유형의 대답이 눈에 띈다.

### ㉠ 첫 번째 경험

우리는 기독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지만 이 사업의 주체나 적극적인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일하긴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경우는 드물다!

### ㉡ 두 번째 경험

설교는 우리의 장애나 위기를 위로하며 미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비판적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위안이나 도움을 준다거나 비판적 대화를 통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기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회는 내세로 우리를 위로하며 현세를 미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탄식과 외침을 듣지 않고 침묵한다.

### ◎ 세 번째 경험

영성상담을 하는 목사와 교인은 공직을 맡은 담당자일 뿐 직접 불행을 당해 고통 받는 자들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준다.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위기극복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

위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와 관련하여 육성만이 아닌 글로도 표현했다. 다음에서는 2,000여 개의 수기를 분석하여 얻어낸 몇 개의 관련된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 ◎ 첫 번째 경험에 대하여

“우리는 기독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지만 이 사업의 주체 또는 적극적인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신체장애자인 루이제 하벨<sup>5)</sup>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비오는 차가운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잘 알지 못하는 교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였다. 목사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소년 두 명이 택으로 찾아가 성도님을 시내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고 말했다.

그게 다였다.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날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아무것도 말이다.

그녀는 그날 병원에 가야 하며 10월 날씨가 춥다고 거절하려 했으나 이러한 입장은 특이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목사님은 사명감에 불타 세례 준비 학생들이 기독교 사회복지사업에 익숙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나를 차에 태워 시내로 데려가는 게 좋다고 한참 동안이나 설명했다.

루이제는 정 그렇다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형식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되지 않도록 소녀 두 명을 보내 집안일을 돕게 해달라고 했다. 대신 소년들을 심장병 환자에게 보내 정원을 정돈하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투입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의 사업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교회에 보여주는 게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루이제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한 기관의 권한이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가를 절감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담긴 장의 제목을 〈이웃사랑의 대상〉이라고 붙였다. 우리의 봉사활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복지기관의 자기연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은 우울한 일이다. 이것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종의 ‘돌봄’의 ‘영구예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음에서 상세히 보고된다.

1년 뒤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그 목사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목사님은 인터뷰를 녹음해 오라며 소년 두 명을 우리 집으로 보냈다. 나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대해서는 고향 같은 느낌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에 편한 인터뷰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사님에게 말했다. 차라리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이들과 한번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목사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비판해도 좋다고 대답했다.

집으로 찾아온 세례 준비 학생들이 비판적인 대화 내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게다가 학생들은 녹음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 목사는 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녀를 방문하게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능란하게 대답하는 목사님의 태도에 화가나 나도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나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을 내버려두며,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존재하기는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답했다. “그건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의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지적하자 목사님은 어깨를 으쓱였을 뿐이다. 그러고는 자신이

우리 도시의 역사 축제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목사님이 돌아간 뒤 그와 전혀 얘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느낌만 남았다. 다른 장애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것이 나만의 경험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자주 일회적인 특별사업의 대상으로 머물고 만다.

루이제는 청소년사업 대상자들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인용하면서 교회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교회는 장애인을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다. 우리는 동정의 대상인 것이다.
- 사람들은 장애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 반어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지하에 교회당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 교회는 항상 사회에 요구를 하기보다는 사회에 순응해왔다.

페터 헤머<sup>9)</sup>는 교회에 다음과 같은 ‘공개 질문’을 던졌다.

1. 장애인은 언제 인정받고 더는 ‘가련한 장애인’ 취급을 받지 않게 될 것인가?
2. 사람들은 ‘우리 장애인’, ‘우리 시설 거주자’라고 말한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장애인들을 아이 취급하는 것인가? 다른 쪽에선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3. 교회와 교회 종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적 태도를 언제 중단할 것인가? 이 둘 모두는 동등한 상호관계와 장애인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동정심 역시 거리두기의 한 형태이다!)
6.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형제자매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장애인을 선한 행동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장애인을 어떻게 형제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 형제자매란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던가?
8.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일한다는 인식은 언제 실현될 것인가?

### ㊸ 두 번째 경험에 대하여

“설교는 우리의 장애나 위기를 위로하며 미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비판적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위안이나 도움을 준다거나 비판적 대화를 통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기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내가 이단적 생각을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무력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신자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렇게도 정확히 알고 있는 신의 대리인들이 무서워졌다. ... 나는 하나님께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 그 당시 나는 몇 년간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다.<sup>7)</sup>

하인츠 차른트<sup>8)</sup>는 간암 말기의 여자를 방문한 어느 목사의 이야기

를 들려주었다. 그 목사는 환자에게 고통을 당해도 되는 선택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

정말로 신실한 분이었던 제 신학 스승이 해준 이야기가 기억난다. 그분의 병든 어머니를 방문한 목사님에 관한 얘기였다. 목사님이 돌아간 뒤 아들은 어머니에게 목사님과의 만남이 어땠는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목사님이 “성도님, 고통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단계,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단계, 고통을 당해도 되는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전했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이어 말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건 저 분이 내 고통을 한번 느껴봐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경련성 마비환자인 크리스타 슈레트<sup>9)</sup>는 질병을 앓은 것이 인생의 과제임을 납득시키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여긴 어느 교회 봉사요원의 방문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나는 고통이 무조건 신앙에 이르게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대한다. 나는 특히 장애인들 중에서 원한에 찬 무신론자들을 많이 만났다. 우리를 고통의 순교자로 낙인 찍는 나이 지긋한 여성 봉사자들에게서 전해 듣는 기쁨의 말씀처럼 모순적인 것은 없다. ... 오래된 우리 교회의 여신도가 집에 찾아와 병을 앓는 것이 내 삶의 과제임을 납득시키려 했을 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른 인간들이 잘살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 아파야 하다니. 그 여신도가 말한 것에 다른 뜻이 있었다고 가정해보

자. …장애로부터 예찬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장애인의 약함을 그들의 인간다움보다 앞세운다면 장애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신체장애인인 테니스 레그리<sup>10)</sup>는 장애인들의 저항에 대해 서술했다.

가끔씩 우리는…우리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도하신 ‘선’(das Gute)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내게 거짓처럼 생각되는 무언가를 쓰려고 하면 펜이 저항을 한다. 나는 매번 납득하기 어렵다고 되풀이하여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앙드레 미켈<sup>11)</sup>은 아들 피에르의 죽음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찰하였다.

아들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한번도 인정할 적이 없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죽어가는 아이의 고통이다. 그것이 커다란 장애물이다. …자신의 아들을 단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인간은 자기 아들을 단념할 수 없다. 아내와 나는 그 사실을 거부했다. 죽음이 우리 아들을 강제로 빼앗아갔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능한 일이겠는가?…우리는 신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점점 더 우리에게 참기 힘든 인물이 되었다. 오히려 우리는 욕기를 읽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심지어 어떤 때는 복음서조차도 짐처럼 느껴졌다.

잉그리트 베버-가스트<sup>12)</sup>는 심리적 장애인 우울증의 경험을 들려 주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설교에 대한 내 기대치도 아주 낮아졌다! 질병의 어둠 속으로 다가온 말 한마디를 들으면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런 말을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어찌면 이런 생각은 새로운 실망에 대해 무장해놓은 보호막일지도 모른다. 실망은 우울증 환자에겐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니 말이다.

페터 헤머의 “교회에 드리는 신체장애인의 공개 질문”<sup>13)</sup>은 무엇보다 보편화된 관념에 대해 지적한다.

12. 장애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벌로(부모에 대한 형벌이건, 장애인 스스로에 대한 형벌이건 간에) 간주되고 인식되는 사실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13. 교회는 보다 나은 사후의 삶에 대해 약속하는 것을 중단하고 현세에서 인간적인 삶이 만들어지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크리스티 브라운<sup>14)</sup>은 내세의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예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루르드 동굴 성당과 그곳으로 가는 길에 함께한 사람들이 생각한다. 나는

다시금 그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인내심이 있고 쾌활하며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세에서 기다리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너무도 인간적이었던 것이다. 내 안에는 살아 있는 인간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종은 들어 있지 않았다. 나는 내세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이 현세를 더 많이 보고 또 알고 싶었다.

어느 시설에 속한 여교사의 솔직한 대답이 담긴 다음의 인터뷰는 설교와 인간관계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적인 예이다.

우리는 특수학급을 맡은 어느 여자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다. 그 선생님은 실로암 학교 교장의 딸과 달리 학생들이 종교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설교는 거부당하고 있다. 학교운영 위원회가 주민들과의 갈등을 지나치게 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즉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sup>15)</sup>

### ◎ 세 번째 경험에 대하여

“영성상담을 하는 목사와 교인은 공직을 맡은 담당자일 뿐 직접 불행을 당해 고통 받는 자들이 아니다.”

우울증을 겪은 잉그리트 베버-가스트<sup>16)</sup>는 목사의 역할이란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조력자라는 개념이 아닌, 함께 고통 받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함께 고통 받는 동반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자기 삶에 영

향을 받으며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다 겸손하고 불문명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목사는 항상 경계집단의 사람들을 대하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머물 뿐 어려운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친구가 되지는 못한다. 친구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저 아래에서 죽어가는 자들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함을 의미할 것이다. ... 설교는 우울증에 걸린 청중도 고려해야 하며 신앙의 확신만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면, 어둡고 힘겨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알베르트 피레스<sup>17)</sup>는 두 명의 지적장애아를 가진 아버지로서 ‘교회  
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장애아동과  
기독교 공동체>라는 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어떤 가족이 장애아동을 예배에 데려가려고  
할 때 주일 공동체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부모는 보통 호기심 어린 눈빛  
으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는가? 부모는 아이에 대한  
예정 어린 이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따금 일어나는 아이의 불안  
정한 행동이 용납되는가? 부모에게 장애아를 데리고 주일예배를 보러 가  
는 일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부담감, 즉 목사와 신자들로부터 내버려진  
다는 굴욕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게도 설교 중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를 데려



가야만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젊은 어머니들을 이해해주고 용기를 북돋는 말씀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예외법절을 잘 배우지 못하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의 처지이다. 부모들은 이따금 차라리 아이를 집에 두고 다니라는 소리를 듣는다.

에디트 마이징거<sup>18)</sup>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어느 경련성 마비환자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건강한 사람에게 마비환자를 쳐다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나도 잘 이해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다. … 이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나도 당연히 내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 우리는 뒤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 그때 상냥한 어느 여자가 다가와 사회복지사에게 “죄송하지만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를 데리고 끝줄로 가주시겠어요?”라고 속삭였다. …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리고 내 담당 사회복지사는 내가 성찬식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중한 부탁을 받았다.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수기를 분석하면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러한 대답에 희망적인 대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어찌면 이런 결과는 새로운 단초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2,000여 개의 전기 및 수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수의 수기에서만 교회와 목회상담에 대한 솔직한 견해가 피력되고 있다. 이는 교회가 대부분의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삶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 교회와 목회상담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수기 저자들은 그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 이러한 분석 결과와는 모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그리고 다른 수기 저자들은 신앙의 체험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이고 중요하다고 평가한다.(이에 대해서는 제3장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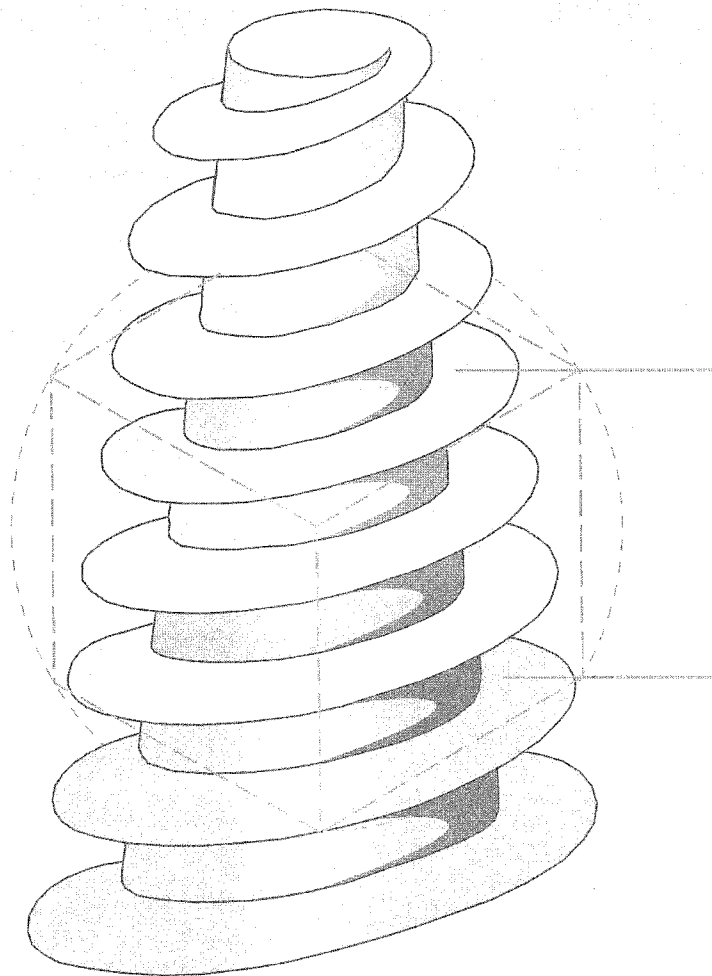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위기를 맞은 사람들과 이들의 보호자는 교회와 목회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에 의지한다.



나선형-마음여행의 상징  
거석사원의 내부 성전으로 가는 나선형 입구  
알 타르젠, 몰타, BC 2400-2300

## 나선형:~에 대한 상징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 나선형을 여러분의 상상력과  
기억으로 채워보세요.

1900년부터



Σ 2034



© 에리카 슈하르트



Chapter 2

# 위기 극복

## 학습과정의 8단계 나선형 모델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수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사회생활의 결핍, 즉 인간관계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눈에 띈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 대부분은 보호자의 돌봄을 받는다. 하지만 돌봐주는 보호자들은 보호 대상자와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수기의 분석 결과는 과연 어떤 단계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기를 쓴 저자들의 저술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어떤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을까?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들이 처한 고립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수기는 곁에 있어서 언제나 다가갈 수 있으며 또한 위기를 극복해가는 지난한 과정에서, 즉 고통스러운 위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이자 대리 보호자와 같다.

대부분의 수기 저자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학습과정을 경험하고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때문에 이들 중 3분의 2는 학습과정을 일찍 중단하거나 평생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살아 가고, 단지 3분의 1 정도만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에 다다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싶다. 교회가 할 수 있는 혹은 해야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례<sup>19)</sup>를 살펴보면 전문 관청의 봉사기관을 통해 어찌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가능해진다. 즉 어떻게 하면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들의 일을 보다 적합하게 그리고 특히 어떻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수행해나갈 수 있을까? 교회의 각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 고립에 대처하고 사회적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공동체로의 통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있을까?

필자의 연구 대상은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통합 또는 고립에 이르게 되었는가였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1900년부터 현재까지 쓰인 위기를 경험한 당사자와 보호자의 수기를 최대한 수집, 분석하였다.(2장의 “수기 저자와 수기에 대한 자료”에 나오는 도표들을 참조하라.)

그 결과 위기극복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위기극복을 위한 단초로 이용될 수 있는 법칙들이 발견되었다.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이 바람직하게 진행된 경우, 최종 단계는 사회통합이다. 다수의 실패와 장기적인 사례연구 그리고 고통을 당한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은 이 과정이 얼마



나 어려운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준다.<sup>20)</sup>

실존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이 배우는 멀고도 험한 과정을 떠올려보면 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과정은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데 보다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 수기를 살펴보며 새롭게 확인한 사실은 사회통합에 이르기 위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과 이들의 보호자가 위기의 원인(육체적·심리적·감각기관적·정신적 장애 및 만성적 질병과 예고된 죽음으로 인한 삶의 혼란 등)과 상관없이 학습과정의 모든 단계를 거치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 예컨대 실업자, 배우자를 잃은 사람, 수배자, 수감자, 심지어 아직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언젠가는 당연히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할 사람은 거의 없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될 경우 위기극복과정의 모든 단계를 선형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필자는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자아발견의 역동성을 ‘나선형’으로 도식화했다.<sup>21)</sup> 다음에서는 위기극복의 학습관계에 대해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 나선형 1단계 - 막연함(Uncertainty)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먼저 쇼크 상태에 빠진다. 사고나 소식, 사건과 같은 위기의 원인은 청천벽력처럼 찾아와 모범적인 삶을 일순간 파괴해버린다.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삶에서 내몰리는 것이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처음으로 겪는 낯선 상황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자동적으로 몸이 뻗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들은 저항하고 방어벽을 세우며 합리적 의식을 치르고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위기의 원인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위기가 생겨난 현실을 아직 감당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방어 메커니즘을 동원하여 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위기의 주변을 맴도는 이러한 부유(浮遊) 상태에서는 '절대적 거부'라는 공통적 특징이 나타난다. 퀴블러-로스(Kübler-Ross)는 이러한 '막연함'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고립 상태'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는 일종의 의식적인 행위이다. 그에 반해 막연함이라는 개념은 위기를 부정하려는 경향과 함께 반(半)의식적인 상태 또는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고 묻는 상태에 해당한다. 상담전문가들은 이미 이 '대체'라는 단어 뒤에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 숨어 있다는 것, 즉 잠재적으로 이 위기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단계 또는 인식단계인 나선형 1 단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나선형 1단계는 세 개의 중간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단계들은 각기 분리되거나 공존할 수 있고, 지속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 ◎ 중간단계 1.1-무지(Ignorance)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누구나 최악의 상황을 곧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모든 의심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이다. ‘아직 알지 못함’은 무지 상태를 만들면서 막연함(1)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된다. 그러나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한다. 주변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오고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어쩔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 중간단계 1.2-불안(Uncertainty)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지 않을까?” 무지 상태는 불안으로 바뀐다. 이 단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의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감정 상태는 사실 인식을 방해하게 된다. 현실을 수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의심은 예민해진 감수성을 의미하며 지진계처럼 모든 것을 감지한다. 목표가 뚜렷하고 그로 인해 아주 예민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확신에 대한, 즉 진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또한 비교를 하고 설명을 찾게 된다. 이 모두는 단 하나의 목적,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불안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간단계에서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당사자와는 달리 의사나 이웃 또는 같은 병을 앓은 환자들처럼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

이 점차 생겨나고 이로 인해 분위기가 변화된다. 이미 상황을 파악한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의 행동은 앞으로의 신뢰 또는 불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이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당사자와의 관계에 작용하면서 당사자의 인식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 밖에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추측하듯 불안감이 커진다고 해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위협적인 상황에 처함으로써 방어본능이 강화되는데, 이는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강화되는 방어본능은 다음의 중간단계가 시작한다는 증거이다.

### ◎ 중간단계 1.3-불수용(Unacceptability)

“이건 분명 착오가 아닐까?”라는 질문은 자신이 생활능력을 상실했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중간단계로서 불수용 상태로 요약된다. 이 단계에서는 거의 명백한 확신에 저항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증가한다. 다른 특징으로는 선별적인 수용자세, 즉 마음을 안정시키는 무지 상태를 강화시키기 위해 특정 부분만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부추기는 다른 것들은 모두 간과해버린다. 또한 무지 상태로 되돌아가 모든 것이 정상이라며 끊임 없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억지로 설득하려 시도한다.

다른 한편,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점점 더 실제 사실을 알고 싶게 만든다. “그러니까…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또는 긍정하는 부정, 즉 “네, 그래요. 하지만…?”이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이 중간단계는 진실을 알려 하지 않고 도망치는 마지막 시도

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중간단계의 마지막에, 첫 번째 나선형 1단계 막연함의 최종단계로서 견딜 수 없는 긴장을 종식시켜줄 구원적 확인에 대한 무언의 소망이 자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진실을 깨닫는 시점이 상당히 늦춰진다. 잠재하는 사실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적당히 조절된 진실의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인식단계 혹은 시작단계가 위기극복의 전 과정을 특징짓게 된다는 점이다. 적당한 보호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위기극복과정을 중단하여 사회적 고립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로써 공동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배움의 과정이 시작된다.

### 나선형 2단계 - 확신(Certainty)

1단계인 막연함에서 이미 예고되었듯, 생활능력의 상실에 대한 확인이 어쩔 수 없이 2단계에서 나타난다. 이 상태는 “그래,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라는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문장은 부정적인 긍정처럼 들리기도 하고 계속적인 부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둘 다 옳다.

자신의 위기를 인식한 사람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현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온전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감정적으로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런 예감이 옳지 않거나 오류로 밝혀지리라는 마지막 희망으로 살아간다.

이성적인 긍정과 감정적인 부정 간의 모순은 확산단계의 특징이다. “그래, 하지만…?”이라는 모순적인 질문은 완충제처럼 필요에 따라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경악스러운 의사의 진단 사이에 자리하게 되고, 위기에 처한 당사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빈틈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확산단계를 맞이하여 실제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상황과악에 도움이 된다. 이 대화가 이성적 인식과 감정적 상태를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결정적인 전제는 당사자 자신의 각오이다. 위기에 처한 사람은 대화를 통해 알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조절된 외부의 중재를 통해 ‘말한다’는 의미에서 진실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진실에 대한 물음은 객관적으로 올바른 상황 정보나 원칙에 대한 물음이 아니다. 또한 그 자체로 완결된 일회적인 정보 전달 행위도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소통 문제, 즉 매개의 문제, 관계망을 형성하는 당사자와 비당사자(의사, 전문가, 동반자) 간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다.

그리하여 “암에 걸리셨습니다”, “다운증후군 태아를 임신하셨습니다”, “척추가 손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하셔야 합니다”와 같이 진실을 알리는 말들이 진공상태에 고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은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각각의 특수한 상황과 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는다. 저항 메커니즘을 억제함으로써 진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진실을 받아들일 상황에 있는가? ‘당사자와 보호자’는 맞닥

뜨린 운명에 어떻게 맞서는가? 이는 특히 보호자들의 한계와 그들의 소통적, 치료적 능력 그리고 한계상황에 처한 그들의 정체성 안에서의 내면적 안정에 대한 질문이다. 진실을 듣는 순간 그것을 감당하고 소화해낼 수 있다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분명 온전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나선형 3단계 - 공격성(Aggression)

처음의 ‘이성적’이고 ‘외부의 조종을 받는’ 막연함과 아직은 모순적인 확산단계 다음으로 격렬한 감정이 표출되는 ‘감정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단계가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심적 경험에 대한 이성적 인식이 의식 속으로 침투한다. “...이제야 깨닫게 되다니!” 위기를 당한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라고 소리친다. 고통은 끝이 없다. 이러한 인식과정은 강력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당사자는 숨 막혀 하거나 운이 좋은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버린다. 화산같이 폭발하는 이러한 반항심은 공격성이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비극적인 것은 공격의 본래 대상, 즉 위기의 원인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격성은 대체물을 찾게 되고, 어떤 것이든 그 목표물이 될 수 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공격성은 뚜렷한 이유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분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위기를 당한 사람은 어느 곳을 보든 간에 문제를 제기할 이유를 발견한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분출되는 감정을 폭발시킬 방도를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새로운 악순환이 시작된다.

1단계 막연함에서 종종 상황을 먼저 파악한 주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착각에서 현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공격성 단계에서도 잘못 이해된 반항심은 그것이 해소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 방어 의 표현으로 인식되어 반항심을 더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같은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위기를 당한 사람은 이로써 모두가 자기의 적이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버림받고 고립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적절한 보호가 없는 경우 위기의 당사자들에게 노출된 위험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수동적 또는 적극적 자기 파괴의 공격 속에서 숨 막혀 하거나 주변의 적대적인 언사 때문에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냉담한 체념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것은 전체 학습과정에서 감정적인 위기극복의 시작단계로서 공격성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이다.

#### 나선형 4단계 - 협상(Negotiation)

공격성에 내맡겨진 감정의 힘은 행동을 재촉한다. 탈출구 없는 상황을 맞아 생겨난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조치가 무분별하게 행해진다. 이러한 '제거 시도'가 계속될수록 그 강도는 높아진



다. 이어서 흥정과 협상을 하게 된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 각각의 경제적 상황 및 세계관에 따라 이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역설적이게도 두 경향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평행하게 나타나곤 한다. 그 한 경향은 ‘의사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 경향은 ‘기적의 치유법’을 찾는 것이다. 여러 명의 의사들과 외국의 전문가 그리고 숨어 있는 치료사들까지 찾아가 무분별하게 상담을 하는 행동은 급기야 가족을 경제적 파멸로 이끌면서 최종진단을 미룰 수 있다는 희망을 사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성모(聖母)가 출현한 루르드 성지를 순례하고(실제로 수기 저자의 3분의 2가 이곳을 순례했다.), 미사를 드리고,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서원을 올리고, 전 재산을 교회나 인도적 기관에 헌납하고, 수도원 가입을 서약하거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과 같은 모든 ‘기적의 치유법’이 동원된다. 이 모든 것은 “그렇다면, 이래야 한다!”와 같은 한 가지 조건하에서 행해진다.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감정단계는 마지막 저항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협상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경우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다. 그 길은 물질적, 정신적인 ‘매진 상태’로 끝날 수 있다. 반대로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자신의 반응방식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울 경우 얼마만큼의 실망이 감소될 수 있는가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 나선형 5단계 - 우울(Depression)

‘의사 백화점’ 또는 ‘기적의 치유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실패했다는 선고를 듣게 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암에 걸린 환자는 죽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할 수 없고, 사고로 척추마비가 된 환자는 무감각해진 다리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다. 다운 증후군 아이의 어머니도 아이의 행동과 표정을 못 본 척할 수만은 없게 된다.

외부로 향한 감정이 소진되고 내면에 체념이 자리하면서 침묵에 이르게 된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이전 단계에서 좌절감을 실패로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 하려? 모든 게 의미도 없는데…”라며 절망이나 체념의 심연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로써 이들은 우울단계로 접어든다. 하지만 슬픔과 눈물은 무언가를 말하는 언어이며 체험과 상처와 끔찍한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수동적인 저항의 표시이다. 이제는 이성적일 뿐 아니라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도 이해한다. 또한 의식적으로 고독해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 아직 존재하는 것과 그것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인식하게 된다. 슬픔과 상실감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음, 상실로 인해 부딪히게 될 문제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린 일자리, 사회적 위치 하락, 멀어지는 친구들, 파괴된 인생의 목표 등……. 상실을 받아들이고 앞날의 지하된 삶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우울의 두 가지 양상은 비현실적인 희망을 포기하는 것, 즉 유토피아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또 남들에게 포기될 것이 라는 두려움에서 확실한 상실을 인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끝이 없는 슬픔, 소위 '애도 작업'이 동반된다. 애도 작업은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방향전환과 내부로 향한 반성, 즉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포함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거리를 취하고, 필요한 다음의 행동을 계획하는 자유가 생겨난다.

### 나선형 6단계-수용(Acceptance)

이 단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의식적인 한계의 경험이다. 이성적, 감정적 영역에서 모든 것에 맞서 싸우려는 단계를 겪으면서 저항할 힘은 다 소진된다. 위기의 당사자들은 공허하고 아무런 의지도 없다고 느끼면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이성은 온갖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현재와 미래에 있을 상실에 대해 반응하고 예측하면서 이미 다 슬퍼한 상태이다. 이들은 끝까지 왔기 때문에 지치긴 했지만 마치 구원을 받은 듯, 새로운 인식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열려 있는 가운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버리는 가운데 새로운 인식이 자라난다.

위기를 맞은 사람은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혼자 아니며, 자신의 감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인간적 가치를 잊고 있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갑자기 인식과 체험과 경험이 한꺼번에 몰려와 "이제야 깨닫다니!"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나는 존재하

고, 나는 할 수 있으며, 나는 의지가 있고, 나는 나를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때문에 이 단계는 수용단계로 표현된다. ‘나는 다리가 마비된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나는 장애아의 어머니로서 자신을 받아들인다! 나는 더 이상 위기에 맞서지 않고 위기와 함께 살겠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인간이며 모두 자신의 위기, 즉 자신의 한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다! 나는 내 삶을 경험하고 배워나갈 것이다!’

수용, 그것은 체념적 포기를 의미하지도 않으며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이해될 수도 없다. 수용은 동의하는 긍정이 아니다. 어떤 인간도 가혹한 상실을 긍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야 의식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수용할 능력을 얻게 된다.

### 나선형 7단계 - 행동(Activity)

개인적 특성과 함께 살아나가겠다는 결심은 이제까지 그에 맞서 싸울 때 사용된 힘을 풀어준다. 이 잠재적 힘은 행동을 재촉한다.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문장은 이러한 방향전환을 보여주는 자발적 표현이다. 스스로 통제하고 이성적, 감정적 능력이 모두 동원된 상태에서 나선형 7단계인 행동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는 변화, 즉 가치와 규범의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일반적인 규범과 가치체계의 밖이 아닌, 그 한 가운데에서 일어난다. 규범과 가치의 차원은 변함이 없지만 변화된 시선을 통해 새로운 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생각과 행동이 현실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목적이 아닌 결과로서의 ‘체계 변화’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스스로를 새로이 정의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행동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얻는 것, 다시 말해 과감히 시도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선형 8단계 - 연대(Solidarity)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이전 단계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경우 이들은 언젠가 사회에서 책임을 맡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개인적 영역, 즉 개인적 특성은 다른 삶의 한계에 대한 관계에서 인식된다. 장애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사회활동의 장이 의식 속으로 들어와 공동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연대는 위기를 극복하는 배움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우리는 행동한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겠다!” 이 문장은 성공적인 위기극복, 즉 적절한 사회통합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분명한 것은 소수만이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며, 아직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극히 드문 경우에만 이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불치병 환자들의 위기극복과정을 불가피한 실존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싸움과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마침내 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에서의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의견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어나가는 데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연대를 이루어 만드는 새로운 과제를 떠맡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은 행복이라는 의미로 체험될 수 있다. 공동체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적절치 못한 성과규범 한가운데서 다름을 통해 이루는 ‘자아실현’이다. 힘겨운 길을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능이 있으며 누구나 전체의 일부라는 전체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는 각 부분을 합한 것 이상이다.

8단계 모델에서 우리는 위기를 맞은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순적인 경험, 즉 자신의 반응과 주변의 반응을 통해 나선형 형태로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선형 모델은 내면적 과정의 미완결성뿐 아니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행동하는 과정에서 충을 이루어 나타나는 다양한 굴곡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모델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제한적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긍정하는 경우에도 평생 이 어려운 배움의 과정 속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나선형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파멸과 고립과 삶의 의미의 포기로 끝나지 않는 나사의 경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상이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의 형상(마 7:14)이며,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게 해주는 끝없이 불확실한 길(요일 3:2)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체험방식을 꼼꼼히 살펴본 것일까? 위기를 극복하는 8단계 학습과정을 안다는 것이 ‘장애인’ 혹은 ‘암 환자’라는 상황을 더 쉽게 감당하게 해주는가?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발견된 특징들은 모두에게 개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보다 더 적절하게, 다시 말해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요청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설명한 바처럼 위기를 맞은 사람이란 직접 고통을 당한 사람들과 이들의 보호자(이에 관해서는 제4장 <보호자의 문제>를 참조하라.)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일례로 우리가 위기를 맞은 사람 또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 또는 장애아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그들이 분출하는 공격성의 목표물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모두가 나를 포기해버렸어요!” 이 경우 위기극복을 위한 학습과정의 전 단계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성은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우연히 (감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나선형 3단계-공격성의 대상이 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이웃의 또는 우리 자신의 공격성을 해석할 수 있는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수기를 분석한 결과 총 9가지의 상이한 반응(자책감, 자살, 현실도피 등)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반응의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변화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다. 이를 교육적인 차원에 적용하면 위기에 개입하고 예방함으로써 ‘달라짐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신학적으로 적용하면 수용의 근본 체험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다.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위기 또는 십자가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예들에서 암이나 배우자의 사망 그리고 아이의 장애는 평생 동안 계속되는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처한 조건들과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우리는 서로 돌봐줌으로써 잘못되거나 부족한 인간관계로 인한 고립상태와 부수적인 사회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가능하다. 교회와 교회 종사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도 위기극복을 위한 인간적 돌봄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서는 위기극복 학습과정의 전체 현상을 설명하거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배운 바를 실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기로 하겠다.<sup>22)</sup> 그 대신 고통과 신앙의 관련성이라는 물음하에 이제까지 얻은 지식을 확장시켜보기로 한다.

수기의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에 이르러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위기극복을 위한 학습과정의 전 단계를 거쳐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펄 벅(Pearl S. Buck)의 지적장애,<sup>23)</sup>



나선형-마음여행의 상징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위기극복



시작단계 I	중간단계 II	최종단계 III
인식적·반응적이며	감정적이며	성찰적·활동적이며
외부로부터 통제되는 차원	통제되지 않는 차원	자발적인 차원

1900년부터



▷ 2034



© 에리카 슈하르트



크리스티 브라운(Christy Brown)의 지체장애,<sup>24)</sup> 헬렌 켈러(Helen Keller)의 감각장애,<sup>25)</sup> 클라라 파크(Clara Park)의 심리장애<sup>26)</sup>와 같은 수기의 장기적 사례연구가 제시되었다.

나아가 나선형 3단계 공격성이 카타르시스로서 핵심적 기능을 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공격 능력과 수용 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27)</sup> 이와 관련해서 나는 공격단계의 부재·부족·중단 또는 부인이 위기극복을 위한 학습과정의 중단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전기적 사례를 들어 증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단은 종종 케테 켈러(Käte Keller)의 경우(심리장애)처럼 평생에 걸친 우울증으로 남게 되거나<sup>28)</sup> 크리스타 슈레트(Christa Schlett)의 경우(지체장애)처럼 체념 상태<sup>29)</sup> 또는 마조리 셰이브(Majorie Shave)의 경우(지적장애)처럼 불수용 상태에 머물게 된다.<sup>30)</sup> 반대로 리처드 담브로시오(Richard D'Ambrosio)의 경우(심리장애)처럼 치료를 통해 공격성을 풀고 위기를 극복하여 사회통합에 이르기도 한다.<sup>31)</sup>

그런데 위기를 맞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신앙인으로서 고통과 위기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것은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이 맡는 역할에 대한 물음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은 위기극복과정에서 하나의 요인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조건적 요인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정식 괄호 앞에 놓인 부호이며 하나의 기본값이다. 그것은 생각과 의미뿐 아니라 위기극복과정까지도 변화시키는 구성요소이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기본명제가 세워질 수 있다.

- 공격성은 카타르시스로서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핵심 기능을 한다.

이 논제를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 기독교 신앙은 카타르시스로서 인식된 공격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비난과 탄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긍정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위 신앙인의 '순진하면서도 냉담한'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기독교 신앙은 위기를 맞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성을 자신의 고통과 위기로 향하게 할 힘을 갖게 해준다. 즉 먼저 공격성을 허용한 다음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도록, 긍정하면서 수용하도록(히 5:8 참조) 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적이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이에 관해서는 제5장 <고난과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참조하라.)

순진하면서도 냉담한 반응을 하는 신앙인은 학습과정의 첫 번째 형태에서 의문도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자신의 장애와 위기를 하나님이 내리신 '벌' 또는 '시험'이라 생각하며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고통의 당사자이건 아니건 간에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지우신 짐으로 견뎌내고 나아가 자신의

위기와 함께 살아나갈 힘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그는 순진하면서도 냉담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수기 저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 기독교 신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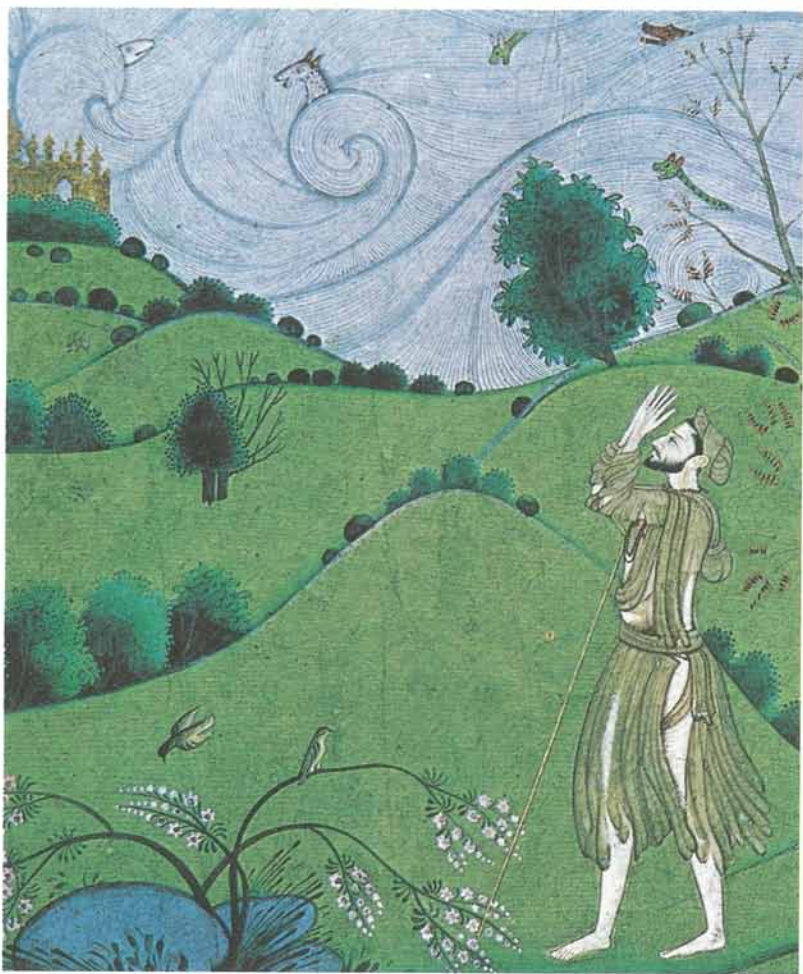
-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외로움에서 해방시키고 대화와 사회생활로 이끌어준다.
- 고통을 맞은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상대할 대상을 마련해준다.
- 대화와 기도의 상대자, 감당할 수 있는 청취자를 마련해준다.
- 처방전을 주지 않는 조인자,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를 마련해준다.
- 나 스스로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과 제안을 준다.
- 나를 자신으로부터 해방시켜 기도와 예배와 교회에서 '나'에게로 그리고 '너'에게로 향하게 한다.

• 기독교 신앙은 공격성을 보충하고 수용하게 한다.

다음에서는 수기 분석을 통해 삶의 문제와 질병 그리고 장애와 같은 모든 위기상황에서 기독교 신앙과 보호자의 존재가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인간·사회·세계·하나님 또는 다른 정신적 권위자와의 대화는 개인 및 집단의 성공적 위기관리에 있어 중심 요인임이 밝혀진다. 위기관리란 일방통행로가 아닌 '상호 보완적'

으로 서로에 대해 배워가는 양 방향 도로이다. 사회라는 환경에서 아직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위기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에게로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 그 대신 이들은 아주 빈번히 인식되거나 주목받지 못하고 또한 의식되지 못한 채 의지와 상관없이 어찌할 줄 모르며 배회한다. 20세기 말 이후로 교육 시스템(주사위의 상징)은 위기극복의 능력을 전수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위기관리의 보완적 모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 모델은 동전의 양면, 즉 개별적으로는 개인의 8단계 삶의 나선형 길과 집단적으로는 사회의 3단계 방향전환과정을 설명해준다.



**나선형 - 마음여행의 상징**

크리슈나의 황금도시를 향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다마  
자연풍경이 나선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 수기 저자와 수기에 대한 자료

## 도표 설명

- 수기 저자들의 생활권
- 지난 1세기 동안 발표된 위기극복 관련 수기 및 자서전의 출간연도, 발행부수, 주제
- 서술 시점 I-V와 위기사건의 수
- 위기극복 관련 수기에 나타난 주제 변화(1900년-현재)
-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위기극복
- 개인 및 집단적 위기관리의 보완적 모델

# 수기 저자들의 생활권



2001년 기준

(대한민국)	12
캐나다	2
미국	1
뉴이프리카공화국	40
노르웨이	8
노르웨이	3
대한민국	3
덴마크	6
1,172	1,172
러시아	3
튀르키예	6
오스트리아	1
282	282
벨기에	1
1	1
프랑스	1
3	3
사우디아라비아	1
스웨덴	8
111	111
스위스	1
3	3
스페인	3
1	1
1	1
2	2
2	2
4	4
107	107
중국	5
오스트레일리아	2
54	54
오스트리아	2
우크라이나	1
1	1
4	4
20	20
이탈리아	15
1	1
2	2
2	2
3	3
1	1
7	7
2	2
2	2
1	1
40	40
75	75
1	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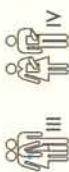
독일판 원본	1,334
독일어 번역본	700
총	2,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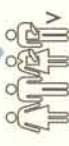
1800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1



뉴질랜드 2



오스트레일리아 5



대한민국 3



일본 2



미국 1



캐나다 2



# 지난 1세기 동안 발표된 위기극복 관련 수기 및 자서전의 출간연도, 발행부수, 주제

1900년부터 현재까지  
수기의 발행부수(누계)

1903	1	1954	44	1979	298
1906	2	1955	46	1980	344
1907	3	1956	49	1981	417
1908	5	1957	56	1982	464
1911	6	1958	58	1983	530
1914	7	1959	65	1984	584
1918	9	1960	70	1985	649
1921	10	1961	72	1986	728
1923	11	1962	74	1987	804
1930	12	1963	79	1988	882
1933	14	1964	84	1989	947
1936	15	1965	87	1990	1038
1939	16	1966	92	1991	1117
1940	17	1967	100	1992	1173
1942	18	1968	105	1993	1305
1943	19	1969	111	1994	1438
1944	20	1970	123	1995	1562
1946	26	1971	132	1996	1702
1947	28	1972	136	1997	1830
1948	29	1973	146	1998	1941
1949	34	1974	157	1999	2011
1950	36	1975	174	2000	2019
1951	38	1976	200	2001	2034
1952	40	1977	227	종합평가시	
1953	42	1978	251	2000-6000	

수기 발행부수 (연도별)

주제

- -2000년까지 주로 증대한 인생사건 관련 도서  
성학대와 커밍아웃 관련 도서  
(2,019권 중 940권)
- -1990년까지 증대한 인생사건 관련 도서 증가 추세  
홀로코스트  
(1,038권 중 386권)
- -1980년까지 장기질환 관련 도서 증가  
(344권 중 106권)
- -1970년까지 주로 장애 관련 도서  
(123권 중 77권)



1900년부터 1989년까지의 총 판매(1,117권)보다 1992년부터는 발행이 5배 정도만 6,000권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기에 신발적으로 볼때만 수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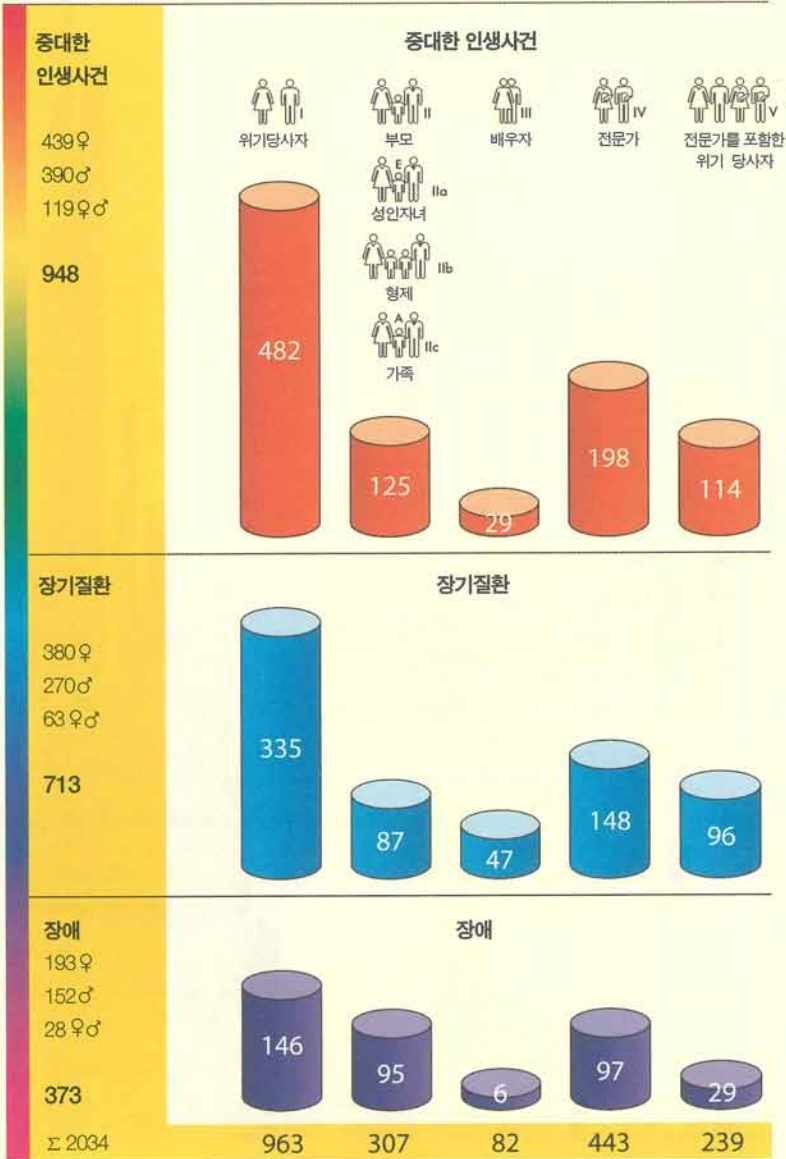
수기의 출간연도와 증가추세 (누계)

1900년부터



© 에리카 슈하르트

## 서술관점 I-V와 위기사건의 수



1900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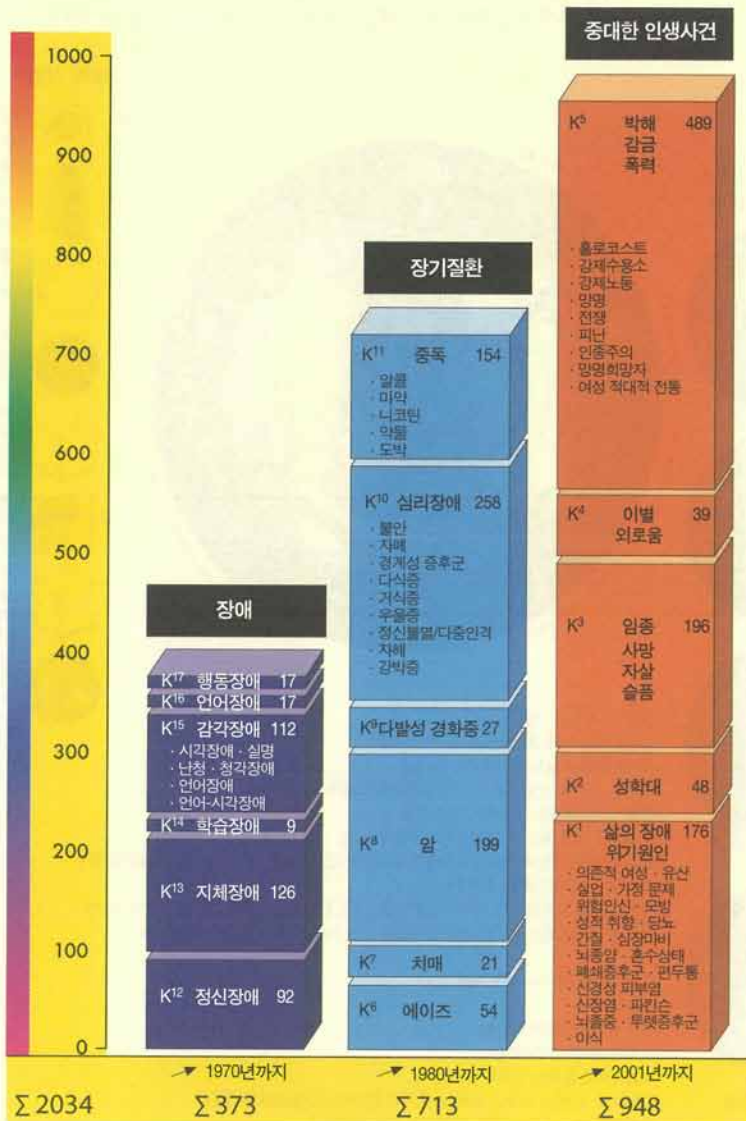
Σ 2034



© 에리카 슈하르트



## 위기극복 관련 수기에 나타난 주제 변화(1900년-현재)



1900년부터  
  
 2034



© 에리카 슈하르트



## 위기관리의 보완적 모델 개인적 차원-보완적 삶의 나선형 길

상승하는 화살표는 위기를 이미 경험한 자의 경우를 나타내며  
하강하는 화살표는 아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자의 경우를 나타냄.  
1900년부터 출간된 전 세계 2,000여 자서전과 전기의 분석 결과

이미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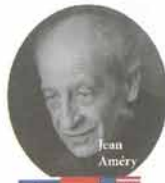
Stephen  
Hawking

스티븐 호킹



Randy  
Pausch

랜디 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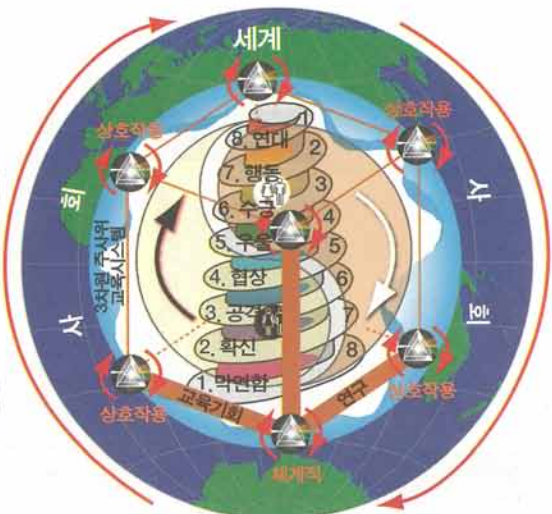
Jean  
Améry

장 아메리



Viktor E.  
Frankl

빅토르 프랑클



그래픽 심벌

- I. 프리즘 상호작용
- II. 삶의 나선형 길 보완적 상승 하강
- III. 공 사회 지역적 국가적
- IV. 지구 사회 국제적
- V. 주사위 교육시스템 학습자, 교육기회, 연구
- VI. 음양 3국면 전환과정 상승, 하강
- VII. 8개 프리즘을 포함한 주사위 상호작용 단절, 관점의 교차
- VIII. 보완적 모델 위기관리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제도화 가능한

개인(8단계 삶의 나선형 길 Ⅱ-)과  
사회(나선형 길을 포함하는 빈 공-Ⅲ-) 그리고  
세계(모두를 포함하는 지구-Ⅳ-) 사이의  
개인적·집단적 상호작용, 체계적 상호작용(프리즘과 기둥-Ⅰ-)은  
교육시스템(3차원의 주사위-Ⅴ-)을 통해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제도화할 수 있다.  
보완적 3국면 전환과정(음양의 상승과 하강으로 상징화되어-Ⅵ- 우측 페이지 참조)를 통한  
학습자(Ⅰ)와 교육기회(Ⅲ)와 연구(Ⅴ).  
결론: 개인과 사회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 단절, 관점의 교차(6 프리즘-Ⅰ-과 주사위-Ⅴ-  
우측 페이지 참조)는 위기를 현실의 새로운 구성 기제로 가공함을 가리킨다(Ⅷ-Ⅷ).

기회로서의 기회-숨겨진 자산  
보완적 테제  
이미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사회에 하나의 도전이다.  
보완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심벌(α), 아누스 머리(β), 중국의 음양(γ)의 보완성과 유사하게  
화해적인 연대·정의·평화·행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직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는  
위기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도전이다.

보완성기본상황  
• 우주적 존재: 낮-밤  
• 인간 존재: 청년기-노년;  
남자-여자; 삶-죽음



• 균형  
안정과 건강 속에 균형 잡힌 삶  
• 불균형  
불안과 질병 속에 부조화

주해 포함

- 알파벳 순서대로
- 분류된
- 도서목록



## 통합된 위기관리의 보완적 모델 집단적 및 개인적 차원 - 사회의 3국면 전환과정

상승하는 화살표는 위기를 이미 경험한 자의 경우를 나타내며  
하강하는 화살표는 아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자의 경우를 나타냄.  
1970년부터 진행된 약 50여 개의 시범 프로젝트와 영화 DVD의 분석 결과



이미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오에 겐자부로



크리스토퍼 리브



프리다 칼로



루트비히 반 베토벤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회의 학습경로는 보다  
규범지향적인  
제1국면 참여로 전환하는  
개인(-1, 흰색)의  
각오리는 형태로  
전화적·보완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제2국면 통합을 통해  
(확대된 관점을 통한 -2, 회색)  
보다 풍요로운 정체성과  
자기숙고 및 전환에 이른다.

새로운 제3국면(-3, 회색)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이들은 8단계 연대에서  
1단계 막연함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관점을 교차로부터  
규범과 가치에 있어 변화된 자들로서  
각 단계를 넘나들고 행동하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 이들은 변화된 자로서 통합을 거쳐 각 단계를 넘어서는 관건교차 속에 행동을 위한 제3국면 참여(-3), 8단계 연대
2. 이들은 개인(흰색)의 마음가짐을 통해 (-2- 회색, 확대된 관점을 통한) 2단계 통합으로 가는 만남과 상호적 배움에 이른다.
1. 위기를 경험한 학습자들(-1, 검은색)은 일단 사회로부터 (흰색) 배제되었다가 나선형 길 1단계 막연함에서 8단계 연대를 거쳐 제1국면 안정을 획득한다.

- 시작
- 1.
  - 2.
  - 3.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학습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들은 자신의 위기를 아직 기회 - 즉 숨겨진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주해 포함  
· 알파벳 순서대로  
· 분류된  
· 도서목록



## 펠 벅의 위기극복 『자라지 않는 아이』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설명한 위기극복의 단계들을 지적장애아의 어머니였던 펠 벅의 자서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The child who never grew*, New York, 1950 참조. 독일어로는 『사랑스러운 불행한 아이』(*Geliebtes, unglückliches kind*, Vienna/Heidelberg, 1952)라는 모호한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노벨상 수상자인 펠 벅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머니들처럼 위기를 겪었다. 펠 벅이 위기를 극복한 과정은 2,000개가 넘는 다른 수기의 본보기감이다. 그녀는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10년 이상 배움의 과정이 지속되었다고 기록한다. 이 점에서 그녀는 위기극복과정에 대해 보고하는 대다수 여성들을 대표한다. 펠 벅은 지식인으로서 위기극복이 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잘 설명한다. 위기극복은 생각을 변화시킬 마음가짐과 능력의 문제이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과 행동방식을 변화시킬 마음가짐과 능력의 문제인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이러한 근심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기는 쉽지 않다. 이 과정을 배운 오늘 나는 그동안 올라온 계단들을 돌아본다.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다.(pp. 41-42)

어쩔 수 없는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흥미롭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꺾어야 할 과정으로서 조금은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 관해 얘기하려고 한다.(pp. 45-46)

다시 말하자면 나는 그 과정을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다.  
(p. 96)

필 벅은 탁월한 화술과 끝없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삶을 묘사한다. 이로써 필 벅은 그녀 자신도 힘겨운 과정을 배워나가야 했음을, ‘피할 수 없는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음을 고백한다.

필 벅은 이미 1952년, 10년에 걸친 그녀의 ‘교육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는 파괴를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 변화’를 경험하고 운명을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여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 ‘부여된 것’으로 인식하는 시기이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대단히 파괴적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나는

어떤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인간관계이건 그 무엇이건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렇게 슬픔을 풀어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펄 벅이 수용단계(6)로 마음을 돌린 과정을 분석한 글에서 잘 드러난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 그때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인간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근심을 알게 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일은 겪지 않은 사람이다.(p. 47)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 것은 놀랍고도 슬픈 일이었다. …그건 위로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가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때인 것 같다.(pp. 48-49)

따라서 펄 벅에게 ‘교육과정의 단계’는 중간단계와 함께 시작한다. 하지만 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펄 벅 역시 이 책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2,000여 수기 저자들의 대다수처럼 막연함(1)에서 확신(2)으로 넘어가는 초기단계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데 3년 이상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펄 벅은 당황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가장 늦게 깨달은 것 같다. … 뭘



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아이는 세 살이었다.(p. 20)

이어서 펄 벅은 주변의 적절치 못한 태도와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음으로 인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한다. 그리하여 펄 벅은 무지(1.1)에서 불안(1.2)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친구들에게 계속적인 질문을 했다고 말한다.

나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아이들은 어떤지 물으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새로운 걱정에 대해 얘기를 했다. 친구들의 대답은 상당히 위로가 되었다.(p. 21)

펄 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얼버무리는 전형적인 행동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녀는 부적절한 말에 담겨 있는 기만적인 위로를 감지한다.

친구들은 모두 선의에서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빈말을 했다. 나중에 비극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정말로 모르고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그런 사실을 짐작하거나 추측하고 있었다고 대답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게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p. 21)

힘든 일은 축소시켜 말하는 이러한 관습 때문에 펄 벅은 아이가 네 살이 될 때까지 불수용 상태(1.3)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우리 아이의 정신발달이 멈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는 거의 네 살이 되어 있었다. ...나는 끝까지 저항을 하고 믿지 않으려 했다.(p. 22)

어쨌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 언젠가 나는 입학 전 아동에 관한 어느 미국 여의사의 초청강연에 찾아갔다. 거기서 나는 정말로 우리 아이가 어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p. 23)

그제야 비로소 펠 벅은 의사들과 상담하고, 강연을 듣고, 진단을 얻기 위해 전문의를 집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기서도 항상 똑같이 애매한 진단 결과를 들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 전문의에게 물어보셔야겠습니다.(p. 24)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2)과 함께 펠 벅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희망을 사기 위한 ‘의사·세상·지식의 백화점’에서 협상(4)의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 뒤 장애아 부모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기나긴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분명 누군가 치료를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의지해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녔다.(pp. 26-27)

펠 벅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 여행이 끝나게 된 순간

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여행이 끝난 곳은 미네소타 주의 로체스터에서였다. 우리는 결국 메이오 병원으로 보내졌다.(p. 31)

그리고 평생 감사해야 할 그 순간이 왔다. …내가 복도를 지날 때 빈 방에서 나온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는 살며시 다가와 자기를 따라 그 방에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메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면서 약간 거친 음성과 서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던가요?” 이어서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절대 정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족들을 거지로 만들 겁니다. 아이는 건강해지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저는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pp. 34-35)

이렇게 ‘잔인하게 전달된 진실’에 대한 (그리는 동안 아이는 다섯 살이 되었고 주변 사람이 ‘늦추려 한 진실의 발견’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끝없는 절망감의 징후로서 공격성(3)이 아이의 죽음을 바라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죽음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니까. 존재하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얼마나 자주 내 가슴속에서 “차라리 우리 아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절규가 새어나왔던가. 이러한 상황

을 모르는 당신들에게는 이런 말이 경악스러울지 모르지만 나와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의 죽음을 반겼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 아이는 영원히 안전할 테니까.(p. 42)

뒤이어 솔직한 고백이 이어진다.

나처럼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마음속 저항이 수년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고백해야겠다. ...가슴이 무너지면 이성과 의무 감도 통제되지 못한다.(p. 45)

필 벅은 우울증(5)을 그녀가 경험한 '교육과정'의 첫 단계로 기억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필 벅 자신이 두 종류(예견적 우울과 수용적 우울)의 우울에 대해 설명한다는 점이다. 예견적 우울은 아이의 불안한 미래, 즉 앞으로 포기해야 할 아이의 운명에 대한 슬픔이며, 수용적 우울은 이미 포기한 멋진 삶에 대한 애도, 고립 속으로 후퇴함에 대한 애도이다.

...나는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있었고 두 문제 다 감당하기 힘들 것처럼 보였다. 첫 번째 문제는 아이의 미래에 관한 문제였다. ...두 번째는 불행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내 자신의 문제였다. 인생의 모든 빛은 사라졌고, 부모로서의 자신감도 사라졌고, 내 삶이 아이의 삶 속에 고립되었다는 느낌도 들었다. 세대의 흐름이 정지된 것이었다.(p. 42)

필 벽에게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수용(6)으로의 ‘마음의 변화’는 앞에서 이미 최종단계의 시작으로써 배움의 두 번째 단계로 소개된 바 있다. 그녀가 나선형 모델의 각 단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이 경험했는가는 다음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걸음은 사실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걸음은 실제로 여러 번 행해져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높으로 빠져들었다. …절망이 높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웃집의 건강한 딸아이를 보는 일은…….

이어서 수용단계(6)와 유사한 언급이 나온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아직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다시 기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책이…그 다음에 꽃이…그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항상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놀라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위기로 인해 변한 것은 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p. 50)

필 벽에게서 “이것을 할까?”라는 행동단계(7)는 한편으로 딸이 머물 시설을 찾는 형태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필 벽은 장애아 부모를 위한 집중적인 강연과 계몽작업을 준비하고 동시에 연구기관의 설립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힘썼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내 근심을 치유해주지는 못했지만 근심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었다.

마침내 우리는 펠 벅이 자서전을 쓰고 이를 출간한 데서 특히 그녀의 연대(8)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행동한다!” 펠 벅의 자서전은 무엇보다 진실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 진실성을 통해 독자와 교감한다.

어디에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진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p. 14)

이렇듯 펠 벅은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난다. 그것은 죽음을 바라던 소망에서 수용을 거쳐 공동 행동에 이르는 끝없는 배움의 길이다. 펠 벅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고, 감내하는 고통 속에 자기의 선물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통은 독특한 비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기쁨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지만 내면적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혜로 변화될 수 있다.(p. 8)

펠 벅은 이렇게 위기를 배움의 기회로 경험했다. 생존이 아닌 그 이상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여기서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작용 모델이 열린 배움의 과정으로서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총 2,000여 개 이상의 수기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생활장애, 질병, 장애와 같은 상이한 위기를 다루고 있는 수기들은 동일한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이 이혼, 박해, 사망과 같이 인생의 위협한 사건과 에이즈, 암, 심리장애와 같은 장애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움의 과정은 상황에 따라 진단 가능하며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조절될 수 있다.

2.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공격성은 카타르시스로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학습과정에서 공격단계가 부재할 경우 불수용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학습과정에서 공격단계를 거치는 경우 수용과 사회통합으로의 경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으로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증재를 통해 부재하는 공격성이 분출되어야만 한다.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필자의 사례연구를 참조하라. Schuchardt, Erika: *Biographische Erfahrung und wissenschaftliche Theorie*. Bd. 1., und: Dies., *Weiterbildung als Krisenverarbeitung*. Bd. 2., 5., durchgesehene erweiterte Auflage,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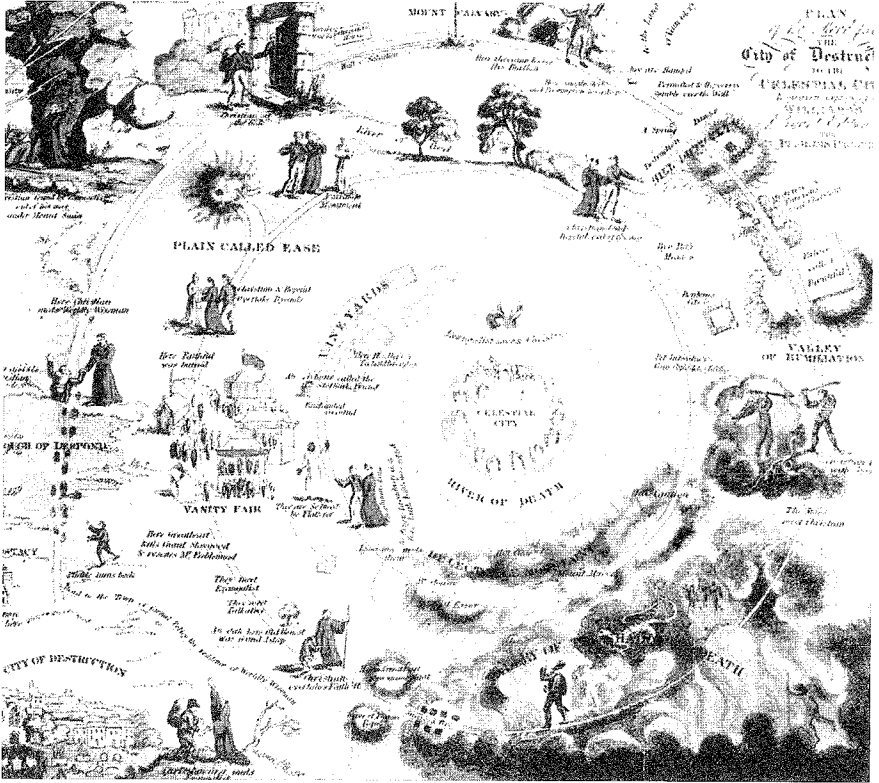
3. 가치를 결정하는 종교적 신앙은 공격성을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이는 신앙은 수동적 입장으로서는 위기에 대한 ‘냉담한 대답’이 될 수 있고 또는 비판적 반응으로서 위기에 대한 ‘호의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둘 모두에게 사회통합의 경향을 지닌 적절한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4. 보호자는 위기극복을 위한 학습과정의 전제조건이다.

이는 위기 시 보호자가 없거나 적절치 못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기극복이 포기되거나 중단 또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반대로 적절한 보호는 예방하고 중재하면서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르게 한다.





나선형 - 마음여행의 상징  
 천국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나선형 순례의 길  
 존 번연(John Bunyan), 영국, 19세기





Chapter 3

# 수기를 통해 본 보호자와 신앙



루이제 하벨

## 『주여, 저 계단을 없애주소서!』

루이제 하벨(Luise Habel)<sup>32)</sup>은 생후 15개월 때 소아마비(척수성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장애인이 되어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치 치하에서 기독교청년회 회원이자 정치적 이유로 실직한 아버지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집 마당에서 채소를 키워 생활을 꾸려나가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루이제의 부모는 그녀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사주었고 인문고등학교에도 진학시켰다. 또한 루이제에게 직업자격시험을 보게 했으며 두 명의 고아까지 입양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은 결국 자살로 끝이 났다.

가족의 사회적 상황은 루이제에게 인생이 걸린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분노와 고통에 가득 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다.(p. 64)

그것은 내 평생에 걸친 질문이 되어버렸다.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에게 이러한 질문은 커다란 시련이 될 수 있다. 나는 자신이 원한다 해도 도울 수 없는 무력한 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p. 64)

그녀의 분노와 고통과 공격성(3)은 ‘무능력한 지상의 심부름꾼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듯해 보이는 무력한 신에게로 향한다. 그리하여 신은 그녀의 주요 관심이 되었다. 고통스럽게 슬퍼하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신앙인들은 그녀를 피고석에 앉히고, 신의 전능한 대리인들은 그녀에게 경외심을 가르쳤다.

내가 이런 이단적인 생각을 말하면 항상 어느 신자가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도 잘 아는 신의 대리인을 경외하게 되었다.(p. 65)

홀로 내버려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설명해준 신과는 완전히 다른 신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낸 신에게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전능함에 대한 말’보다는 신약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내게 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신하로 둔 승리의 신이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버림받았다고 울부짖는 고통 받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p. 65)

그 결과 공격성(3)은 먼저 교회 및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성경도 읽지 않았으며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아무것도 간청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의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무너질까 두려웠다. 나는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힘에 부치는 나의 힘겨운 삶을 받아들여 이를 극복하든지 아니면 실패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그것은 나 자신에 기인한, 나의 능력과 가능성에 기인한 실패가 될 것이고, 이는 미지의 신에게 내맡겨진 것보다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p. 65)

그러나 이성적 거부와 감정적 추구는 서로 관련되게 마련이다. 공격성(3)의 징후로서 루이제의 통렬한 비판은 수용단계(6)의 '비판적이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촉구한다. 그녀가 이러한 싸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주여, 저 계단을 없애주소서』라는 격정적인 제목의 책에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책에 기록된 어머니의 자살, 교회의 봉사요원이 되고 싶은 소망, 목사님과의 서신교환이라는 세 가지 경

힘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어머니의 자살은 루이제의 어머니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위기를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루이제가 분노와 슬픔을 외부와 신을 향한 공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반면, 그녀의 어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 평생 한번도 얘기를 나누지 않고 그저 말없이 그 모든 것을 가슴속에 눌러 담았다. 날마다 생존싸움을 하고, 장애아 딸을 위해 있는 돈을 모두 저축했지만 그동안 모은 돈은 화폐개혁으로 인해 하룻밤 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완전히 실의에 잠겨버렸다.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루이제의 어머니는 무기력한 우울증(5)에 빠져들었다. 더욱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그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혼자 내버려졌다.'(p. 21)

공격성(3)이 카타르시스로서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공격성(3)을 보이지 않은 그녀의 어머니는 아마도 위기를 불수용하게 되고, 이로써 우울증단계(5)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루이제의 어머니는 정확히 이 경우에 해당했고, 그것이 주변에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분명했다. 평생 침묵했던 어머니는 새롭게 다가오는 재앙(화폐개혁, 의미상실)에도 공격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그동안 단단히 봉쳐진 공격성(3)을 자기 자신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첫 번째 자살시도를 했다. 자살의 실패는 딸에 대한 걱정을 '한없이' 확장시켰다. 어머니는 딸에게 계속해서 '함께 죽자'고 말했다. 루이제는 '강인한 의지로 죽음



의 유혹에 저항했던' 기억을 적고 있다. 결국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의향을 잇은 채 나중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버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잠든 딸을 도끼로 죽이려고까지 했다.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가 실패하자 사랑이 결국 증오심으로 변한 것이다. 평생 동안 참아온 공격성(3)이 병이 되어 너무 뒤늦게 통제되지 않은 채 분출된 것이다. 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내가 없었다면 내게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야.’ 난 그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엄마에게 부탁하고, 애원하고, 소리 질렀다. “제발 좀 그만해!”(p. 57)

그러나 루이제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했다.

엄마가 사는 동안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엄마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포기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외로웠고 그것은 아마도 엄마에게 장애아 자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p. 57)

하지만 너무 뒤늦게 풀려난 공격성(3)은 이와 같은 심리적 질병의 단계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수용단계(6)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 루이제의 고통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엄마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엄마가 살아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방문했거나 엄마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더라면... 그랬다면 엄마가 삶을 좀 더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pp. 60-61)

루이제는 또다시 목회자의 무능함을 경험했다.

목사님은 장례식 날 전에 우리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가 고인을 위한 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주었다.(p. 61)

어머니의 죽음이 심리적 질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자살'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결국 어머니는 축도를 받게 된다. 루이제는 목사님이 장례의 설교 말씀으로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때 들었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우연'인지 자문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p. 62)

이때 루이제는 처음으로 이 성경 구절의 다음 구절을 알게 되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p. 62)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감동으로 다가왔다.

엄마가 아무도 곁에 없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 절망해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버림받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렇다. 두려워 말라.”고 말해주는 이가 있었다. 여기서 나는 갑자기 죽음보다 더 강인했던 현실로 인도되었다.(p. 62)

하지만 루이제에게 장례식의 설교 말씀은 반대로 느껴졌다.

묘지에서 하신 목사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 나는 온몸이 굳은 듯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p. 62)

루이제의 글은 그녀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녀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어느 기독교 단체의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깨닫게 되었다.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성도님께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지 오래되었으니까요.(pp. 63-64)

특이하게도 루이제는 목사님에게 처음엔 대화로, 그 다음엔 편지로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 했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직장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 집안일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루이제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나는 약 50명이 매주 모이는 성경공부 모임 얘기를 하면서 이 여신도들이 각각 한 번씩만 성경공부 대신 우리 집으로 와주면 내가 일 년 내내 청소를 도와줄 사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 순진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거기엔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보내주시길 기도드리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p. 64)

그녀의 공격성(3)은 다시금 교회 기관으로 향한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그 목사님도 나를 다시 심방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당시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 평생에 걸친 질문이 되어버렸다.(p. 64)

루이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나 교회의 봉사요원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꿈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기독교 신자인 부모의 딸이자 수년간 개신교 청년회 회원으로서 전쟁이 끝난 뒤 지방청소년담당 목사에게 지원서를 낸 적이 있다. 감동을 받은 그 목사는 ‘장애’에 대한 그녀의 이의제기를 미소로 넘기며 성서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사무직에서 교회로 직업을 바꾸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직업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 간의 균열에 대해 지적한다.

직업적으로 통합된다 할지라도 사회적 통합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p. 34)

차츰 나는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 동료들은 장애가 아닌 능력에 따라 나를 판단하는 것을 배웠고 나 자신도 그것을 배웠다. 물론 근무시간에만 그렇긴 했지만. 휴식시간에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나는 취미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혼자라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p. 45)

루이제는 개신교 청년회 회원으로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던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개신교 청년회 회원>이라는 장 전체를 할애한다.

나는 지금도 내가 이 단체의 진정한 일원이라고 느낀다. 위험하긴 했지만 눈이 내리고 바닥이 얼어붙은 겨울에도 나는 어디든 함께 다녔다.(p. 36)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기차를 타고 가던 개신교 청년단체의 한 직원에게 몇 달 전에 시작한 성서학교 수업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방청소년담당 목사에게 문의를 했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교회에 대한 경험만 더해갈 뿐이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장애가 너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을 원하신다면 목사님도 문 하나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p. 47)

루이제는 또다시 공격성(3)에 빠지고 믿음과 교회는 여전히 충돌을 일으켰다.

나는 분노에 가득 차 생각했다. ‘주님의 사람들이 문을 모두 닫아버리고 있어. 그래야 주님께서 그 문을 다시 열기 위해 보게 될 테니까.’ 나는 너무 냉정했고 어쩌면 진정한 기회를 기대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동료들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도 별다르게 반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내 질문이 계속적으로 거부를 당한 것도 놀랍지 않았다. 교회 단체라고 해서 일반 직장과 다를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p. 47)

이러한 경험은 계속 늘어났고 루이제는 인생이 걸린 물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녀의 이성엔 계속해서 무력한 신에 대한 거부감과 싸웠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었다.

한 목회자와의 서신 교환은 신앙과 교회가 충돌하는 가운데 루이제의 공격적인 싸움(3)이 비판적이면서도 호의적인 반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목회자의 보살핌을 통해 수용(6)으로 바뀌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녀와 서신 교환을 한 목사님은 앞서 언급한 다른 목사님들과는 달랐다. 그는 미리 정해진 똑같은 대답으로 질문에 답변하거나 특별한 제안을 하지 않고, 고통에 처한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주었던 것이다.

그 목사님은 미리 준비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았다. 목사님은 내 질문을 들어주었고 내게 불가능한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았다.(p. 66)

루이제는 이 목사님에게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가르침의 객관적인 설교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설교자라는 인격체를 통해 전달되는 주관적인 말씀의 차이를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객관적으로는 옳지만 한 번 입 밖에 냈을 때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 그 목사님은 원칙이 없는 분 같아 보였다. 원칙이 없는 목사님? 그분을 나는 꼭 알고 싶었다.(p. 66)

루이제는 나중에 이러한 배움의 경험을 ‘단 한 번도 탄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릇된 위안자와 비교한다.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내게 편지를 썼다. “주님이 당신에게 그런 큰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때 나는 너무 화가 나 ‘나는 차라리 사랑을 조금 덜 받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답장을 썼다.

이제 나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을 안다. 신학적으로는 올바르지 모르나 현실에서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들 말이다. 고통 속에서 의무를 다하길 기대하는 신과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결정된 역할을 하는 나만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야만 나를 사랑하는 신이라면 말이다.(p. 204)

루이제와 서신 교환을 한 목사님이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그녀를 얼마나 사려 깊게 격려해주었는지는 다음에서 드러난다.

한 번은 목사님이 사는 곳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다. 나는 정형외과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진단결과가 너무 비참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시 듣자 견디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마친 뒤 목사님께 찾아갔다. 나는 걸으로는 짐작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의 병력을 얘기하듯 내게 내려진 진단결과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이 만약 나에게 주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라고 말하면 가만 있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다.(p. 67)

루이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공격성(3)을 참아주고, 조건 없이 허용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경험했다. 그녀를 책임지고 그녀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다.

목사님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견디기 힘들어졌을 때 나는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이 침묵은 루이제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그에 대한 대답을 찾던 중 다음과 같은 글을 받았다.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성도님께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p. 68)

설교의 상호성에 대해 얘기하며 어둠에 자리를 내어주는 잉그리트와 슈테판 베버-가스트 부부의 경험과 유사하게 루이제는 어둠의 밖으로 인도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한 분의 목사님이 그녀를 찾아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부축하고 함께 어둠을 견뎌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은 혼자서 견뎌낼 수 없어. 저 분이 나와 함께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 해. 둘이 함께할 때 어둠은 더 이상 힘겨운 고독이 아니야. 나는 어둠을 견딜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할 수 있어!'라고 느꼈다.

대답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은 내게 새로운 사실이었다. 목사님은 나 때문에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말씀하셨더라면 목사님의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 때문에 말이다. 내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었다.(p. 68)

루이제는 목사님이 그녀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시련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목사님은 내게 많은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내가 다시 신에 대해 알고 싶

어진 것은 목사님 덕분이다. 그분은 내가 의심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신앙을 재촉하지도 않았다. 언젠가 목사님은 내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성도님이 주님과 씨름하는 한 성도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p. 69)

루이제는 자신의 신앙이 공격성(3)을 허용하고 견뎌낸 과정을 설명한다. 그녀에겐 하나의 대상,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저버리고, 단념했지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또한 (그녀의 어머니와 달리) 체념에 빠져 힘겨운 배움의 과정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다. 기독교 신앙은 수용(6)의 전제로서 공격성(3)을 분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루이제는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으며, 어둠 속에서 함께 견뎌준 목사님의 보살핌을 통해 자신이 비판적이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용(6)하게 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예수님은 초인이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쳤다. 예수님은 항상 용감해야 한다는 강요된 역할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울고, 묻고, 탄식해도 되는 것이다.(p. 205)

루이제는 계속 지진계처럼 반응했다. 그녀는 어떤 말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뢰감을 상실하며 고립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망각하고 말을 앞세우는 목사들을 혐오한다.

나는 특히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립이나 절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두렵다. 적절하지 못할 때 들려준 성경 말씀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그런 말씀은 비참한 상황을 더욱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빈말’에 저항하기 시작했다.(p. 206)

그리하여 루이제는 이제 자신의 삶의 과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온갖 걱정거리를 쌓아놓은 쓰레기더미와 같은 존재였다. 사람들이 짐을 버려도 되는 장소 말이다. ...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하려고 노력한다. ...근본적으로 나는 “저 사람은 내 얘기에 귀 기울이고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내 위가 아닌 옆에서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p. 205)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고, 탄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내가 맡은 역할이 아닌, 나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고통을 견뎌내기가 좀 더 수월할 것이며 하나님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삶도 더 인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겠지만 그로 인해 솔직해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p. 207)



잉그리트 베버-가스트

『당신은 나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으므로』

잉그리트와 슈테판 베버-가스트(Ingrid und Stephan Weber-Gast) 부부<sup>33)</sup>는 목회심리학을 전공한 신학자이자 신경정신전문병원의 담당 목사로서 우울증의 병력에 대해 보고한다. 이들은 날마다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유사한 병의 징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심리적 질병이 나타났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부는 결국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외동딸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에 이르렀다.

잉그리트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쓴 일기는 아주 생생하고, 절박하고, 직접적이어서 객관적인 보고라기보다는 독자에게 쓴 편지처럼 느껴진다. 독자들은 『당신은 나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으므로』라는 책의 제목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게 된다.

겉보기에 이 책은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들의 권유에

따라 기록한 병력 관련 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독자는 두 저자가 묻는 중심 질문을 접하게 된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울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제3장 참조), “(우리의) 우울증 경험을 어떻게 (우리의) 설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

프란츠-요제프 트로스트는 「도이체스 알게마이네스 존탁스블라트」<sup>34)</sup>라는 일요신문에서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서평한다.

놀라운 것은 ‘가장 힘든 시기’에 신앙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입장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이 견해는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말씀으로 위로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이 서평의 제목은 “혼자 있기를 배운 뒤”이다. 그러나 이 책의 표지에 실린 롤프 체르파스의 글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젊은 부부가 겪은 고통의 증언인 이 책은 이 부부의 신앙을 감동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다.

베버-가스트 부부 스스로도 자신들이 삼중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다. 첫째, 심리적 질병을 앓는 환자이자 배우자 치료사로서, 둘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셋째, 설교를 하는 신학자로서이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겪은 질병의 발병을 ‘자신들의 삶을 관통한 창조의 틈’이라고 보았다. 잉그리트는 〈우울증에 있어서 신앙의 역할〉이라는 제3장의 서두를 부정적인 톤으로 담담하게 시작한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신앙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 이성과 의지는 신앙의 힘을 긍정하려 했지만 마음은 신앙과 만나지 못했다. 신앙은 위안이 되지 못했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주지 못했으며, 어쩔 줄 모를 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신앙이 나를 지탱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마저도 지탱해야 했던 것이다.(pp. 32-33)

제3장은 신에 대한 비난(3)으로 마무리된다.

아직도 내 기도는 종종 이렇다. 기도는 신앙심과 똑같이 빛을 잃어버렸다. 나는 성실과 인내심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일정한 내적 거리를 극복해야만 한다. 아마도 나는 주께서 한 약속과 달리 나를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빨리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p. 38)

그녀의 싸움은 “나는...노력한다. 하지만...”이라는 문장에서 분명해진다. 상담전문가는 이 문장 중 ‘하지만’이라는 단어에 잠재해 있는 공격적인 ‘부정’을 읽어낸다. 잉그리트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주께서…나를 내버려두었다는 것을…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공격성의 흔적을 제6장 〈우울증을 경험한 자의 설교〉까지 따라가보기로 하자. 잉그리트는 이 문제를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용기를 주소서”라는 제목의 송년예배의 설교에서 다루었다. 그녀는 하시딤 일화를 빌려 수스야 랍비에 대해 이야기한다. 수스야 랍비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모세가 아니었습니까?”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아마 내게도 “당신은 왜 수스야가 아니었습니까?”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p. 373)

잉그리트는 직접 경험한 우울증을 설교 말씀을 통해 전한다.

나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야 하는 각기 다른 크기의 그릇을 주었다고 확신한다. 재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그릇, 겁이 많은 사람을 위한 그릇, 슬픈 사람을 위한 그릇, 병자를 위한 그릇. 사람들은 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왜 그렇게 자주 슬퍼했습니까?”라고 묻지 않고 “슬픔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슬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괴로운지 좀 아시겠습니까?”, “슬픔으로 인해 인내심이 더 많아지고, 더 세심해지고, 더 조심스럽게 판단하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내게 “왜 그렇게 자주 아프셨나요?”라고 묻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질병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을 통해 생겨난 자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당신은 항상 일하거나 생활비를 벌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무얼 하면서 보냈습니까?”, “‘만약… 했다면!’ ‘그럴 리 없다.’라며 쓸데없이 한탄하는데 썼나요? 아니면 아주 겸손히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데 썼나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나는 모든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pp. 74-75)

이 말씀의 주제뿐 아니라 설교자도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그녀는 스스로 감동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얘기를 잘 알고 있었다.<sup>35)</sup> 이러한 감동은 제5장 <도움을 주는 글>에서 언급된다.

비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랬다. 주님은 다가갈 수 없는 곳에 계셨지만 나는 항상 시편의 구절을 암송했다. 아마도 나는 버팀목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의지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는 말씀을 암송했다.(p. 57)

나는 항상 아주 열심히 이 문장을 읽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은 내게 진정한 치유로 나아가는 걸음처럼 보였다.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은 다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어두운 혼란 속에서 지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 저편에 이르는 것은 질병의 고통을 진 자에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피로웠던 과거라 할지라도 그 과거와 살아가는 것을 배우



고, 가식적 허위와 진실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은 내가 절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심연을 바라봄을 의미한다. 그동안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다가갔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의 길이 진정 그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막연히 예감한다. 보다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방향에서 치유의 길을 찾은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것과 그 방향을 잃지 않는 한 더 쉽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다.(p. 59)

그녀가 비탄의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편의 말씀은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 같았다. 이따금 나는 시편의 말씀을 예배시간에도 낭송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36)

제6장 <우울증을 경험한 자의 설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누가복음 9:18-25의 말씀에 대한 풀이로 끝을 맺는다. 그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내 생각엔...사람들은 체념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며 “그래,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한다. ...반면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헛된 생각으로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고, 모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말고 ‘조금’ 노력을 기울이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받는 것은 그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

리스도를 본받음은 슬픔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도와줄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은 금방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삶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완성될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일의 기도처럼 날마다 붙들고 싸워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실로 그것은 거의 매일의 기도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주여, 나의 가장 최고의 기도는 내가 매일 지는 십자가입니다. 아멘.”(pp. 100-102)

뒤이어 ‘자신의 고통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간략한 성찰이 이어진다.

하나의 가능성은…아마도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가운데서 고통을 보이고 싶어하고 또한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흘러지 않은, 감춰진 눈물 속에 익사하기 때문이다.(p. 101)

잉그리트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인 무지개와 비슷하게 위기극복을 경험했다. 하나님께 이르는 그녀의 다리는 신앙의 첫 경험에서부터 하나님을 비난하는 공격성(3)을 통과한다. “나는 주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은 나를 내버려두셨어요.”라는 원망에서 “주여, 나의 가장 최고의 기도는 내가 매일 지는 십자가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보여 주라고’ 격려하는 것이다.

우울단계(5)에서 신앙이 갖는 중심적 역할에 대해 이보다 더 인상적인 설명은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주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신앙은 공격성(3)을 대체할 수 있다! 잉그리트는 자신의 공격성을 무분별하게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 또는 운명이나 자기 자신에게 풀어버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에 힘입어 공격성을 하나님 앞에 풀어버릴 수 있었다. 그녀는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혼자 내버려둔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한다. 우울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도 그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주 놀랍게도 과감하게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상하게도 내겐 죄를 짓는다는 두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적어도 내게 그런 문제는 없었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사실, 또는 나의 불만이나 절망이 하나의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산더미 같은 짐을 끄는 짐승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짐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야 하지 않을까?(p. 37)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앙심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신앙이 나를 지탱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까지도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내게 도움이 된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이 병자인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위안이 되었다.(p. 33)

우울증이 최악에 달하던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설교를 했다. 그건 가능한 일이었다. …설교가 끝난 뒤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나의 설교가 인간의 마음에 가 닿았음을 알 수 있었다.(p. 35)

잉그리트는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

누구에게나 살면서 한 번은 모든 감동과 확신이 무너져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생각까지 든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문턱에 서서 기다려야만 한다.(p. 84)

독자들이 설교 말씀에서 그녀의 깨달음을 읽어내듯이, 잉그리트는 기독교 신앙이 카타르시스로서의 공격성(3)에서 수용(6)으로, 소위 비판적이면서도 호의적인 대답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와 관련해 그녀의 남편이자 심리치료사인 슈테판은 자살의 유혹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아내와 같은 우울증(5)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역할에 대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아내의 우울증에 내맡겨졌다. …우리는 당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아내를 아직 자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도 해봤다. …나 자신도 ‘우리 둘이 함께 그 방법으로 달아날 수도 없고, 달아나서도 안 되니 안타깝다.’라는 느낌으로 그 시간을 보

냈다. ... 이를 인정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이 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신앙은 내게 직접적인 위안을 주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내 곁에서 끔찍하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의 기도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되었다. 기도가 오래 될수록 탄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 갔다. 특히 격렬한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날 아침 몇 번은 아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게 우연이었는지 모르겠다. (p. 30)

그는 복수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으면서 탄식을 들어주신 하나님과 ‘싸우고, 원망해도 되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신앙의 도움을 보았다.

그리하여 신앙은 내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 나의 신앙과 예부터 내려온 유대적-기독교적 전통의 수많은 선례는, 주님은 우리가 싸움에 해도 되고 복수로 위협하지 않으며 탄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슴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마도 음울한 운명이 침묵의 체념만을 불러일으킬 때 활력을 줄지도 모른다. (p. 31)

이렇게 슈테판은 직접 위기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기독교 신앙이 공격성(3)을 풀어주고, 허용하고 또 표현하여 수용단계(6)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우리의 논제를 입증해준다. 그 역시 이를 위해 비판적이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선택했다.

베버-가스트 부부는 고통을 미화하려 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마침내 다른 신학자들처럼 고통이 삶의 강도를 확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창조의 틈이 내 삶을 관통하기 때문’에 설교는 ‘상호적’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설교 말씀은 우울증에 걸린 청중을 고려하여 이 질병의 어둠 속까지 닿는 말씀을 더 들려주어야 한다.(p. 34)
- 목사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력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어려운 삶에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p. 34)
- 비탄의 시편을 알리고, 위급 시 도움이 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배시간에 소개해야 한다.(p. 36)
- 주변에서 의심하는 자들을 교회의 중심으로 다시 이끌어야 한다. 이들이 교회에 활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p. 83)
-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 더 많은 솔직함을 보여야 한다. ...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글을 쓰고...반쪽 진실이 담긴 위안을 중단하고... 마음을 살인자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고통과 공허뿐인 곳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p. 85)

잉그리트가 하나님이 우울증 환자에게 ‘보호자’가 될 수 없으며 ‘결에 있는 사람’만이 우울증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를 얻기 때문이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그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설

교 때 어둠의 한가운데서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했다. 그녀에게 곁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신호이며,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병을 앓는 사람은 투병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동반자로 삼을 수 있지만 우울증 환자에게는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가로막혀 있다. ... 우울증 환자에게는 하나님조차도 보호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한순간도 혼자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곁에 있는 사람이 이들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항상 누군가 곁에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pp. 36-37)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의 곁에 있으려 하고, 자주 도망치고 싶어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확고하게 함께하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산다고 확신한다. ... 형제들이 어둠 속에 살아야 하는 짐을 진 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준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pp. 80-81)

여기서 『당신은 나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으므로』라는 제목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카타르시스로서의 공격성(3)을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대체할 수 있고 수용단계(6)로 이끈다.”는 우리의 논제를 적용해보면 세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생긴다.

-배우자, 당신은 나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는 나를

받아주고 나와 함께해주었다!

- 교회, 당신은 나의 우울증을 피하지 않았으므로: 교회는 나를 위해 기도했고 주님을 보여주었다!
- 하나님, 당신은 나의 탄식을 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싸우게 해주었고 한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러기 위해 예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삶의 짐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진정한 본받음이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주여, 나의 가장 최고의 기도는 내가 매일 지는 십자가입니다. 아멘.”이라고 우리 중 여럿이 말하듯 말이다.(pp. 100-101)



자크 뤼세랑

## 『다시 찾은 불빛』, 『삶은 오늘 시작한다』

자크 뤼세랑(Jacques Lusseyran)<sup>36)</sup>은 후천적 시각장애를 지닌 맹인이다. 물리학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난 자크는 일곱 살 때 일어난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파리에서 소위 ‘쁘띠 부르주아’에 속한 그의 부모는 맹인이 된 아들을 일반 학교에 입학시켰고 이는 나중에 그가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가장이자 작가, 대학교수로서 미국과 파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자크의 자서전은 신앙의 기록이다. 신앙이 이 삶, 즉 한계 지어진 유한성에 대해 긍정하고, 유한성에 종사하며 약속된 시간을 위해 유한성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는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위기극복의 학습과정 중 최종단계인 수용 단계(6)에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그가 쓴 두 권의 자서전 제목부터가 이미 시각장애와 함께하는 삶

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증거한다. (『다시 찾은 불빛』, 첫 번째 자서전, 이하 A I로 표기; 『삶은 오늘 시작한다』, 두 번째 자서전, 이하 A II로 표기함)

첫 번째 자서전의 〈맺는 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여기서 내 기록은 중단된다. ... 이 책의 바람은 아주 적게나마 지난 시간 동안 신의 은총을 통해 삶과 빛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쁨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빛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눈이 없다 해도 빛은 우리 안에 있다. (A I, p. 219)

두 번째 자서전의 결말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실려 있다.

내적 삶이란 ‘봄’은 ‘관찰’이며, ‘앎’은 ‘이해’이고, ‘소유’는 ‘배움’임을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살기 전에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매순간 주어진 것이다. 삶은 오늘 시작한다. (A II, p. 132)

자크의 자서전 분석은 수용의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본보기로서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학습을 통한 위기극복의 가상 모델을 증명해주는 다섯 가지 관찰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1. 감각장애는 심리적, 사회적 상황이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장

애가 되지 않는다. 자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편입의 기회를 통해 실명을 극복한다.

2. 장애의 수용(6)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의 경험에 근거한다.

-아이 자크에게는 아이의 자기수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수용

-자크의 부모에게는 시각장애아를 둔 부모이기를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을 포함한 하나님의 수용

-장애인이 된 자크에게는 그의 자기수용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수용

3. 기독교 신자인 자크에게 수용(6)은 말없는 사건, 즉 ‘순진하면서도 냉담한 대답’으로서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예컨대 눈이 먼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적극적인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용을 표현한다. 사람들은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다시 찾은 불빛’,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난 뒤에는 ‘죽지 않은 사람’=‘삶은 오늘 시작한다.’

4. 현실의 불수용은 자크를 눈멀게 한다. 그는 불안, 분노, 슬픔, 어둠, 속명, 당혹, 우울과 같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현실의 불수용을 겪게 된다. 그는 이를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된 신뢰의 상실, 즉 위기극복의 학습과정 중 중간단계로의 후퇴로 경험한다.

“시력을 잃었을 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움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이 나를 눈멀게 만들었던 것이다.”

5. 자크의 기독교 신앙은 공격성(3)을 대체하고 수용(6)의 현실로 나아가게 만든다.

수용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 사고는 좀 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자크는 장애가 나타나기 이전이나 이후에 부모님의 상황이 특별히 좋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사방에서 나를 감싸던 따스한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무런 책임 없이 짐을 덜어주는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의지할 수 있다는 좋은 느낌... 부모님은 나를 항상 안고 다녔다. 내가 어렸을 때 땅바닥을 한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거울에 비치는 빛처럼 나는 위험과 공포 사이를 지나갔다. 그것이 바로 내가 유년시절의 행복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한번 입으면 평생 보호를 해주는 마법의 갑옷처럼 말이다. (A I, p. 7)

그에게 신앙과 하나님은 분리된 주제가 아니다. 이 둘이 그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자명한 존재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긍정되고 체험되는 현실의 총체이다.

우리 부모님은 하늘이었다. 나 스스로에게 이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내게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확신하지만 나는 정말로 이른 나이에 부모님 속에서 다른 존재가 나를 돌봐주고 내게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다른 존재를 나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부모님은 더 나중에 나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

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부모님 뒤에는 정말 누군가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내게 이 선물을 전해주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내 믿음은 시작되었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한번도 형이상학적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은 조금 놀라울지 모르지만 이로부 터 많은 것이 설명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확신과 확신을 잇는 릴레이’라는 이미지로 자신의 신앙을 탁 월하게 묘사한다.

나의 무모함 역시 이러한 신앙심에 기인한다. 나는 끊임없이 달렸다. 내 어린 시절 전체가 달리기뿐이었다. 나는 어딘가에 다다르기 위해 (이런 생각은 어른들이 하는 것이지 아이의 생각은 아니다.) 달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다가가기 위해 달린 것이다. 릴레이를 하듯 나는 확신에서 확신으로 앞을 향해 나아갔다.(A I, p. 8)

자크의 첫 번째 불행은 일곱 살 때 실험실 사고로 실명(인간이 야기한 고통)한 것이었다. 그의 부모나 그 자신도 이 재난을 파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자크를 그의 동생같이 ‘정상인’처럼 자라게 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위협을 막아주었다. 어린 자크는 자신을 시각장애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위협을 받아들였다. 그는 성인이 된 뒤에 이 시기의 유년시절을 〈빛의 계시록〉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하에 기억한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나는 완전한 맹인이 되었다. 나는 여덟 살도 채 되지 못한 아이일 때 눈이 멀게 해준 하늘에 매일 감사를 드렸다. 이 말이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 여덟 살 어린아이에게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직 습관이 없다. 아이의 신체는 아직 유연하고 상황에 필요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 삶에 “네”라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로부터 아주 거대한 물리적 기적이 자라날 수 있다. ... 이렇게 간단한 사실에 대해 난 알고 있었고, 맹인이 된 그날부터 한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다.(A I, p. 13)

유사하게, 두 번째 자서전에서는 ‘실명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

어떤 은혜의 증거들을 통해 실명 상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A II, p. 114)

스스로 고통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자극적 도전을 먼저 생각하여 비판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가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고통의 수용을 통해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에게 인간이 야기한 고통은 숙명의 가시를 잃었고 더 이상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은 그에게 다른 내면적 눈을, 즉 인지와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다시 찾은 빛’을 준다.

내게 주재란 게 있다면 그것은 삶이다. 마음의 삶, 이성의 삶, 내면적 세계

에 대한 인간적 반응의 삶 그리고 내 자신의 관심.(A II, p. 69)

자크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슬픔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묘사한다. 이럴 때 그는 확신이 없고 다시 빛을 잃으며 실명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약해진, 거의 사라진 시간들이 있었다. 내가 두려움을 가질 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확신을 갖고 돌진하는 대신 망설이고 확인할 때, 벽을 생각하고 반쯤 열린 문과 자물쇠에 꽂힌 열쇠를 생각할 때, 모든 사물이 적대적으로 나를 밀어내며 할컸다고 혼자 말할 때, 그럴 때 분명 내가 내 자신을 밀고 상처를 주었다. ...두려움은 내가 실명했을 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했다. 두려움은 나를 눈멀게 만들었다.(A I, p. 17)

장애의 불수용, 공격성(3)과 협상(4)과 우울(5)의 중간단계에 머무른 상태는 어느 시각장애 아동과의 만남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들었다.

시각장애 아동에게는 상처, 명, 찰과상, 수많은 구타보다도 더 무서운 위협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고립되는 것이다. 열다섯 살 때 나는 내 또래의 시각장애 소년과 긴 오후 시간을 같이 보냈다.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가 나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끈란한 기억은 별로 없다. 그 소년은 나를 아주 경악케

했다. 내가 그 소년보다 행복하지 못했을 경우 나 역시 그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로 눈이 멀어 있었다. 사고를 당한 뒤부터 그는 볼 수 없었다. 그 외에는 정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고 나처럼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그럴 수 없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그를 고립시켰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려는 그의 모든 노력을 비웃었다. 근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는 잔혹한 고립 속으로 도망쳤다. 그는 몸의 기력까지도 잃게 되어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에 있었다. 당혹스러웠던 것은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A I, p. 25)

그 소년에게서는 세 가지 차원의 고통, 즉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파괴의 고통이 극도로 위험하게 나타났다. 두 소년 모두 시력을 잃었지만 자크만은 근본적인 심리적·사회적 삶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 그는 신앙심을 갖고 ‘확신과 확신을 잇는 릴레이’를 통해 육체의 고통을 극복했다. 물론 자크에게도 고통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장애를 수용(6)하는 그의 기본 입장은 그로 하여금 삶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도록, 즉 사람들과 사귀고 관계를 맺도록 해주었다.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게 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크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전환점에서 위기를 겪었다. 자크가 이웃집 시각장애 소년과 다른 점은 그가 비탄에 빠지지 않고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주 솔직하게 고통의 경험을 털어놓는다. 시각장애자인 그에게 자신이 멋진 연인관계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것, 또



한 인간은 외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 것은 오로지 실명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프랑스아즈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근심에 잠겼다. 나는 너무 두려웠다! 두려움, 그것이 나의 고통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프랑스아즈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만드는 한 원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소녀들의 머리카락을 볼 수 없으며 그들의 눈이나 몸매도 볼 수 없다고. ...나는 항상 이런 멋진 경험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아는 게 두려웠다. 동정심이 내가 벌어들인 치료법이었다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나는 시각장애인이 접할 수 있는 가장 힘겨운 장애 중 하나에 부딪혔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다시 건강한 이성을 되찾게 될 때까지 2년이란 시간 동안 심연을 헤매고 다녔다.(A I, pp. 82-84)

자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첫 번째 자서전에서 수용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마음의 목소리는 내가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내가 진짜 세계를, 우리 안에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인 그 세계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내가 흔들림 없이 그 세계를 믿는다는 전제에서이지만.

실명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완전히 치료되는 유일한 방법은... 실명을 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훌륭한 치료란 망설임 없이 다시 현실의 삶 속으로, 힘겨운 삶,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A I, p. 28)

두 번째 자서전에서 자크의 대답은 더 분명하다. 여기서 그는 위기의 불수용을 유일한 결함으로 명명하면서, 모순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울의 말씀(고후 4:8 이하)과 유사하게 ‘고통에서 해방된 고통’을 통해 대답한다.

결함이란 없다. 나는 이를 실명을 통해 경험했다. 하나님 혹은 다른 예로 자연이나 삶은 절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에게서 앗아가시는 것은 의견과 습관일 뿐이다. 우리는 그 점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결함은 실명이나 청각장애 또는 마비가 아니라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와 마비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는 포기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건강한 이성을, 다시 말해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사랑함을 찬미하는 것이다. 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이것을 ‘빛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빛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매순간 온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빛도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A II, p. 113)

여기에 바울의 말씀이 첨가될 수 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 있으니!”(고후 6:9)

자크가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서 경험한 극심한 고통의 상황은 다시금 그가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갈 힘을 주었다. 당시 인문고 학생이던 열아홉 살의 자크는 저항단체의 지도자로 체포되어 심문과 고문을 당했다. 그는 강제수용소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가망 없이 악화되는 질병을 이겨내고 예전처럼 “프랑스 방어”(Défense de France)라는 단체에서 수감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다.

사람들은 극악한 상황과 싸워야 했다. …사람들은 수용소를 지배했던 광란적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이성을 유지해야 했다. (A.I, p. 206)

자크는 그가 수감된 구역만을 위해서 군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뉴스를 모아 해석하고 번역했다. 무엇보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내 안에 충만한 빛과 기쁨은 수감자들에게 넘쳐흘렀다. 내가 병이 났을 때에도 아무도 내 빵이나 수프를 훔쳐가지 않았다. 단 한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밤에 나를 깨워 이따금 아주 먼 구역까지 데려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달라고 부탁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대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나는 ‘눈 먼 프랑스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심지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지 않은 사람’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나와 얘기하고 싶어했다. 그들과 나는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폴란드어

로 얘기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남았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A I, p. 200)

그는 (두 번째 자서전에서 처음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연상시키며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의 학습과정을 인상적으로 다룬다. 여기서 그의 친구인 대장장이 제레미도 언급된다. 제레미는 57구역에서 유일하게 겁없이 사는 친구로 자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볼 수 있는 사람에겐 모든 게 아주 평범하다. 하지만 이제 나치는 우리에게 수용소라는 끔찍한 현미경만을 전해주었다.

자크가 제레미와 나는 내면적 대화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알료샤가 세상의 고통에 대해 분노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특이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 비탄이 (나선형 3단계인 공격성이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카타르시스 기능을 갖는다는 논제와 유사하게) 수용의 현실을 배우는 데 필수적인 단계였다는 점이다.

처음에 나는 제레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거의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부헨발트 수용소가 일상적 삶과 아주 비슷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 소름끼치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이 끔찍한 죽음의 위협이 모두 일상적이라니! 나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은 기억이 난다. 이보다 더 나쁠 수도, 더 좋을 수도 있다니. 제레

미가 마침내 내게 보는 법을 가르쳐줄 때까지. ... 그것은 내게 계시도 아니었으며 대단한 진리의 발견도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는 어느 날 대장장이 제레미가 오랫동안 내게 그의 눈을 빌려주었음을 느끼고 깨달았다. 제레미는 그의 눈으로 부헨발트가 우리 모두 속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헨발트가 데워지고 다시 데워지며 끊임없이 귀여움을 받고 끔찍하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한다면 앞으로 그것과 싸울 수 있다는 것도. ... 제레미는 '일상처럼'이란 말을 가꿈했다. 그는 언제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극복될 수 없는 두려움. 그는 그들이 남몰래 특히 단 한 가지, 즉 스스로에게 상처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고 여기서도 변함없었다. 다른 점은 이곳은 그럴 조건이 모두 채워졌다는 것이다. 전쟁과 나치즘 그리고 정치적·국가적 광기는 완전한 고통과 고난이 담긴 대작, 강제수용소를 완성했던 것이다. (A II, pp. 24-25)

수용(6)의 힘은 변한다. 자크는 그것을 친구들의 재발견으로 묘사한다.

57구역의 한가운데서 제레미는 친구들을 찾았다. 제레미는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을 주었다. 어떤 기쁨이었느냐고 묻는다면 ... 그것은 살아 있다는 기쁨이었다. ... 밤의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 적어도 몇몇 다른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부딪치는 것을 느끼는 기쁨. ... 그것은 놀랍게도 지옥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용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능력이었고 커다란 행복이었다. 나는 기쁨이 존재

하며 그것은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것은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통해서도 (최악의 조건을 통해서도)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다. (A II, pp. 25-26)

제레미는 후에 대학교수가 된 자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도록, 즉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명석한 두뇌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제레미는 학문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그(제레미)가 보았다고 말했다. 나는 살아 있는 기도처럼 그에 관해 얘기했다.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레미의 믿음은 별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에게나 (그로 인해) 우리에게나 세상은 매순간 구원을 받았다. 은총은 끝이 없었다. 은총이 우리를 비켜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은총이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이다. ... 제레미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고통과 기쁨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초월적인 것 혹은 (이 말이 귀에 거슬린다면) 근본적인 것을 찾아냈다. 그는 삶의 근원을 발견한 것이다. 동시에 투명함과 순결함이 그를 감쌌다. 나는 제레미의 행동이 거의 종교적 행위처럼 보였기 때문에 '초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깨달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제레미가 아주 소박한 방식으로 전한 '좋은 소식'이었다. (A II, pp. 27-28)

자크가 증거한 '좋은 소식', 그것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이다.

## 루트 뮐러-가른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실비아·알베르트 괴레스 『장애아 부모의 삶』

루트 뮐러-가른(Ruth Müller-Garn)<sup>37)</sup>의 아들 마르쿠스(Markus)는 생후 10개월 때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고 의학용어로 ‘백치’가 되었다.(p. 15, 113)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쿠스의 아버지도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마르쿠스의 부모(개신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 간의 결혼)는 세 명의 비장애아 딸을 더 낳았고 1970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뒤에 가톨릭 결혼식을 올렸다. 기독교 가정을 꾸리려는 부모의 노력으로 마르쿠스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심리치료사인 실비아와 의사인 알베르트 괴레스(Silvia und Albert Görres)<sup>38)</sup> 부부는 두 명의 건강한 아이와 두 명의 정신지체아(둘째 레기나와 셋째 파트릭)를 낳으면서 직장생활 이외에도 실존적인 부모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들 부부는 위기를 맞은 당사자이자 전문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실천했다.

뮐러-가른 부부와 피레스 부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이가 정신지체아라니 주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 두 부부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답을 발견하며,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웠다. 뮐러-가른 부부는 순진하면서도 냉담한 반응에서, 피레스 부부는 비판적이면서도 호의적인 태도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 두 부부는 기독교 신앙이 신학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바를 보여준다. 이들은 장애아 자녀와 함께하는 삶을 긍정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 논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그들의 자서전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카타르시스로서의 공격성(3)을 수용(6)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루트 뮐러-가른의 경우에서는 순진하면서도 냉담한 반응의 예가 나타난다. 그녀의 굳센 종교적 확신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즉 아들의 정신지체, 가난, 사회적 고립과 같은 모든 어려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린 짐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확신의 토대였다.

내가 중병을 앓는 우리 아이에 대해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 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의 종교적 확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불행이 닥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pp. 117-118)

그녀 스스로 ‘어린아이 같고 순진한’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힘은 종종 장애아인 자녀 마르쿠스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라는 아주 오랜 물음은 운명에 대한 무력한 공격성의 표현으로서 물러난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십자가를 항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자신을 짊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왜 내 아이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해본 적이 없다. 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많은 결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주님을 확신하는 나의 독특한 방식이다. 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어린아이 같다고 말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를 순진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의 절대적 확신은 종종 지나칠 정도이다.(p. 118)

수용의 체험에서 비롯된 근본적 확신은 변화와 의미 발견으로서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우리 가족의 품에 안긴 마르쿠스에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는 우리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킨다.(p. 49)

아마도 이러한 피조물에 대한 사랑도 우리 자신을 이처럼 기쁘게 변화시키나 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산되지 않은 사랑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작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랑은 이런 아이들의 주변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사랑은 넘쳐나는 호감이 아니라 남을

돕고, 존중하며,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려는 마음이다. …아마도 그들의 무조건적인 신뢰, 우리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킬 것이다.(p. 123)

그녀의 남편의 변화는 신앙의 성장으로서 완성되었고, 이는 아들 마르쿠스에 대한 자부심에서 드러난다.

당시 우리 남편은 나처럼 신앙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르쿠스에 대해 긍정할 수 있었다.(p. 118)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은 마르쿠스에 대한 사랑에 자부심까지 갖게 되었다. 이제 그는 예쁘고 똑똑한 세 딸만큼이나 마르쿠스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p. 119)

학교생활은 남매들의 변화된 반응을 보여주었다. 지빌레와 아네테는 어느 날 다른 학생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에 흥분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네 동생 마르쿠스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그 애는 절반은 짐승이야.” 지빌레는 분노해서 말했다. “엄마, 그 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애는 마르쿠스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 애는 우리가 마르쿠스와 같이 사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해요.” 나는 고민했다. …그때 일곱 살이던 지빌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야 당연히 사랑하기 위해서죠!” 딸애의 확신은 나를 기쁘게 했고 또 부끄럽게도 만들었다.(p. 112)

루트 뮐러-가튼은 종종 장애아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변화를 그리스도인의 모순으로, 즉 짐을 짊어지고 동시에 짐에서 해방되는 모순으로 표현한다.

마르쿠스의 병이 시작되면서 나는 건강한 아이들의 엄마들보다 더 자주, 더 절망적으로 울었고,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소리도 질렀다. 진실을 말하자면 마르쿠스는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존재인 동시에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우리는 ‘아픈’ 소년을 사랑하고, 그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다. 우리 가족이 마르쿠스와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은 모순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모든 질병은 성숙의 기회이며, 불행이 닥치는 곳에 행복한 이웃사랑의 일화도 생겨난다.(p. 116-117)

루트 뮐러-가튼은 ‘부담’이라는 주제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p. 101) <갑자기 고립되다>라는 장에서 그녀는 주변과 관계가 중단됨으로써 겪은 고통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되고, 함께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예컨대 주로 이로 물거나 침을 빨는 것으로 접촉하는 마르쿠스에 대한 혐오감(기독교 신자인 뮐러-가튼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고통을 상징한다. p. 102), 그 다음엔 불쌍한 애를 가둔다며 냉혹하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하지만 정작 이 이웃들은 심장이 너무 약해 발작을 일으키는 마르쿠스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p. 104), 끝으로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는 그녀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 회사 직원들이 그녀의 힘겨운 운명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p. 105)

루트 뮐러-가튼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이때 ‘하늘’이 소피아 수녀를 보내주어 잠시 집안일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결국 그녀는 학부 모 모임이나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싶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될 위험과 나아가 “자신의 힘겨운 운명을 후광처럼 엮고다니는 일종의 고통 받는 자의 교만에 빠지게 될 위험”에 대해 고백하게 되었다.(p. 106)

루트 뮐러-가튼은 신앙심이 의심과 원망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의 존재는 수용(6)의 길로 가도록 중재하며 (무고한) 고통도 견디도록 가르쳐준다. 아들의 심각한 발작으로 인해 생겨난 극심한 의심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위협했다.

왜, 도대체 왜 마르쿠스는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그 애는 살아 있는 동안 악한 일을 할 정도의 지능을 갖지도 못했다.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시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어려움과 거기에 따르는 희생을 감당하면서 중증 정신지체 아동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는 그 아이가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것은 내가 지니지 못한 힘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 때 나는 원망하기 시작했다.(p. 74)

하지만 가톨릭 신자인 루트 뮐러-가른은 자신을 마리아와 동일시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십자가 밑에 서서 침묵하며 견딜 수 있었을까?...마리아는 얼마나 피로웠을까!” 그리고 그녀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통”에 대한 바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롬 8:17-18)

하지만 나는 당시 깊은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예감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사람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만 약속된 기쁨과 축복의 깊이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p. 74)

‘순진하면서도 냉담한 해답’을 택한 이러한 확고한 신앙은 시편 73편의 한 구절에서도 말씀되고 있다. 이 구절은 아들 마르쿠스의 견진 성사 말씀이자 나중에 자서전의 제목이 되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시 73:23)

이와 달리 의사와 심리치료사로서 조연자 역할을 하는 실비아와 알베르트 피레스 부부는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다. 실비아는 장애 자녀들을 평생 ‘살 속에 박힌 가시’로 감내하면서,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이와 거리를 취하는 3인칭으로 과거를 성찰한다.

장애아 자녀는 보호시설에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도 모든 엄마의 아빠에

게 언제나 ‘살 속에 박힌 가시’와 같다. 부모들의 치명적인 당혹감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또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도 다시 지워지지 않는다. 장애아 자녀는 그들 인생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p. 8)

실비아는 자신의 책을 자녀인 레기나와 파트릭에게 바쳤다. 이는 “이해하기 힘든 운명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그녀 자신의 기나긴 노력에서” 다른 부모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우리의 두 아이들’이라고 하는 대신 <장애아 자녀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택함으로써 다시 한 번 거리를 취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 상황에 대한, 또한 부모·장애아 자녀·형제·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나아가 실질적인 대응방식과 가족의 문제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일상과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상황을 고찰했다. 이것으로 그녀는 필연적으로 수용이나 죽음의 소망과 결합된 장애아 자녀의 불수용이라는 핵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녀는 이것이 주변, 특히 교회의 도움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장애아 자녀로 인해 생겨나는 부담과 끊임없는 요구는 부모들이, 특히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어머니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자신과 아이가 죽을 방법을 찾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이는 어머니들이 이러한 평생의 짐을 견딜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며 아마도 지금까지 너무 적은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들은…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도움

을 받으리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한다.(pp. 78-79)

실비아는 제9장 〈장애아동과 기독교 공동체〉에서(여기서 대부분 헛된 기대로 드러난) 교회의 도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p. 129 이하) 그녀는 재정기금 마련이 아닌, 선입견의 제거와 공활을 핵심으로 하는 지원사업 목록을 작성했다. 예를 들어 보통 주일예배를 방문할 때 받는 따가운 시선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올바른 행동이 그에 포함된다. 그녀는 중보기도를 할 때 무거운 걱정을 다시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교인들은 중보기도를 할 때 장애아 부모의 무고한 고통을 같이 느낀다. 그러나 교인들은 고통이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우연이나 불행한 사건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중보기도는 신도와 교회와 특히 ‘아무런 공로 없이’ 건강한 자녀만을 가진 부모들에게도 대표적인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그녀는 교회의 형제적 연대를 호소한다. 형제적 연대만이 파고드는 고통에서 가시를 빼낼 수 있으며 방문이나 상담, 봉사요원, 주일예배 등과 같이 그 형태는 교인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이며 두 명의 정신장애아 자녀를 둔 알베르트는 책의 후기에서 “장애인은 우리의 파트너인가?”라는 핵심적 질문을 던졌다. 그는 ‘순진하면서 냉담한 대답’에 만족할 수 없어서 비판적이며 호의적인 대답 속에서 이러한 고통의 의미와 씨름한다. 상상도 하지 못할 파국에 가까운 정신장애의 고통은 자주 가족의 죽음보다 더 힘들며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부모들이 장애아

자녀의 죽음을 소망하고 상상하게 만든다. 알베르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솔직히 말한다면 장애인을 대할 때 먼저 거부와 두려움과 혐오감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더 이상 고통 당하지 않게 가버려! 내 삶이 좀 더 쉬워지도록 이주 가버려!”라고 느끼거나 생각하게 되는 유혹으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p. 137)

위험을 무릅쓴 이러한 공개적 탄식은 알베르트에게 도움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심리치료사이자 의사로서 장애아 자녀에 대한 느낌, 즉 ‘거부감... 두려움... 혐오감이라는 요인’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 있는 기독교 신자로서 죽음의 소망이란 유혹에 빠진 적이 있음을 고백한다는 점에서 그의 용기는 대단한 것이다. 그것은 공격성(3)을 풀어준다. 공격성의 표현 형태는 실로 다양하며 수기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나듯,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카타르시스로서 수용(6)과 연대(8)를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밝히지 않은 자신의 무고한 고통에 항의한 울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그는 탄식을 찬성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비판적이며 호의적인 반응 속에서 실제로 장애아 부모의 편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에 선다. 이로써 그는 이들을 억눌린 공격성과 격리된 삶과 배움의 중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위기극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스도인인 알베르트에게는 통제되지 않은 탄식/공격성(3)이 주변으로 향하지 않음으로써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내적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300쪽에 달하는 그의 저서는 그가 이러한 비판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리학은 인간에 대해 알고 있는가?—심리치료와 인류학과 기독교 사이의 질문』<sup>39)</sup>이라는 책에서 그는 어떤 대상이 실존 문제에서 중요해질수록 그에 대한 지식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p. 9)고 고백한 뒤 이 모순적 인식에 대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짐을 감당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선하고 악한 모든 일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p. 13)고 말한다. 알베르트는 이러한 내용을 〈신앙의 이유〉, 〈질병의 의미와 무의미〉, 〈확신의 용기〉, 〈신에 대한 실망—틸만 모저(Tilman Moser)의 책 『신의 독살』에 대하여〉라는 장에서 소개한다.

그는 이 두 책에서 장애인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신앙에 대한 정의로부터 도출한다. 그에게 “신앙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1979, p. 90) 그는 정신박약 아동을 ‘살덩어리’라고 표현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자유롭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다며 그들을 익사시킬 것을 제안한 마르틴 루터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다.(1973, p. 90)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실한 동정심이 아닌 함께 생각하는 협력관계에서 정신장애인들과 살아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알베르트는 이를 1973년에 쓴 책에서 ‘철학적 통찰’이라고 표현했다. 즉 모든 인간은 그가 어떤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리주체이자 한 개인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대변하고 방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p. 138) 1979년에 발표된 책에서는 이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신학적 원칙을 개진한다. 알베르트는 바로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질병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한다. 즉 하나님도 ‘미리 신뢰를 얻을’ 권리가 있고, 이는 우리의 ‘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p. 163) 이것은 필연적으로 ‘운명지어진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하고, (그의 스승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인간의 욕구를 포기하는 것을, 즉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대리 신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p. 167) 알베르트는 이러한 생각을 용기와 관련시켜 개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신뢰의 용기는 아주 중요해 보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악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의미를 밝혀주지는 않는다. …옘에게 허용된 야훼에 대한 재판에서 옘은 야훼에게 직접 신성모독적인 언사를 행한다. 야훼는 변론을 하기는 하지만 그의 논거는 악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해명이다. “나의 지혜와 힘은 너의 정

신과 이성에 명백히 입증되었으니 내가 행하는 일의 세세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너에게 미리 신뢰할 것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노라. 너는 내가 드러나는 빛에서뿐 아니라 내가 숨어 있는 어둠 속에서도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내가 숨어 있다는 것은 내가 부재함을 의미하지 않느니라.”(1979, p. 164)

알베르트는 여기서 그의 심리치료 병원에 찾아와 탄식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답을 발견한다.

장애아의 부모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자주 다음과 같은 탄식을 듣게 된다. “박사님, 저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공격적인 아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저를 막 대합니다. 저를 때리고 욕합니다. 저는 이 나쁜 아이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게 권리를 주고, 이 아이의 권리를 인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이는 그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된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안도하며 말할 사람은 많다. “정말 그러길 원하신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해주면 이들은 위안을 받고 더 잘 적응을 한다.(1973, p. 140)

그는 자신을 욕과 일치시킴으로써 질문에 대답한다.

하지만 나는 욕이 만족스러워했던 말씀을 명심한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책임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해

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소명도 받지 않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면 내가 신뢰하는 것도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신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한 가지 점에서만 신뢰가 내게 부담스러운 요구였기 때문이다. 내 말은, 하나님은 내게 부담스러운 신뢰를 요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나는 악을 위해 하나님께 존재하지 말 것을 선고하는 재판관이 아니다. …나는 승리에 커다란 관심이 있다. 재판의 승리가 존재와 비존재를 결정한다. …신앙의 장소를 떠난다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할 것이다. 신앙은 현실에 이르는, 숨겨진 내면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다.(1979, pp. 97-103)

알베르트는 이러한 비판적이며 호의적인 신앙태도를 통해 변화된 시각을 얻었다. 정신장애는 의사가 제거해야 할 기술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여정에 불가피하고도 유익한 현실이다. 우리는 그 현실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치유할 수는 없다.

건강하고, 힘세고, 권세 있고, 부유한 인간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힘이 센 자는 약한 자가 없이는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하는 한 가지를 결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아래로 향한 길이라는 것을 말이다.(1973, p. 144)

1979년에 쓴 자서전에서 그는 이 생각을 더 심화시킨다.

병든 이웃은 우리에게 헌신적이고 거의 초인간적인 사랑의 성숙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집밖으로 내쫓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때를 놓쳐버리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달아나는 것이다.(1979, p. 169)

알베르트는 이 세상을 솔제니친의 『암 병동』에 나오는 한 장면에서 포착한다. 이 작품에서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들과 장애인들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희망과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장애를 지닌 인간은 우리에게 세상은 항상 암 병동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우리 중 단지 몇 명만이 계토로 보내져야 할 만큼 장애를 지닌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가리켜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정신장애 아동이다.(1973, p. 15)

알베르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소위 건강한 사람인 우리는 질병과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버려!”라고 소리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내 곁에 머물러줘!”라고 부탁할 기회를 잡는다.

우리가 소명대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 곁에 머물러줘.(1973, p. 148)



로렐 리

##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로렐 리(Laurel Lee)<sup>40)</sup>는 불치의 호지킨 병(악성 림프종의 일종) 4기말 환자로 세 명의 자녀를 둔 엄마였다. 그녀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의사의 권유에 따르지 않고 임신 중인 셋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고,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고, 가난 속에 고립되었다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일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연달아 일어났다.

마지막 수기 분석의 예로 암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죽음의 확신에서 비롯된 장애를 살펴보자. 오늘날 사망자의 4분의 1이 암으로 죽기 때문에 신체·심리·감각·정신장애와 같은 네 개의 커다란 장애의 종류 이외에도 암이라는 특수한 삶의 문제를 추가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적인 인생의 문제에서도 위기를 맞은 당사자들은 위기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위기상황을 제거할 수 없기에 위

기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로렐은 이를 위해 일기에서 우리가 ‘비판적이면서 호의적인 반응’이라고 분류하는 대답을 찾는다.

그녀의 ‘수난사’는 성경에도 쓰여 있음직한 것이다. 그녀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치료보다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가르쳐준다. 로렐은 불치의 암을 앓았고 사망시점도 예견되는 상태였다. 그녀는 질병과 불행과 가난과 소외 그리고 외로움을 겪었지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나는 죽음에서 마술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영적 삶으로의 여행이었다. 의피적 인간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영적 인간은 나날이 더욱 새로워졌다.(표지 문구)

로렐은 살아 있어서 행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살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어떤 곳에 있었다. 하늘로 시선을 향했을 때 내가 본 것은 황홀했다. 그 순간에 아이들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나는 하늘로 향한 그 창문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표지 문구)

이것이 그녀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자세이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이 ‘불행’이라 일컫던 것에 신앙을 적용시켰다.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모든 구절에서 느껴지는 로렐의 ‘온전함’, 즉 그녀의 ‘변함없는 건강함’이다. 로렐이 독일을 여행할 당시 독일 출판사 편집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sup>41)</sup>

그녀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그녀와 며칠을 함께 보낸 뒤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변함없이 건강하며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삶에 대한 그녀의 용기는 감동적이며 건강함과 병약함의 기준을 있게 한다.(p. 4)

로렐 자신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내가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들은 나중에 잊어버릴 것이다. 때문에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글로 쓰는 것이다. 나는 의사 선생님들과 내 가족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다.(p. 110)

로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인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녀는 비장 수술이 끝난 뒤 자신이 호지킨 병 3기라는 진단을 듣고 공격성이 일어났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p. 108)

내겐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어린 자녀가 세 명이나 있다.(p. 107)

“우리 모두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내게 용기를 주기 위해 사람들이 했던 말 그리고 나 자신도 믿었던 이 말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다. 그러나 내겐 결국 힘겨운 운명이 찾아왔다. 추운 겨울날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도둑맞은 느낌이었다.(p. 107)



그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낯선 사람들을 자신의 문제 속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방어장치’를 마련하고, 심리적 무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 일은 치료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반복적인 방사선 치료와 간, 비장 검사에 대해서도 그녀는 “하지만 저한테 비장이 없다고요!”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아 참, 그렇죠!”라는 대답과 함께 혼자 남겨졌다.

로렐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승강기라는 이미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녀는 자신을 승강기 안내원으로 여긴다. 그녀 혼자만이 의지에 따라 위아래로 가는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나는 혼자였다. 이제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마치 승강기에 올라타 내 마음대로 위아래로 가는 버튼을 선택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소년지자들이 수천 년 전에 불렀던 찬양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13:17-18)”

이 ‘찬양은 크게 틀고 목청껏 부를 수는 있지만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 찬양은 ‘성령’이라는 방송국에서 보내는 것이었다. 죽음에 대한 고통스러운 두려움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으로 변화되었다. 기쁨과 평화는 하나이다. 나는 아주 높은 곳에 있었고 사방을 둘러보고 싶었다.(p. 109)

나는 의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신 클라라가 와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여자였다.(p. 110)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로렐의 믿음은 산과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움직였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자유로워졌다. <뉴욕타임스>는 “그녀가 행한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운명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인내심과 기쁨과 개인적 삶의 철학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에 맞섰다.”고 논평했다.

로렐에게 병약함은 마치 다른 혹성에 이르는 것과 같았으며 그리하여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겪었다. 예컨대 그녀는 임신주수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해야 했지만 초음파 장비가 고장이 났고, 곧바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도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환영을 통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왕하 5:1 이하)를 경험하고 확신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너무나 끔찍했다. 마치 가족 운반차에 실려 아우슈비츠나 집단학살 수용소로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병실 복도를 보았을 때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크고 작은 의료기구들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이곳에서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 중. 생명 위험. 주의요!”라는 팻말이 달린 연판문 안에서 치료를 받았다. 방사선 기사가 버튼을 돌려 화면을 통해 암에 걸린 환자를 관찰하는 동안 빨간 등이 번쩍거렸다.(p. 33)

나는 진찰실로 보내졌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데 갑자기 환영

을 보듯 성경 이야기가 떠올랐다. ‘시리아인인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 그는 예언자로부터 병을 낫고자 한다면 요단 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나아만은 처음엔 거부하지만 결국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결국 건강해진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나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p. 34)

공상과학소설의 고문 장면과 비교되는 대기실에서 고통스럽게 기다리던 중 로렐은 초음파 진단이 나올 때까지 방사선 치료를 미루자는 통보를 받는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휠체어를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길’을 갔다.”(p. 35) 그러나 그 다음의 진단은 ‘즉각적인 방사선 치료가 요구됨’이었다.

태아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p. 49)

주치의는 분만일이 다가오자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신한 환자 자신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려 했다.

나는 신경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남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였다. 힘이 남아 있었다면 그날 오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하다못해 나무라도 찾기 위해 달려나갔을 것이다.(p. 50)

하지만 그녀는 다시 치료실로 불러갔고 곧바로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다시금 자신이 반항심을 참는다고 느꼈고, 하나님 이 함께 아파하며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검사기계의 증상으로 밀려들어갔다. 기계의 소리가 컸기 때문에 귀마개를 했다. 방사선 기사가 뒷목에 작은 쌀자루를 놓아주고 몸 위엔 납으로 만든 보호 앞치마를 덮어주었다. 배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내 머리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제2차 치료에 예정된 날 썰물 뒤의 바다처럼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점차 밀물이 차오를 때는 수채화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작은 그림을 그렸다.(p. 51)

‘저항과 순종’ 간의 싸움은 지속되었고 로렐은 이를 충격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 ‘사자들’은 내 방을 떠나지 않았다. 사자들이 이따금 거대하게 자라나 나는 무서워 벌벌 떨었다. 사자들은 가끔씩 작아지기도 했지만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이를 드러내 보였다.(p. 135)

나는 암을 유발하는 약품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싫었다. 질병과 치료는 여러 가지 굴욕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순종할 것을 명한다.

내 방은 아이스링크와 마찬가지로였다. 앉아서 글을 쓰는 동안에 나는 시간

을 넘고, 장애를 넘을 수 있었고, 기분도 좋았다. 그런데 얼음판 위에 구멍이 생겨나 나는 그 구멍을 돌아가야 했다. 발은 물에 젖어 차가워질 수 있었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가끔씩 오한을 느꼈다.(p. 136)

입원이 장기화하면서 로렐에겐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처럼 균형을 잃은 적이 없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병원에서는 더군다나 살고 싶지 않다.(p. 59)

하지만 병원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마주치게 된다. 로렐은 이를 의사와의 만남에서 경험했다. 그녀를 치료한 여러 의사 중 마이클 마이너라는 의사는 그녀를 하나의 ‘사례’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주었다.

그것은 말보다는 감정적인 면에서 표출되었다. 우리의 대화가 순전히 의학적 주제로 흘러간 적은 거의 없다. 마이너 박사는 아주 조금씩만 마음을 보여주었다.(p. 61)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건강한 사람인 마이너 박사는 로렐의 강한 정신적 건강함에 전염되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p. 63)

그는 내가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했다.(p. 62)

딸 메리-엘리자베스의 출산은 로렐에게 성경의 약속이 되었다.

너무 행복해서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p. 68)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는 잠시나마 메리-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있었다. 마법의 월이 우리를 둘러쌌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모두 사라졌다.(p. 69)

메리-엘리자베스를 진찰한 신생아 담당의인 레비 박사와 상담할 때 로렐에게는 다니엘서가 떠올랐다.

의사는 무의식적으로 정결치 않은 음식을 먹기를 거부한 다니엘서의 네 소년의 이야기와 비슷한 말을 했다. “따님은 다른 아이들보다 튼튼합니다.”

그 다음 레비 박사도 로렐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했다.

교회에 다니시나요, 아니면 어디 소속이신가요?(p. 74)

비판적이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찾는 그녀의 노력 또는 본회퍼의 표현을 빌리면 “저항과 순종” 사이의 길은 계속되어 병원과 집을 오갈 때만 중단될 뿐이었다.

심적으로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삶은 색깔을 잃고 회색이 되어버렸으며 과거와 미래를 잃어버렸다. 나날의 짐은 나를 내리눌렀다.(p. 84)

그녀는 자신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문둥병자처럼 느끼면서 모든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시련을 겪는다.

저 여자의 피부에 그려진 붉은 줄 자국을 보셨어요? 그건 방사선 때문입니다. 마치 한 무리의 문둥병자들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두 수군거렸다. “불결해! 불결해!”(p. 86)

그녀에게는 암에 걸린 자녀를 둔 엄마들과 만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그녀는 엄마들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함께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항상 온 세상 앞에서 내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할 것 같이 느꼈다. ... 암에 걸린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떠나야만 했다. 이곳 미국에는 가벼운 작별인사가 있다. 이 인사말은 어느 록 노래에서 유래한다. “안녕, 악어야!”, “또 보자, 악어야!” 이곳에서 나는 이 인사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작별을 해야만 하는 내게 누가 적당한 말을 빌려줄 것인가? “죽음이 나를 부르니 나는 떠나.” 라고 말하나? 차라리 “또 보자, 악어야! 안녕, 악어야!”라고 말하는 게 가장 나을 것이다.(p. 87)

로렐은 우울(5) 속에서 자신의 미래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잃어버

린 미래에 대한 ‘예견적 슬픔’을 겪으면서 질병을 통해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수용적 슬픔’을 경험한다. 게다가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까지 겪게 되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남편이 내 물건의 일부를 상자 안에 넣어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은 부인의 물건을 치우고 싶었나 보죠?”라고 소리 질렀다. 그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라고 대답했다.(p. 117)

이 일이 일어난 것이 3월 13일이었다. 두 달이 지난 5월 27일 일기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두려움 없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집이라고들 말한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주소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p. 141)

그녀는 상황을 파악했다.

남편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p. 145)

그녀의 남편은 의미심장한 비유로 상황을 꼬집는다.



당신, 개 두 마리가 같이 살다가 한 마리가 갑자기 차에 치이는 거 본 적 있어? 같이 살던 개는 사고가 난 곳을 빙빙 돌면서 어쩔 줄 몰라 울부짖어.(p. 130)

‘전몰장병 기념일’이라고 덧붙여진 5월 30일 월요일 일기에 그녀는 버림받음에 대한 결론을 쓰고 있다.

친구들이 나를 받아주었다. 리처드는 이혼서류를 제출했다. ...나의 삶은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헨델도 없이 숲속에서 길을 잃은 그레텔이었다. 내가 나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녀는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본질적인 싸움은 내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때 일어났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5)”(p. 148)

이성에 반하는 이러한 의지로 로렐은 집을 구하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끝까지 일기를 써서 주치의인 마이너 박사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다. 이 일기는 의사들의 편지함을 돌아다니다 미국 보건부 장관의 개인적 고문의 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로렐이 전하는 메시지는 순진하면서 냉담한 대답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이나 유혹으로서의 고통을 찬미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도이체스 알게마이네 존탁스 블라트> 편집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네, 저는 왜 제가 이러한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sup>42)</sup>

로렐의 메시지는 그녀의 증언이다. 그녀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싸우고, 찌름하고, 소리 지르고, 탄식하고, 울었지만, 구원자인 하나님은 그녀에게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한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로렐은 “비판적이며 호의적인 반응” 속에서 암을 수용하는 것을 배웠다.

나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있다. 나는 죽음에서 마술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 영적 삶으로의 여행이었다. 외부적 인간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영적 인간은 나날이 더욱 새로워졌다.

여자 읍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렐은 지옥을 통과해 갔지만 그곳에서 나와 이성파 의사들의 진단에 맞서 산을 옮길 수 있는, 표현 불가능한, 전염성 있는 신앙으로 인해 선택받았다. 로렐은 살아 있으며, 그녀의 일기를 통해 증인으로 계속 살아 있게 될 것이다.



Chapter 4

# 보호자의 문제



이 연구의 의도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다양한 사람들에  
게 위기극복과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으로써 파트너로서의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는 위  
기를 맞은 사람들의 경험과 필요 그리고 바람이 소개되었다. 대부분  
의 경우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사실  
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정서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보호  
자들이 위기의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접촉할 상황에 있지 못하다는 게  
원인이다. 즉 보호자들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이 놀라운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은 빌레펠트의 베델 공동체  
에 여러 차례 머물고 나서다. 필자는 1978년에 독일개신교협의회  
(EKD)<sup>43)</sup>의 중교회의와 1979년부터는 교육학과 학생들과 프로젝트 세  
미나를 진행하면서 이곳에 체류한 바 있다.

베델에서 열린 종교회의는 “무엇을 위한 삶과 교육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종교회의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종사자들과 장애인들의 만남을 위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종교회의는 사회봉사 임무를 논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범주가 확대되었다. 종교회의는 특히 주변 그룹에 대한 교육업무를 과제로 택했다. 하노버 대학 학생들은 실전에서 장애인들과 협력하는 일을 프로젝트 세미나로 선택했다. 하지만 베델 공동체 주민들을 방문하고 만나는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종교회의 참가자들과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개인적 문제에 부딪혔다. 즉 이들의 정체성이 문제시되었던 것이다. 종교회의 참가자들은 먼저 다소간 합리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 대응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대답이다.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이 이런 식으로 둘러보는 건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도 가보고 싶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죠?

이와 반대로 대학생들은 공개적인 비판을 가했다. 학생들은 먼저 “도대체 어떻게 장애인으로 가득 찬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라며 계도적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베델 공동체 주민에 대한 착취를 문제삼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류철 10개에 겨

우 3페니히를 받고 한 달에 35마르크 이상의 용돈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지요?” 대학생들은 결국 당 크오르트에서 열린 방문자 만남에서 침묵으로 항의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부터 유익한 제안이 생겨났다. 종교회의의 참가자들 사이에 개인적 대화가 계속 진행되던 중 베델 공동체를 방문하는 입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베델 공동체 주민들은 몇 주 전부터 종교회의의 참가자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거나 회의 진후에 베델 공동체를 처음 방문할 때는 안내를 받았다. 놀랍게도 이곳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인 종교회의 참가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왔고 바른 태도로 손님들의 당혹감을 풀어주었다. 이들은 함께 웃으며 게임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면서 방문객들과 가까워졌다. 주민들은 방문객들이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외르크 칭크(Jörg Zink)<sup>44)</sup>는 이 과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우리 건강한 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사실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건강과 끈은 걸음과 안정과 능력과 자유와 자존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곳에서 원초적 두려움이 생겨난다. 우리는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지나쳐버린다. 억누르거나 몰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사이에 거대한 비인간적 산맥이 들어서게 된다.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프로젝트 연구에

서 특징적인 것은 실제 경험과 불행한 사례에 대한 이론적 성찰의 상호의존성이다.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 세미나는 임상목회훈련(CPT) 모델과 유사하게 실제와 이론을 결합시켰다. 연구일에는 세 가지 과제가 수행되었다. 먼저 오전에는 장애인들과 협력하여 베델 공동체의 다양한 작업 영역에서 실제적 경험을 쌓았다. 각자 자신의 행동방식에 대한 개별적 질문이 담긴 대화일지를 바탕으로 베델 공동체 주민과 함께한 경험에 대해 성찰했다. 오후에는 이 대화일지를 바탕으로 이론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때 그룹 구성원들은 다른 대안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대학생들이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우리들이야말로 교제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다.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는 도량이 무서워서 다리를 헐어버리거나 아예 다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장애인들은 작업소의 일자리에서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과 협력의 의미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장애인인 우리가 '성과와 이득이 인생의 의미를 가져올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희생자이다. 우리는 경제적 목표에 따른 강요를 받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만 인간 공동체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성실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인간 공동체에 의존해 있다. 의견



상 비장애인인 우리는 그릇된 목표와 일방적인 규범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서로 함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장애인들로부터 비판적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종교회의 참석자들의 자체평가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보여준 행동과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당황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 두 경우 모두 같은 경험을 보여주었다.

• 장애인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비장애인인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문제였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sup>45)</sup>은 이 문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한 바 있다.

거부반응은 우리와 함께 사는 장애인들을 나병환자와 같은 상황으로 만든다. 그들은 고립되고 간과되며 동정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장애인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제인 것이다.

종교회의 참석자들과 대학생들은 독일 정부에서 실시한 정신병원 설문조사에서의 마찬가지로 사회통합은 정보의 문제라기보다 상호협력의 문제, 즉 서로에게 다가가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따르는 결론은 사람들(비장애인)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장애인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한다면 생각과 태도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절된 관계는 단계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협력을 위해 그리고 장애인들과의 개인적 만남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상호협력이 정보보다 우선적 위치를 차지한다.
- 인식을 위한 노력보다 경험이 앞서야 한다.

대학생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소개한다.

이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생각과 내 자신과 내 신앙에 대한 생각에 결정적인 경험이 되었다. 기대한 것과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소통능력이 얼마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번 주에 알게 되었다. 먼저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애인'의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해준 베텔 공동체에서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내 친구인 율리아와 나는 이번 주에 며칠간 서로 가까이 위치한 두 집 '대 베텔'과 '네보'에서 일했다. 산책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집에서 각기 한 명씩 총 두 명의 베텔 주민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내가 동행한 환자의 이름은 마리아로 36세였다. 카페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려버렸다.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우르술라가 외투를 벗는 것을 도와주었고 케이크를 직접 고르도록 해

주었다. 주문한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탁자에 편하게 자리를 잡았다. 우르술라와 마리아는 울리아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잘못 앉은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하지만 우르술라와 마리아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서로 팔을 쓰다듬으며 몸짓과 말로 옷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마리아가 우르술라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너는 왜 말을 하지 않아? 우울하니?” “…….”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 이번 동행에서 나는 우리가 장애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예컨대 작아 보이는 일에 기뻐하고,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 성과에 매달리는 삶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바로 그것이었다.<sup>46)</sup>

대학생들은 자신의 장애와 사회적 교제 문제 혹은 교제 무능력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학기에 장애인을 대하는 데 있어 근본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나는 장애인들과 교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들과 교제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다른 점은 단지 장애인 앞에서는 그것을 숨기거나 고칠 수 없다는 점이다.<sup>47)</sup>

우리 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불안감은 대부분 우리에게서 기인하였다. 우리가 그 불안감을 사람들(장애인)에게 투영했던 것이다.<sup>48)</sup>

요약하여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의 (소통)장애를 알게 된 것이 중요한 경험이었고 나아가 내가 그것을 다룰 가능성을 보게 된 것, 다시 말해 어려움과 장애와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주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한 경험이었다.<sup>49)</sup>

이와 관련해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작성된 보고서 일부를 인용 하겠다.

오전에는 실전경험을 하고 오후에는 그에 대해 성찰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대화와 기억을 기록한 일지를 보면 우리가 ‘비장애인’을 접할 때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어떻게 각 개인이 똑같이 느끼는 그룹 경험, 즉 일체감이 생겨날 수 있을까?... 어떤 환자의 고립된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 그룹에 대한 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대화시간에 그에 대해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 ... 그렇게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대화를 통해 가장 좋았던 그룹 체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의 솔직함을 경험한 것이다. ... 인간관계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용상의 문제는 쉽게 극복될 수 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옆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 내 감정이 없다면 어떤 내용도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sup>50)</sup>

종교회의 참석자들과 대학생들이 발견한 이러한 장애인들의 교제 능력은 히틀러 치하 국회의원인 브란트 박사가 당시 선진된 ‘영점공식’(Zero point formula)을 내세우며 베델 공동체와 협상하려고 했을 때, 담임목사인 보델슈빙 목사<sup>51)</sup>가 브란트 박사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운 것이었다. 이 대화에서 보델슈빙 목사가 ‘영점’에 도

달했다는 징후가 어디에 있냐고 묻자 브란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병자와 인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텔슈빙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교수님, 사회성에는 양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교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교적이 아닌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전해진 이 대화를 기록한 보텔슈빙 목사의 조카 프리츠 폰 보텔슈빙 목사는 본인의 경험을 덧붙이면서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혹한 교훈”이었다고 결론짓는다.

나는 ‘파란 앞치마’를 두른 목회 지망생으로 노이에벤에처로 보내져 평생 처음으로 새벽 6시에 7병동에 들어섰다. 남자 간호사인 흘란이 문가에 있는 침대보를 걷으며 말했다. “당장 우리 프리츠를 목욕시켜주세요.” 나는 누워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거의 문밖으로 달려나갈 뻔했다. 그는 스무 살의 정신장애 환자로 욕창으로 뒤덮인 살과 뼈만 남아 있었다. 경련으로 무릎이 계속 겨드랑이까지 당겨졌기 때문에 굽혀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 부위를 탈지면으로 감아놓은 상태였다. 말을 하지 못해 먹여줘야 했고, 변도 다른 사람이 치워야 했다. 그는 침대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고안된 이탄침대에 누워 있었다. 짧게 말하면 나는 평생 처음으로 인간 존재의 영점을 본 것이다. 목욕탕으로 가기 위해 이 끔찍한 몸뚱이가 알몸으로 내 팔에 안겨졌을 때 나는 그를 하마터면 바닥에 내동댕이칠 뻔했다. 15분 뒤 이 끔찍한 환자가 기저귀와 붕대를 하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을 때 나는 ‘이곳에 하루도 있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존재가 움직여 한 팔을 뺏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깜짝 놀라 흘란을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그는 그 병동에서 가장 심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하는 나를 그저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도 나를 도와주어야 했다. 나는 아직도 나에게 대한 동정심과 대학에서 공부하는 신학생의 극심한 어리석음에 대한 놀람이 담겨 있는 그의 음성을 잊지 못한다. “목회 지망생님, 모르시겠어요? 프리츠가 당신께 감사드리고 싶어 하잖습니까!” 그런데 나는 프리츠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프리츠는 내가 그를 인간이 아닌 역겨운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지만 그는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써 황폐한 인간과의 첫 만남에서 가진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환자이자 정신장애자인 그에게는 사교성이 있었던 것이다. 건강한 사람인 나는 그렇지 못했고 그를 통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 우리는 금방 친한 친구가 되었다.<sup>52)</sup>

대학생들도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사교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실수를 하거나 직원들의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걱정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시간

이 지나고, 우리 그룹에서 경험 있는 선배들과 함께 매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라프나’ 집의 거주인도 내게 주는 것이 있다는 (이론적이지만은 않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sup>53)</sup>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장애를 대하는 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먼저 우리와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려고 한 적도 있다. 반면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장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대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환자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다루는 법을 배워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sup>54)</sup>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갖는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봉사자 중후군’<sup>55)</sup>은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표현하지 못하는 개인적 성격구조를 갖게 됨”을 말한다. 이 중후군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없는 듯 보이는 사회봉사의 외관과 관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베델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경련성 마비환자인 한 여학생은 상담분석을 통해 베델 공동체 거주민과 교류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비장애인과 교류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도 스스로 인식했다.

내 자신의 장애상태를 잊어버리기 위해 나는 장애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룹을 이루어 상당히 잘 협력할

수 있다. 나는 (이전에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장애인들도 문제를 가지고 기꺼이 내게 찾아온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엔 공허만 남을 뿐이다…….<sup>56)</sup>

이 학생은 나중에 다시 개인적인 대화에서 이러한 공허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내가 몇 시간이고 마음껏 울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방송을 볼 때 나는 아무 역할도 맡지 않고 그저 나일뿐이다. 장애인인 나 ‘A. B.’는 친밀감과 온전한 인간존재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다. 울고 나면 대부분 기분이 나아진다. 하지만 그건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런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sup>57)</sup>

세미나가 끝날 때 이 학생은 그룹 모임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했다.

이제야 장애인인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싫어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장애인을 대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경우 나는 나 자신, 즉 욕구를 지닌 A. B.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즉 A. B.는 누구인 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내 도움을 ‘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



나라 내가 가진 문제와 함께 그들 곁에 설 수 있게 되었다.<sup>58)</sup>

이 점에 관하여 슈미트바우어(W. Schmidbauer)의 언급에 동의할 수 있다.

인간의 성품이 형성된 과정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훌륭한 인간의 성품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sup>59)</sup>

그에 반해 기독교와 사회윤리에 대한 슈미트바우어의 분석에서 봉사원 직업이 갖는 문제에 대한 논의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슈미트바우어는 기독교와 산업문화 사이의 역사적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봉사자 증후군과 관련하여 다음을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한다.

첫 번째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이해이다. ... 두 번째 관점은 기독교에서는 명백히 이기적인 가치보다 이타주의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이웃사랑의 의무는 변함없다. 이것은 원죄 이론, 즉 원래 나와 남이 나쁜 존재라는 이론과 독특한 결합을 하게 된다. 이웃사랑은 어느 정도는 자기중요를 통해 성취된다.<sup>60)</sup>

슈미트바우어는 그로부터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심지어는 봉사자 증후군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스스로에게 해가 될 정

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서 사회봉사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리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헌신과 희생은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에 중심한 윤리를 대변하는 가치이다. “네 자신과 같이”라는 말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가려 흘려들게 되곤 한다.<sup>61)</sup>

이웃사랑의 해석에서 신학이 오랫동안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분만 주로 설명해왔다는 슈미트바우어의 견해는 분명 옳다. 하지만 그는 마태복음 7:12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황금법칙을 간과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이 법칙은 신학 역사상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특히 개혁기와 같이 변화된 생활조건에서 경직된 전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동방식을 훈련하는 과도기에는 더욱 더 중요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황금법칙이 무엇인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의 욕구와 이웃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련성을 지적한다. 슈미트바우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결정적인 차원을 배제하는 셈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신앙인 스스로가 선택한 결정으로 이해한다. 사회봉사를 “두려움과 심적 공허 또는 자신의 소망과 욕구로부터의 방어”<sup>62)</sup>로 이해하는 슈미트바우어의 증후군을 지닌 ‘어쩔 줄 모르는 봉사자’와 달리 신앙인들은 스스로를 ‘해방된 봉사자’로 규정한다. 이들에게 봉사활동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실제적 대답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앞에서 수기를 통해 살펴본 논의의 관점에서 이

것은 그리스도인의 ‘비판적이면서도 호의적인’ 반응에 해당한다. 그 밖에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로울 가능성과 자신의 경험과 강요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항상 공존한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베델 공동체에서 ‘해방된 봉사자’로서의 기쁨과 아울러 ‘어쩔 줄 모르는 봉사자’의 어려움도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우리는 공동체에 상당수의 봉사자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련을 맞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행동이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가중시키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가 위기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별로 알지 못한다. 현재 제공되는 재활 조치는 치료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봉사는 상담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중요한 것은, 직장과 교회공동체에서 이웃과의 사회생활이다. 성과와 물질적 부를 과대평가한 결과 사회생활은 부족한 인간애와 무능한 대인관계로 전락해버렸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러한 상황에 내맡겨져 있으며 이들이 고립된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위기극복의 나선형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학습과정을 시작할 각오가 된 사람들만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각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비장애인의 사회적 장애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토비아스 브로허(Tobias Brocher)<sup>63)</sup>는 1977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7차 독일 개신교 ‘교회의 날’(Kirchentag)에서 “건강한 자의 병-병자의 건강”이라는 명제를 내세웠다.

브로허는 사회적 해석을 통해 자신의 명제를 설명한다.

외견상 건강한 사람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잘못된 건강 및 성과규범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규범을 거부하는 의견상의 병자들은 전통적인 상황에 익숙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양보다는 질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브로허는 소위 건강한 자들의 병을 낙담·숨김·수치심·의심·콤플렉스 또는 자만한 고집과 과잉보상적인 과대망상으로 설명한다. 그는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동질성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러한 자세로부터 자신을 드러내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개방성과 솔직함 그리고 두려움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병자와 장애인이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체험하게 만들으로써 이를 하나의 요구이자 도전이며 교정작업으로 만들 수 있다.

피셔(M. Fischer)<sup>64</sup>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해석을 찾는다. 피셔는 ‘짐적 존재’라는 좋지 못한 개념을 정반대로 설명하면서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건강함을 통해 주변에 짐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건강과 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주 건강해서 자신은 신도 사람도 필요없어 보여야 비로소 만족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력과 재산과 시간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가능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개인적, 사회적 공동책임과 희생정신 그리고 고통과 부담을 함께 짊어지기를 단호하게 회피하는 짐적 존재들이 더 많다. 장애인들이 아닌 바로 이들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적 힘과 건강을 통해 마비된다.

이 논제와 함께 우리는 기초적이거나 관계 무능력에 대한 전문가적 해석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인간관계를 돌보고 형성하는 능력과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다루게 될 고통을 감당할 능력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성찰을 요구한다. 위르겐 몰트만<sup>65)</sup>은 통일 전 서독사회를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약자들에 비해 특권을 누리는 차별사회로 특징짓는다.

약점을 지닌 개방적인 사회 대신에 차별적 구조를 지닌 공격 불가능한 폐쇄적 사회가 생겨난다. 생동감 있고 개방적이고 약점을 지닌 삶은 콘크리트 속에 갇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무관심이라 불리는 현대적 죽음이다. 고통 없는 삶, 열정 없는 삶…….

몰트만은 핵폭발로 인한 죽음이나 심지어는 환경 문제가 일으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야기할 죽음과 대치시킨다. 호르스트 에버하르트 리히터(Horst Eberhard Richter)<sup>66)</sup>는 이러한 문제의 심리적 원인을 연구한다. 그는 그 원인을 소위 규범대로 사는

순응적인 사람들이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규범과 맞지 않는 것을 배제하고 선을 그으려는 근본적인 불안 속에서 찾는다. 또한 그는 일반 사람들과 대비되는 주변 그룹의 안정 기능을 사회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질병과 기형에 관심을 보인다. 그들은 질병과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적당량 계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흔들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안과 경우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견제하는 것이다.

리히터는 브로허가 건강한 사람의 질병이라고 표현한 잘못된 건강 및 성과규범과 유사하게 우리가 심리내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상을 분열시킨다고 말한다. 질병과 장애와 금기시된 성적 욕망 등이 거기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바깥에서 감지되는 것을 자기 자신 안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전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분열의 과정과 그와 결합된 객관화 과정은 “내가 약하고 병들고 늙으면 나는 강하고 건강하고 젊다.”는 이중적인 형태를 빌려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재생산적인 특징을 지닌다.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체커(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sup>67)</sup>는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과 안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사회적으로 조건지워진 심리적 억압이라는 철학적 설명으로 풀이한다. 사회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일반적인 비난은 ‘상대적인 정당성’, 즉 “사회가 고통 받는 자들을 배제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물음과 만나게 된다. 그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사회를 정당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사회를 개선시킬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를 개선시키지 않는 가운데 변화시킬 뿐이며 극복해야 할 오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다. 배제의 정당성, 그것은 인간이 배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체커는 배제의 기본 목적을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해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정신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런 자아와 언어를 지닌 의식을 정신적 성과로 설명함으로써 어떤 정신적 내용이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포함되고 또 제외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심리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내용의 배제는 일단은 정당할 수 있지만, 사람은 성숙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양심에 반하는 위험한 거짓말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sup>68)</sup>

인간의 살아 있는 죽음, 즉 성경의 “오직 빵을 위한 죽음”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인간은 오로지 생산함으로써만 생존하며, 인간관계의 부재 그 자체가 그의 죽음과 지옥인 인간을 의미한다.<sup>69)</sup>

진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에워싸는 죽음, 그것은 인간관계의 부재라는 죽음이다. ... 그것은 삶의 한가운데서, 생산과정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지옥인 것이다.<sup>70)</sup>

1978년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고립과 관련하여 채택된 합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장애인이 없는 공동체는 장애를 지녔다. 장애 문제와 독립적으로 전 인류는 세상이 비인간성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다. 장애인의 존재는 모든 인간이 약하고 위태로우며 불완전하고 하나님에게 창조되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이 하나의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sup>71)</sup>

지금까지 성찰한 결과, 우리는 한편으로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아직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아직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의지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위기극복의 학습 과정을 회피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경험능력을 약화시키거나 위축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인간관계의 부재로 인한 이러한 '죽음'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수기 분석 결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위기를 당하지 않은 자'인 우리가 그들에게 문제이다.
-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공동체·사회가 필요하듯 공동체·사회에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중 논제는 보호자 역할을 맡은 사람의 과제를 새롭게 생각하게 해준다. 위기를 당한 자들을 주변의 가장자리에서만 보는 모든 사람은 그동안 간과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행동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 자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오랜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온정 있는 보호를 거부함으로써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할 기회를 포기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파트너, 즉 억눌린 인간존재 형태를 현실화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며 기다릴 줄 아는 다른 사람들, 절망을 견뎌내면서 재능을 개발시키고 공동의 삶을 실현시킬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작업치료사·교사·심리학자·의사·봉사원·목회자와 같이 직업적으로 위기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역시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수기를 읽다보면 그들의 행동방식을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오늘날 사회복지 영역에서 수행되는 '자립을 위한 도움'의 방식은 (올바로 이해하자면) 고통 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아직 전달하지 못한다. 전문가들도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다면 그들이 돌보아주는 사람들로부터 '자립을 위한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보호자들에게 결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 교제능력이다.

이제 필연적으로 이 책의 각 장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질문, 즉 신학에 대한 질문으로서 인간 삶 속에서의 고통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가기로 하겠다.



Chapter 5

고난과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에 대한 신학적 관점<sup>7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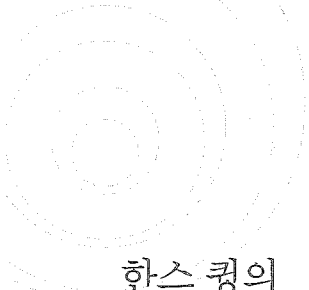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 스스로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형적인 진행단계(나선형 모델)를 인식하며, 그것을 의식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목회상담에서 더욱 중요하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회 종사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실천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자뿐 아니라 보호자 스스로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삶은 이럴 때만이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여러 선례들은 특히 보호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신학적 문제들이 제기됨을 보여준다. 이 글의 목적은 신학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신학적 성찰을 덧붙이는 이유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정신적 도움과 위안을 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바로 신학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답변이 아닌 문제만 제기할 것이다. 연구의 주목적에 따

르면 신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문장들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 쓰인 것인지 또는 누구에게 해가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야 색깔을 얻게 된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신학’이라 불리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알게 된다.

따라서 마지막 장에서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가 보론 형태로 현재의 신학적 접근방식에 대해 소개해보기로 하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엇을 위한 고난과 위기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당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석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목표 그룹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체계적인 논문 대신에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의 언급을 예로 들 것이다. 먼저 가톨릭 시각에서는 1967년 한스 쾨이 쓴 『하나님과 고난』과 1978년 기스베르트 그레스하케가 쓴 『사랑의 대가』를 선택했고, 개신교 시각에서는 1973년 도로테 쥘레가 쓴 『고난』과 1974년 A. M. K. 뮐러가 쓴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를 선택했다. 뮐러는 신학에 대해 논하는 것을 인생의 과제로 본 물리학자이다.

신학적 언급들은 ‘고난 그 자체’라는 문제를 다루지만 그와 달리 위기극복은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오로지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 속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는 능력도 내재되어 있다. 다음의 신학적 해석에 대한 절박한 질문에 모쪼록 관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한스 쿵의

## 『하나님과 고난』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중 한스 쿵(Hans Küng)은 처음으로 인간의 고난을 광범위한 체계적 성찰의 출발점으로 만든 신학자 중 하나이다. 그는 커다란 테두리에서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섯 단계로 설명했다.<sup>73)</sup>

첫 번째 단계에서 쿵은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신학자에게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인(義認)”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이끌어나간다.(p. 7) 그는 이 개념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고전이 된 『신정론』(Theodizee, 1710)의 구상을 포괄적인 ‘우주정론(kosmodizee)’으로 발전시킨 라이프니츠로 시작한다.(볼테르의 소설 『칸디드』는 이미 그 당시에 “최고의 세상”에 대해 비웃은 바 있다.)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적, 물리적, 도덕적 악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고난이 없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라는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p. 13) 쿵은 그에 대한 설명을 라이프니츠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찾는다. 이러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선한 존재로서뿐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세상으로 정당화”하게 만들었다.(p. 12) 칸트는 〈신정론에 있어서 모든 철학적 시도의 실패에 관하여〉(1771)라는 논문에서 신정론을 철저히 비판한 바 있다. 쾨은 한결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신정론이 생각해볼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예리한 논리가 고난을 당하는 인간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실존적인 문제에 적합한가? 신정론은 “고난 속에 절망한 인간이 고난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위안과 힘을 줄 수 있는가? 배고프고 목마른 자 앞에서 위생이나 식품의 화학성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신정론은 고난 받는 자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인가?”(p. 17 이하)

두 번째 단계에서 쾨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예로 들면서 무죄한 고난이 “반란”(제5권, 4장)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난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 번째 단계에서 그는 세계문학사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인 욱기에 묘사된 무죄한 고난과 관련하여 ‘신앙’(p. 19) 문제를 전개한다. 이에 대한 쾨의 논제는 다음과 같다. “고난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극복될’ 수는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p. 25) 쾨은 독특한 방식으로 “신정론을 언급하는” 욱의 친구들을 제시한다. 고난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대는 이들의 정당화 논리는 욱에게 새로운 공격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욱을 더 깊이 “위협한 자기방어”와 분노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p. 26) 하나님은 욱에



게 대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퀴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이론’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관여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  
여 가라사대 ….”(욥 38:1-5)

퀴에 따르면 하나님은 “재판을 걸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서가 아  
니라 지혜와 선함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을 지닌 창조주로” 나타  
난다.(p. 34) 살아 있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욥의 반란은 입을 다문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  
릴 뿐이로소이다.”(욥 40:4-5)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수  
수께끼와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그는  
인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정당화를 통해 하나님까지 부  
당하게 대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p. 35)

퀴는 이러한 해석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구약시대에서조차 논쟁이 된  
욥의 설명을 따른다. 욥이라는 문학작품이 (보다 대중적인 민족설화와 달  
리) 39:31-35나 그에 상응하는 42:6에서 끝난다면 욥의 침묵은 폭군적인  
신 앞에서 입을 다문 인간의 체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창조한 괴물을 자  
랑하는 이 막강한 권력자와는 싸움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소통을 중단한  
다. 이러한 소통의 중단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가? “욥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언급한 도로테 쥘레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한 것일까?(p.  
135 이하) 내 눈엔, 욥이 모두 백 배로 돌려받았다는 나중에 추가된 결론  
은 이 신의 폭군적 특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신은 사탄과 내기에서 이겼  
고 욥은 현금을 상금으로 받았다. 신 앞에서 인간의 고난과 삶은 별 가치

가 없고, 그래서 넘쳐나는 대체물이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인가?<sup>74)</sup>

퀵에 따르면 정당성을 주장하고 또 정당성을 고집하는 행동에는 실수 이상의 것이 내포돼 있다. 그것은 바로 죄이다. 욥은 자기 자신과 논쟁을 벌이기까지 한다. 욥은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와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합리한 근본 태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고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퀵은 “불확실하지만 해방적인 신앙의 모험”(p. 42)이라고 짧게 대답한다. 이는 우리가 욥이라는 인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을 감내한, 고난 받는 신의 종인 욥 뒤에는 “세상의 고난을 감내하고 고난과 죄와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또 다른 고난 받는 신의 종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 30여 년 전에 한스 에렌베르크(Hans Ehrenberg)는 지금은 거의 잊혀진 책(『실존주의자 욥』, Heidelberg, 1952)에서 “우리 시대의 욥의 성숙도”에 대해 언급하며 욥기를 다섯 개의 적당한 대화로 설명했다.<sup>75)</sup> 여기서 에렌베르크는 예컨대 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한다. “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은” (“전능한 자”나 “절대자”를 의미하지 않는)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는가? 왜 하나님은 약속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명령하는가? 하나님은 아들이 마지막 숨을 쉬며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피고인이 된다. 아무도 증명 가능한 신을 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신은 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죄를 감

당하였다!”(p. 16) 또는 “신이 자신에 대한 고발을 관대히 봐주지 않았다면 옅은 무신론자나 염세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p. 36) 이처럼 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며, 이는 우리의 무지를 대가로 치른 것이기도 한다. 양심적으로 이전 성서해석자들의 이름을 명명한 한스 에렌베르크 이래 1945년 이후에 비판적 입장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후 옅에 대한 연사는 거의 반복되었을 뿐이다. 에렌베르크가 존재와 고난으로 위장한 ‘신학’에 대해 꾸밈없는 신앙의 존재로 맞섰기 때문에 여기에 침묵해야 할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일까? 이미 1925년에 대학의 철학적 이상주의와 단절하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한스 에렌베르크는 그렇지 않아도 공식적 신학계로부터 아주 미미한 반향을 얻었을 뿐이다. 그는 1945년 이전에 정치적 추방자로 살아왔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독에서 ‘신학적 실존’을 새로 시작했다.<sup>76)</sup>

‘인간의 의인(義認)’에 대한 네 번째 단계에서 쾨은 다음과 같은 논제를 내세운다. “신과 먼 인간의 의인에서조차 신을 통해 신의 의인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정론이다.” 이러한 논제는 칼 바르트(『교회교의학*Kirchliche Dogmatik*, IV, 1 §61, 특히 pp. 624-634의 탁월한 부분)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여기서 쾨이 의인에서 “자의식과 자기신뢰에 가득 찬 인간들의 잘못된 신정론이 무력하고 죄지은 인간을 오로지 자비심 때문에 변호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정의롭고 자비로운 신으로 정당화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인정론(Anthropodizee)에 자리를 내준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그의 독창적 논제가 아니다.(p. 55)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 위에서 평온한 행복이나 냉담한 초월성 속에

서 군림하는 신에게 나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고난을 계시한 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p. 55) 쾨은 욱기와 유사하게, 욱기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밝혀낸다. 욱에게는 믿음을 바쳐야 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불가해성’만이 나타난다. 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넘어 ‘불가해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 그리고 고난을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자비는 깨닫는 신앙을 가능케 한다. 비록 이러한 깨닫는 신앙이 계속 신앙으로 머문다 할지라도 말이다.”(p. 52)

쾨은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 “고난 속의 자유”(p. 52)라는 개념을 구상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고난 속에서 지켜준다.” 이로써 고난과 위안은 날카로운 가시를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죽음의 공동체 속에서 사는 신앙인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7-14) 따라서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이미 존재함’과 ‘아직 아님’에, 즉 ‘고난과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변증법 속에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의 존재에 속한다.(p. 59) 그에 반해 쾨은 고난을 찾는 십자가의 본받음을 단호히 거부한다.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삶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고난을 본받는다든 것은 “예수의 고난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

하지 않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기독교적 존재의 근본적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p. 60) 신앙인에게 새로운 삶의 마지막 시간은 이미 현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 계신 예수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앙인은 이미 지금 죽어가는 현재 속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쿵은 여기서 고난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분명 고난은 하나의 악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에서 처럼 삶에 대한 의지의 부정을 통해 지양될 수 있는 절대악이 아니다. 절대악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p. 68)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이상이 아니라는(p. 60) 쿵의 문장은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IV, 2, 676/194의 글(십자가의 존엄성)로 아주 잘 설명된다.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간접적 관계임이 분명하게 언급되었다.(특히 p. 678과 p. 680 참조) 같은 책 670쪽에서도 갈라디아서 2:20에 대한 설명이 있다.<sup>77)</sup>

장애인의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넘어가는 일은 어렵다. 이는 오로지 신앙만이 가능하게 해준다. 성찰과 경험 간의 빈틈은 스스로 연대를 통해 (그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에게 멀고도 가깝다.’고 말한다.) 생각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증인’에 의해 메워진다.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보호자가 사랑스러운 증인인 것이다! 고난을 당한 사람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


주받은 개인의 운명과 우리 모두를 통한 신의 처형 사이에 다리가 놓일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떤 장애인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도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의미론적 어려움을 느낀다. 이 어려움은 논리적으로 일단 화가 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것은 결국 ‘믿음’에서조차 실제로 존재하는 악(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질병도)이 ‘설명’될 수도 없고 ‘의미를 상실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도 사회는 장애인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들은 신의 정의에 대한 물음을 강요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해야만 한다. 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건강한 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장애인은 증인이 된다! 장애인은 그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이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난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에 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무한히 많은 고난 ‘그 자체’는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새로운 삶 속에서 의미를 제공한다. 그것은 모든 무의미에 맞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안이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도 존재한다. 고난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즉 십자가로 이해되었다. 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라이프니츠가 주장하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렵פות이 감지한 것이 옴에게서 확인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에게서 실현되

었다. 고난 역시 ‘하나님’에게 포위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통해 ‘지양’된다. 고난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을 알고 있는 것이다.”(pp. 68-69)

킹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에 대해 너무 ‘미화’하거나 그저 정당화하듯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빨리 둔화시켜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불행을 없애주기 위한 도움을 별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괴로운 심정으로 경험한다. 진심어린 격려는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 해링(H. Häring)은 부흐(A. J. Buch)와 프리스(H. Fries)가 펴낸 『인간에 대한 물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물음』(1981, p. 83)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폭력의 편이 아닌 사랑의 편에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난과의 싸움에서 힘은 없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 도로테 쥘레의 『고난』

고난에 대한 도로테 쥘레(Dorothee Sölle)의 성찰은 ‘삶의 찬미자’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거한다. 쥘레<sup>78)</sup>는 나사렛 예수가 천대받고 내쫓긴 자들, 부정되고 스스로를 부정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을 긍정하고 자신의 곁으로 부르심으로써 무한한 긍정을 실천했음을 증거한다. 쥘레에 따르면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또는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모든 고난은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과제를 주는 하나의 도전이다. 하지만 종종 일방적으로 강조되긴 하지만 불가피한 이러한 관점이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Th Wb NT 5, 905, Michaelis, W. 참조)

쥘레는 이러한 생각이 고대의 그리스인들에게서 존재했다고 가정하는 신학적 전통에 따른다. 쥘레는 (주 2 참조)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176행 이하 구절을 인용한다. “제우스는 고난의 형벌(죽음)을 당하자 사유의



길을 명한다.” 그러나 이 번역은 나이첼(Neitzel, H.)에 의해 반박되었다.

(Gymnasium 87, 1980, 283-29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작가를 인용할 필요는 없다.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격언은 여러 문화권에서 예나 지금이나 잘 알려진 격언이다. 이 격언에 따르는 사람은 특별한 신학적 입장이 없어도 그 격언대로 행하면 된다. 이 격언은 다른 격언들처럼 단지 부분적으로만 맞는다. 항상 “제 죄에 재가 넘어”가지는 않는 것이다.

고난과 배움은 기독교 전통에서 항상 (다름 아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요구와 결합되어왔다. 이러한 고난의 경험과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인생의 심오한 차원이 밝혀진다. 중요한 것은 삶 전체를 뜻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쥘레에 따르면 이러한 확고한 행복에 대한 바람이 고난을 ‘가두고’, ‘용해’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본전제를 펼치기 전에 쥘레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외부’로 향한 이 현대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질문은 ‘내부’로 향한 전통적이고 개인과 관련된 질문이 배제되지 않는 곳에서만 의미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 “고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조건하에서 우리를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p. 11)

쥘레는 먼저 극복 가능한 고난을 미화하는 ‘기독교적 마조히즘’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다시 말해 쥘레는 고난을 형벌이나 시험 또는 깨달음이나 교육의 수단으로 해석하고, 고난이 우리의 자만심을 깨뜨리

고 우리의 약함과 종속됨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고난의 최종적 의미가 “우리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위대해진” 신계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비판한다.(p. 29) 쾰레에게 어려움은 사람들이 고난에 부여하는 실존적 의미에 있지 않다. 어려움은 오히려 뒤늦은 ‘신학적 체계화’에 있다. 신학적 체계화는 “아직 이름도 없고 분류되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침묵이 더 잘 어울리는 곳에서 설명하고 말하는 신학자들의 병”이며 “참기 어려운” 것이다.(pp. 29-30) 쾰레는 마조히즘적 단초의 최종적 결론으로서 새디스트적 신의 대응물을 구상한다. 고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논리는 실제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1) 신은 모든 고난을 결정하는 전능한 세상의 조정자이다. (2) 신은 이유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따라 행하신다. (3)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pp. 34-35) 고난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모든 시도는 신을 새디스트적으로 생각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신에 대한 현대의 문제제기가 정당성을 얻는 것은 무죄한 자들의 고난 때문이다. 쾰레는 “인간이 겪는 고난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모든 사람은 ‘무죄’이다.”라고 덧붙인다.(p. 35)

도로테 쾰레의 글 <기독교적 마조히즘 비판을 위하여>(pp. 17-44)는 ‘고난의 기록’으로 시작되어 첫째, 기독교 설교와 논문들이와 관련하여 K. F. Daiber의 『고난이라는 설교 주제』(München, 1978)를 참조하라, 둘째, 당대의 십자가신학에 대한 실질적인 청산작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쾰레는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1979)도 새디스트적

하나님이라는 논제를 대변한다고 비판한다.(pp. 36-38) 몰트만에 대한 쥘레의 비판은 최근 슈트룽크(R. Strunk)에 의해 약간 수정되었다. 슈트룽크는 쥘레가 권위적인 아버지 상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점에서 그녀의 적대자들과 의견을 일치한다. 이는 적어도 함께 고난을 나누는 하나님 의 겸손함을 언급하는 대신 고난을 하나님에게로 돌린다는 기본 입장에서 그렇다. 또한 쥘레는 몰트만이 주장한 바 없는 사항들에 대해 비판을 한다고 한다. 슈트룽크의 이러한 비판은 벨커(M. Welker)가 펴낸 몰트만의 저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관한 논의』(München, 1979)에 대한 서평에 실려 있다.[『개신교 신학*Evangelische Theologie*』 41, 1981, p. 90 이하에 실림됨]

이러한 논쟁으로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고난의 관련성에 대해 개신교 신학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논쟁적인 토론을 진행했는가를 독자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쥘레는 아마도 현재에 더 적합한 “후기 기독교적 무관심”(p. 45)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다. 그녀의 논제는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란다는 것은 죽음을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는 ‘고난스럽지 않음’을 뜻하고 의미상 ‘고난을 감당하지 못함’을 뜻하는 무관심은 이미 하나의 사회적 상태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태에서는 인간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와 접촉 자체를 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난의 경험을 통해 삶의 ‘고난’, 삶의 파토스 자체가 억제된다. 이로써 삶의 기쁨의 강도와 농도

가 감소한다.(pp. 51-52)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 사랑하지 못하리라. 사랑과 고난, 그 누구도 이 둘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네.”라고 중세의 궁정 서사시인 하르트만 폰 아우에(Hartmann von Aue)는 노래한 바 있다. 쥘레는 쾅을 인용한다. “개신교적 그리스도 상을 훼손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무관심의 원칙을 어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pp. 57-58)<sup>80)</sup>

분명 무관심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윙겔(Jüngel)과 에벨링(Ebeling)도 신정론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생겨난 신의 죽음의 신학을 논하면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sup>81)</sup> 감정이 없는 인격의 반대인 고난을 겪지 않는 신은 왕좌를 잃었다. 사방에 무관심이 지배한다.

쥘레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인간들이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명백하게 모순되는 것이다.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바로 인간이 무력하게 내맡겨진 운명에 대한 표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수동적 자세와 도망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수용’에 이르게 되는 고난의 변화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속에서 발견한 ‘힘’을 의미할 수 있다.”(p. 60) 이러한 신학적 사유는 물론 정치적 형태를 취할 때에만 비로소 진실이 될 수 있다.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올바르지 못한 형태는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개인적 소망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특히 베트남의 예를 통해 “아우슈비츠가 아직 끝나지 않았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당시 “베트남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때문이다.(pp. 61-62)

쥘레는 이러한 비판에 이어 “고난과 언어”(p. 79)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한다. 고난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탄식을 통한 소통을 거쳐 변화를 위한 연대로 나아간다. “적극성은 단순히 대응적인 자세를 바꾸며, 무력감의 극복은…구조의 변화에까지 나아간다.”(p. 93) 여기서 쥘레는 탈출구 없는 고난도 포함시키는데, 이 고난은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이는 바로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서로 나누는 전제하에서다. 또한 예배의 의미가 새롭게 밝혀진다. 예배 특유의 표현을 통해 인간은 무관심해지지 않고 자신의 불안과 고난과 행복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p. 95) 기도는 “인간이 무관심하게 견디는 현실의 말 없는 신을 초월하여 고난과 행복을 열정적으로 경험한 현실의 말하는 신에게 나아가는 온전한 행위이다. 예수는 이 말하는 신과 겿세마네 동산에서 대화를 나누었다.”(p. 100) 현대인들에게 예수의 위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난다. 삶에 대한 모든 위협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고 근본적 신뢰를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겿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경험은 파괴 이상의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동의(Einwilligung)의 경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의 잔은 강하게 해주는 잔이 된다.”(p. 109)

쥘레는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꼼꼼하게 성찰한 다음 “수용의 진실”에 대해 결론을 짓는다. “이러한 입장의 강점은 비참한 현실을 포함, 실제 현실과의 관계에 있다. 고난을 받아들인다

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고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는 현실과의 접촉이 점점 더 악화되고 단편화되는 비현실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삶 자체를 거부하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며 불사신이 되지 않는 한 고난을 완전히 거부하기란 불가능하다.”(p. 112) 죽음은 “인간관계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이다.<sup>82)</sup>(윙엘, 『죽음』, 1971) 따라서 신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벌주려는 것인지, 신이 그들을 잊어버린 것인지, 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들을 사랑하는지와 같은 오래된 신정론의 물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날 사랑해?’라는 아이의 질문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성인들은 묻는다. “어떻게 인간이 신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가?”(p. 121) 이로써 쥘레의 기본전제가 반복된다. “삶의 찬미자인 신은 교육적 수단으로서라도 인간의 고난을 원치 않으며 인간의 행복을 원한다.”(p. 136) 따라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의 긍정은 거대한 긍정의 일부분이지, 그 뒤에서 삶에 대한 긍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쥘레는 욕의 경우를 통해 ‘고난의 수용’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것에 굴복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수용이란 바로 극복을 의미하며, 이 극복으로부터 우리는 패배함과 동시에 더욱 강하게 된다.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다. 쥘레에게 중요한 것은 “욕이 신보다 강하다.”는 것이다.(p. 136) 왜냐하면 욕은 자기의 백성을 애굽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이 만난 신은 또 다른 파라오일 뿐이다. 욕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는 대답을 “고난의 제

공자”가 아닌 오로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서 기대하기 때문이다.(p. 148)

〈고난과 배움〉에서 쥘레는 “대리적 의미를 갖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부활은 그 인간이 나사렛 예수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 모두, 즉 전체를 위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이는 “나는 죽지만 살아날 것이오!”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했다. 이로써 침묵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주어졌다. 쥘레는 어떤 신도 아우슈비츠와 같은 비극을 보상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상류계급의 파라오가 아닌 신은 고난을 함께 겪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정당함을 입증했다. 쥘레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pp. 183-184) 고난은 희생자의 수와 학살의 방식을 물음으로써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해진 고난에 대한 인간의 관계와 배움과 변화만이 비교될 수 있을 뿐이다.” 아우슈비츠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정당성은 그 해석이 아우슈비츠의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pp. 179-180) 그러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신은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고, 그 때문에 신도 인간과 함께 괴로워한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밖이나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내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장 〈노예의 종교〉에서는 의식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고난을 통해 모질어지지 않고 더 선량해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지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

한다.(p. 186) 질레는 유대인 여성 시몬느 베유(Simone Weil)의 생애를 통해 고난을 나누는 연대적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베유는 “왜?”라는 질문, 즉 고난의 의미에 대한 탐색을 온 영혼을 뒤덮는 공포로서 경험한다. “이처럼 (신이) 부재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p. 190)

기독교 신앙을 위한 사유형태로서 자연과 역사로부터 예견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부정하는 ‘패러독스’는 불가피하다. “나는 부당함과 파괴와 의미 없는 고난을 본다. 나는 정의와 미래의 해방과 십자가의 밤에 생겨나는 사랑을 믿는다.”(pp. 192-193) 이 과정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한스 알베르트(Hans Albert)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독단론에 대해 논하면서(Traktat über kritische Vernunft, Tübingen, 1968) ‘패러독스’의 개념을 번역화 시도라고 비판한다.(p. 114, 주 27) 십자가와 부활의 상호관계가 언급되는 한(그러나 도로테 질레는 이 표현을 항상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신학자가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로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불가해한 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비확문성을 인정하게 된다.

질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힘입어 죽음을 이겨낸 인간이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와 인간관계의 부재로 인한 죽음 속에는 무의미의 부조리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의 선택, 즉 우리가 ‘냉담하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죽음과 ‘고난’으로서 겪어야 하는 죽음 사이의 선택만이 남아 있다. 부



활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멈추지 않는 영혼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삶 전체를 긍정함을 의미한다.

쥘레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패러독스가 개인의 미래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패러독스가 없다면 미래는 살아남은 자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독교의 신은 중국의 행운의 신이 아니다.”(p. 203) 예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 모두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이 패러독스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쥘레는 목회의 예를 통해 이러한 패러독스가 한 가지 범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 각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넘겨받을 수는 없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슬퍼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섬겨야 한다는 과제를 다른 사람과 함께 해결할 수 없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생산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성인이 된 각 개인에게 남겨지는 것이다.”(pp. 202-203)



A. M. K. 뮐러의

## 『가해자의 도그마의 몰락』

-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뮐러(A. M. K. Müller)의 기본명제<sup>83)</sup>는 고난은 생산적 힘이라는 것이다. 뮐러는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변화란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반대로 고난은 수동적일 뿐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지닌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전제 때문에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고난을 제거하고,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고난이 사라지게 하며, 가해자를 판결함으로써 고난을 심판하고, 또한 죄인들이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고통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의 목표는 고난을 통제하려는 목적에 맞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객관화하는 것이다. 뮐러는 그와 반대되는 대안을 제안한다. 고난은 능동과 수동이라는 상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도그마는 무너져야 하며 그 대신 가해자가 아닌 자들에 의해 그 과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고난의 의미는 행동과 사용 가능성이 아닌 상호작용과 사용 불

가능성이 우선권을 갖는 곳에서 비로소 밝혀진다.”는 것을 뜻한다.(p. 311. 쥘레, 『고난』, p. 11을 참조하라.) 구조적, 개인적 교차 작용의 혼합인 상호작용은 ‘연대감’이 살아날 때 생생한 인식을 위해 생산적일 수 있다. 이때 연대감은 한 그룹의 학습 목표일 뿐 아니라(리히터를 참조하라.) 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의, 즉 개인의 활발한 관계이다.(p. 312) 필러는 생존위기에 처한 고난의 의미를 첫째, 개인의 전기, 둘째, 과학에서 집단적 인식의 변혁, 셋째, 인류의 위기에 이르는 3단계로 구분한다.

필러는 첫 번째 단계인 개인적 삶에서의 고난을 재판과 의학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고난이 판사와 의사에게서 각기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는 아주 특정한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피해자 또는 병자)은 “대신할 수 없는 내면적 과정”을 겪게 되며, “행위자”(판사 또는 의사)는 “대신할 수 있는 외면적 과정”을 겪게 된다.(쥘레의 책 p. 11과 p. 179 이하 참조) 필러의 논제는 인간의 고난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난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자신에게서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의 산상수훈에 따라 고난 속에서만 새로운 통찰로부터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는 내면적 극복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p. 313) 이처럼 내면적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필러는 쥘레와 똑같은 기본입장을 성찰의 중심에 놓는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 관계 같은 내면적 치유과정은 언제나 하나의 도전이다. 그것은 기존의 행위자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담당 의사에게 ‘대신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에 대해 일부 포기할 것을 요구

하며, 그럼으로써 ‘대신할 수 없는’ 당사자의 입장을 요구한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면, 환자는 자기수용과 대신할 수 없는 고난의 전제조건인 수용을 경험하게 된다.(pp. 314-315)

예수의 고난은 예수가 고난의 과정을 다르게, 즉 철저하게 “내면적 관계”로 인식했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다.(p. 316) 예수의 증거에 따르면 고난은 그것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난을 만들어내지 않고, 고난을 당한 자 스스로에게서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생산적이며 변화의 힘이 된다. 고난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인식을 열어주며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이기도 하다. “고난을 개념적 재해석으로서가 아닌 고난으로 견디며 그 안에서 충격을 경험하는 자만이, 무의미한 고난이 갑자기 새로 주어진 미래로 바뀌는 인식의 차원으로 들어선다. 이러한 경험의 직접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념적으로도 ‘문제시되지’ 않는다.”(p. 317) 이러한 의미에서 러시아의 물리학자인 사하로프(A. D. Sakharov)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실험을 막지 못한 뒤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그날 나를 짓누른 무력감과 공포는 평생 내 기억 속에 남아 나를 상당히 변화시켰고 그리하여 지금의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p.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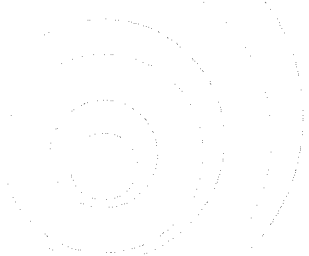
생존위기에 처한 고난의 의미에 대한 성찰의 두 번째 단계에서 떨리는 과학에서의 집단적 인식의 변혁으로 넘어간다. 여기서도 고난은 위기에 처한 과정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p. 318) 사례연구를 통해 “일반 과학”의 긴 시기와 “과학적 혁명”의 짧은 격변을 구분해야 함을 보여준 쿤을 언급하면서 떨리는 바이체커(C. F. v. Weizsäcker)를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위기가 먼저 일어난다. 그러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결코 단순히 외면적 모방만을 하는 경험을 통해 무너지지는 않는다. …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무너진다.”(p. 319) 밀러는 여기에서도 위기가 주요 경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자칭 안전한 ‘외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결정되기 전에 일어나는 위기 속에서 거대한 불안의 ‘내부’로 편입되고 거기서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형된다. 과학의 위기 속에서 내부와 외부가 이처럼 혼합되는 현상을 관련 연구자들은 폭풍과도 같지만 무력한 삶의 한 단계로 경험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단계는 ‘대단히 창조적인 모든 과정의 조건’이기도 하다.”(p. 319)

밀러에 따르면 그 결과 우리가 위험하지만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존재하는 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함을 의미한다.(p. 320) 위기는 보통 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즉 위기는 고난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다. 위기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으로부터 도망친다는(달아나려 한다는 것을-저자 주) 사실과 이를 통해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간이 자신의 인식을 영구화한다는 것을, 즉 존재의 근본적인 무상함을 부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밀러에 따르면 여기에 바로 이론이 만들어지는 동인이 있다. “이론은 시간을 붙잡아 ‘방부처리’하여 냉동시키는 행위를 통해 시간을 영구히 복종시킨다.”(p. 321) 그에 반해 밀러는 고난에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 이미 추상적 개념의 (그야말로 사유 전체의) 무(無, 부재)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사유의 피안성을 구체화하고 그럼으로써 예상치 못한 인식의 또 다른 고원(Plateau)에서 새로운 사유를 가

능케 하는 심연으로 인도한다.”(p. 321) 이러한 생산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존의 사유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총체적 위기 속의 고난이 분석된다. 필러에 따르면 우리는 처음으로 인류의 총체적 생존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고원이 발전단계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연적 상태에 대한 미래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이 문제시된다.”(p. 322) 여기서 필러는 고난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한다. “기나긴 역사 과정에서 외부세계를 객관화하려는 경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고난의 의미일까?”(p. 323) 대안은 “근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에게” 약속된다. 산상수훈은 이들을 ‘온유한 자’라고 일컫는다. 인간적 상황이 마련된 미래를 견인하는 이들의 잠재력은 “고난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다. 따라서 고난의 의미는 열려진 시간의 힘과 일치하지만, 이는 고통이 없는 인식의 마지막 고원을 떠나는 대가를 치르고서만 가능한 것이다.



## 기스베르트 그레스하케의

### 『사랑의 대가』

#### —고난에 대한 성찰

사랑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기스베르트 그레스하케(Giesbert Greshake)<sup>84)</sup>의 주요 명제는 제목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해될 수 있다. 서문에서 밝히듯 신학적 성찰은 유연할 수도 있고 엄격할 수 있지만 증명은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실천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레스하케는 4장으로 구성된 저서에서 두 가지 질문을 다룬다. 첫 번째 질문은 신학적, 추상적 질문이다. “고난과 신의 문제—시대에 뒤진 물음인가?”(1장)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제2장 〈창조와 고난〉에서 다루어진다. 두 번째 질문은 실존적, 구체적 질문이다. “대가가 너무 큰 것인가?”(3장)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제4장 〈고난의 극복〉에서 다루어진다.

“고난과 신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그레스하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한다.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인간의 근본

적 물음은 언제나 오래된 신정론의 문제를 부활시킨다.” 쾨퍼와 차르트(Zahrnt)<sup>85)</sup>와 마찬가지로 그레스하케도 이러한 질문이 오늘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욕기서를 재발견한 입장은 세상의 고난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차없이 의심했다. 그레스하케가 밝히고 있듯 쾨페는 전통적 신정론의 해석을 가장 급진적으로 비판했고, 이는 나치의 만행에 대한 신학적 대답이기도 했다. 그레스하케는 예컨대 사회학자 베르거(Peter L. Berger)에게서 이런 점을 아쉬워한다.(p. 13)

‘신정론’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신은 고난과 악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쾨페의 입장이나 반대 입장에 똑같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신이 고난의 원인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 ‘철학적’ 출발점이 신 자신의 말씀(칼 바르트)이 아닌 다른 곳에 원인에 있기 때문에 신학적 대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로 볼 때 ‘신정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어떤 신학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신정론이 아니라면 그 다음엔 무엇이 중요한가? 신학은 오늘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론적 대답이 일반화되어왔다. 즉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에 놀라운 영광을 약속한” 예수의 삶과 죽음 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냉소적인 위로가 아닌가?(p. 24 이하) 그레스하케는 독특한 접근방식으로 서로 상이한 전통적 사상들을 연결시키면서 동



시에 현재 인간의 기본입장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고난을 참아서는 안 된다. 고난은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p. 26)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고난의 원인을 신에게서 보는 입장(쥘레, 『고난』, p. 37)은 신을 새디스트로 생각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을 그레스하케는 쓰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유신론(p. 13)에 대한 쥘레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아가 “신정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비판한다.(pp. 14-19) 쥘레와 같은 의견임에도 불구하고(p. 16 이하) 그레스하케는 ‘몇 가지 의문’, 특히 성찰과 경험을 구분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사고’와 ‘경험’을 엄격히 분리해서는 안 되며 ‘경험’을 ‘이성’과 무리하게 구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분명 옳다. 신앙의 일부이기도 한 신학적 성찰은 명백한 이유를 밝힐 수 있고 이론으로서 실제적 해결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p. 22)

‘창조와 고난’이라는 그레스하케의 구상은 물론 그 자체로 또는 전통적 요소를 지닌 신정론적 시도의 흔적을 보여준다. “신의 전능”, “신의 정의”,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라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쥘레의 비판(『고난』, p. 35)은 그레스하케의 구상에도 해당될 것이다. 그레스하케는 본질에 있어서 고난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난,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내게 가하는 고난이다. 두 번째 고난은 주어진 현실구조에서 비롯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창조에서 비롯된 고난이다.(p. 24) 그 뒤에는 라이프니츠가 언급한 바 있는 악의

세 가지(형이상학적·물리적·도덕적) 방식이 단순화되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고난을 주관적, 객관적 공간으로 다소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고난, 즉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 고난에는 인간 스스로의 책임이 있다. 그것은 죄에서, 우리 인간과 전 인류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다.(p. 39) 인간의 자유를 창조한 전능한 신에게 고난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전능한 신의 개념을 신이 원하는 신의 의지와 관련시키지 않고 무한한 능력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레스하케의 비판은 전능의 개념에 모든 것을 요구한, 예컨대 신은 삼각형 원이나 나무로 된 철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p. 28) 스킨라적 후기 교의학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의 권능은, 특히 전통적 신학에 따르면 무모순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권능의 힘으로 피조물의 자유를 만들고 동시에 고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레스하케의 논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신이 피조물의 자유를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고난의 가능성도 함께 주어진다.”(p. 29) 그는 몸과 마음의 고통에까지 파고든 과도한 고난이 비로소 죄란 무엇인지, 죄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지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p. 38)

여기서 많은 부분이 칼 바르트를 연상시킨다. 시사하는 바가 많은 바르트의 설명(『교회교의학』 II, 1, pp. 590-605)은 전능한 신의 신학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스킨라 철학과 구개신교 교의론자들에 대한 논

의에서 전능한 신의 한계로서의 무모순성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신은 무차별적으로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에게 (따라서 진정으로) 가능한 것만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신의 전능함의 한계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전능함을 신의 진정한 전능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 ‘불가능의 가능성’과 무력의 힘이 신에게 낫설고 신의 본질과 행함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바로 이 점에서 전능함은 모든 것 속에,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진정한 권력인 것이다.”(p. 599) “우리는 정말로 다음의 사실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 신과 신 혼자만이 최종적으로 (이로써 그는 그 자신이다!) 그 자신에게, 또한 모든 것에 대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관리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은 전능하다. 신을 증명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자신에게 그리고 창조된 세계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p. 601)

첫 번째 고난이 피조물의 이면으로서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것인 반면, 두 번째 고난인 ‘구조적 고난’은 인간의 자유와 죄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이미 세상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고난은 창조 자체에 숨어 있다. 이전의 신학은 이러한 ‘물리적’ 고난의 원인을 ‘도덕적’ 고난, 즉 죄에서 찾기 때문에 모든 ‘객관적’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로 나타났다.(p. 39 이하) 이는 물론 오늘날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죄의 객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레스하케에게 놓인 어려움은 ‘구조적’ 고난을 신학적으로 극복하는 데 있다. 그는 ‘종말론적 대답’을 ‘피상적인 철학적 성찰’로서만 인정할 수 있다. 그 대신 그는 구조적인 고난을 생산하는 세상의 ‘내적 의미’를 찾는다.(p. 39 이하)

그레스하케는 고난이 진화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라는 테야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의 생각에 관심을 보인다. 이미 인간 외적인 발전에서 자유는 옛날부터 대가를 치러왔다. 시험과 행운뿐 아니라 노동과 노력도 자유를 촉진시킨다. 삶은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행되고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한 번의 성공이 있다. 물질의 초기단계에서는 구성적 결여나 혼란스러운 물리적 질서가 나타난다. 또 다른 대가는 예민한 육체의 고통이며, 악의 또는 스스로를 탐구하고 선택하는 정신의 고통이 한층 높게 이어진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진화의 모든 단계에서 악은 끊임 없이 생겨난다!”(p. 45)

따라서 그레스하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자. 암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진화가 자유의 초안(Vorentwurf von Freiheit)으로서 완성된다는 사실, 즉 진화는 확정되거나 필연적이거나 고정되지 않은 채 유희와 가능성의 시험과 우연적인 것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는 논거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신이 인간의 자유를 신과 피조물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원한다면 그리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신의 뜻에 맞는 세계에 속해 있다면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외피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되던 구조적 고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p. 46)

이렇게 신은 인간의 자유를 사랑의 조건으로 의도했다. 그리고 인간은 그에 맞춰진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자유는 필연적으로 구조적

고난이라는 부정적 외피를 가질 수밖에 없다.(p. 46) 따라서 고난은 선한 창조자를 부정하는 데 이용될 수 없다. 고난은 오히려 자유의 대가, 사랑의 대가이다. 고난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모순이다. 권능의 힘으로 이를 원하는 신은, 즉 고난을 막아주는 신은 사랑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과거에 행해진 ‘신의 의인화’ 흔적이 너무 많이 감지될 것이다. 그레스하케가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아니다. 신은 절대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p. 51) 그렇다면 대가가 너무 높은 것인가? 그레스하케는 이전의 신학자들처럼 고전적인 욕의 예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알료샤를 언급한다. 그는 쥘레와 함께 시몬느 베유도 반항자 대열에 포함시킨다. 그레스하케는 최근의 해답 뒤에서 이 세상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신에 대한 수용 또는 저급한 일에 관여하면 창조주의 지위가 위협받는다 고 보는 신의 개념을 추측한다.(p. 52 이하) 죄에 뿌리를 둔 고난과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난이 생겨나는 것은 죄가 있는 세상에 당연한 일이다. 그에 반해 자발적으로 짊어진 고난, 즉 연대하여 함께 나누는 고난은 죄와 죄에 연루됨을 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고난은 따라서 사랑에서 비롯된 고난이 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고난이 된다. 그레스하케에 따르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음으로써(히 2:18)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 “아들의 십자가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인 부활은 모든 고난의 종단을 알리는 시작이다.” 그리하여 신은 사랑을 위해 고난에 ‘높은 대가’를 치렀다. 넓게는 인간의 모든 고난이 신의 사랑 안에 숨을 수 있고 또한 신이 함께 고난을 감당함을 통해 고난과 싸울 힘, 견

덜 힘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할 힘을 얻게 되었다.(p. 57)

끝으로 그레스하케는 '고난의 극복'에 대해 언급한다. "고난은 완전히 극복된다."는 문장은 종말론적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최종점으로서) 종말과 관련된다. 이 문장은 또한 완성은 이미 그 행위 자체에 있으며 실현하는 가운데 조금씩 드러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지금 고난을 함께함으로써 사랑을 행하는 작은 걸음이다.

그레스하케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소개한다.

—'개인적 참여와 사회적 개혁과 그리고 특히 함께함을 통한' 고난의 퇴치(p. 61)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파괴적 공격성과 체념에 이르는 고독에 맞서 견디기. 이로써 고난은 생산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뮐러를 참조하라.) 그레스하케는 이와 관련하여 바울의 말씀을 인용한다.(고후 4:8, 6:9)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수기에서 긍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고난은 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과 고난을 분담함으로써 견딜 수 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인간은 삶을 살지 않은 것이다."(퀴블러-로스) 아무런 대가 없이 고난의 특정 형태를 피하는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쥘레, 『고난』, p. 67 이하)

—경건한 기도 속에 신의 현존과 행하심에 시각을 곤두세운 자에게만 보이는 은밀한 기도의 응답은 기대와 예상을 뒤엎는 기적이 될 수 있다.(p. 69 이하)

그레스하케의 마지막 논제는 다음과 같다. “신은 악과 고난을 허락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피조물의 자유와 인간적 사랑의 불가피한 이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은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 사랑으로 고난을 변화시키고, 현재는 부분적이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이러한 고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p. 70 이하)<sup>86)</sup>



## 신학에 대한 고찰과 질문

고난에 대한 신학적 입장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고난이론(또는 고난이론을 다루는 방식)이 거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 신학적 견해에 따르면 그들은 익숙한 신학자들의 주장을 포기해야만 할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게르슈텐베르크(E. Gerstenberg)와 쉬라게(W. Schrage)의 『고난』(1977)을 참조할 수 있다. <신의 의지>라는 장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월한 하나님의 뜻’이다. 책임이 주어질 때 신은 ‘새디스트’ 혹은 ‘사형집행인’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린다.(질레) 게르슈텐베르크와 쉬라게는 이러한 결론을 피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고난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pp. 204-207)<sup>87)</sup>

결론으로 게르슈텐베르크와 쉬라게는, 신약은 “전체적으로 고난 그



자체를 주제로 삼은 적이 없다.”고 요약한다. 현재의 기독교교의학에서 고난이라는 표제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했듯, 우리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고난에 직면하여 제각기 하나님의 무력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원칙적으로 우월한 자로서 행한다. 하나님의 고난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고난도 쉬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와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의 태도 때문에 끝없이 괴로워했다단 말인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동정심이란 말인가?

고난은 이제 모든 관계를 상실함에 대한 절망, 완전한 절망으로서의 외로움이라는 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인간과 만난다고 알린다. 심지어 절망도 믿음을 경험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고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존재를 경험한다. 이상하긴 하지만 버림받은 자들은 믿음 속에서 돌봐주는 인간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다. 전기와 수기들은 가까운 신의 존재와 (불완전하긴 하지만) 인간적 돌봄이 어우러진 보호가 위기 시에 결정적 경험이 되었음을 증명해준다.

필자는 위의 저자들과 같은 신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문외한으로서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 깊고도 광범위한 구상에 매료되었다. 이

구상은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과 함께한 고난의 경험을 비취준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다. 예컨대 수기에서 언급되는 보호와 돌봄이 어우러진, 누구나 갖기 힘든 경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필자에게는 몇 가지 의문이 생겨났다.

- 관계의 두 가지 차원을 결정적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난의 신학’을 구상할 수 있는가?
-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관계능력은 신학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어떠한 인간의 상반적 힘이 이러한 능력을 막도록 하는지 신학은 성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도 물질적 가치와 노동과 업적을 과대평가하는 시대적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인간 삶의 차원을 위협하는 모든 학문이 비롯되는 사고의 창조적 힘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 학문성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족한 관계능력의 차원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다른 학문의 파트너인 신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교육학에서는 학문화를 통해 삶의 근접성에 대한 결핍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삶의 근접성을 다루는 방식은 아직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문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삶에서도 계속해서 상

실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은 다름 아닌 고난과 고난을 함께하는 조건 속에서 성장하고 강화되는 것 같다.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수기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자신의 결핍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하고 ‘생활력 있는’ 사람들에게게서는 보기 힘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농도를 인식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위기를 함께 건디는 일은 마태복음 25:34-40의 말씀처럼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나긴 길이다. 고난을 당한 사람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이 똑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이 그러한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지, 중대결정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게르타 샤프페노르트(G. Scharffenorth)의 “루터의 신학에 대한 연구”<sup>88)</sup>는 최근 인간관계와 관계능력의 의미에 대한 개혁적 인식을 다시 일깨워주었다.

오늘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난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이나, 그들의 버림받음은 신학의 상실, 즉 인간의 관계능력에 내재된 근본적 의미를 간과하거나 봉쇄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우리 삶 속에서 배움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경험의 ‘나선형’, 즉 외부의 공격 및 내면의 자기 파괴적 힘과의 싸움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뒤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과 수기 저자들이 얻은 깨달음이다.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항상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이 고난에 대한 구상에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자문해본다.



**나선형-마음여행의 상징**

시원의 예수, 인식의 나선형 정상에 예수가 앉아 있다.

베르나디노 부티노네(Bernadino Butinone), 이탈리아, 15세기



Chapter 6

## 요약과 결론



이 연구는 경험자들의 자료와 이론적 성찰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말하자면 ‘고통을 당한 자’의 시각에서 신앙과 목회상담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먼저 총 2,000여 개의 수기에 나타난 경향들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중심적인 근본경험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 첫 번째 경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객체로서 수동적 상황에 몰렸다고 느낀다. 이들이 신과 관계하며 목회상담 시 스스로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체라고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 ◎ 두 번째 경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이들의 위기를 ‘위로’하며 ‘미화’하는 것으로 느낀다. 고통에 대해 비판적으로 설명하면서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 ◎ 세 번째 경험

상담자는 직접 위기를 경험한 파트너이자 고통의 분담자라기보다는 직업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전문가로 느껴진다.

이 연구는 이로부터 첫 번째 논제를 전개시켰다.

- 고통을 당한 사람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은 교회와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 뒤에도 신앙의 긍정적인 경험에 의지한다.

제2장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인 인간적 보호의 차원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필자가 8단계 나선형 모델로 발전시킨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을 이상적 형태로 소개했다. 여기서는 2,000여 개의 수기를 분석한 결과, 즉 고통을 당한 사람 중 3분의 1만이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단계인 고통의 수용(6)을 거쳐 사회통합(연대, 8)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반면 3분의 2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초기 또는 중기단계에서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고립을 겪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신앙과 인간적 보호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논제가 생겨났다.



- 기독교 신앙은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고발하는 가운데 카타르시스로 인식된 공격성(3)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기독교 신앙은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위기와 고통을 신이 부과한 것으로 무조건 긍정하면서 ‘순종적으로’ 받아들일 힘을 준다. 둘째,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당한 자들로 하여금 고통과 위기를 향해 공격성(3)을 분출하도록 해준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며 공격성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으로써 긍정적 수용 능력(6)을 얻도록 공격성에 먼저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의 ‘비판적이면서도 호의적인 반응’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답변에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공격성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당한 신앙인들은 위기에 혼자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읽어주는 하나의 대상을 갖는다. 신앙인들은 공격적(3)으로 탄식을 할 때도, 신과 협상(4)할 때도, 끝으로 우울증(5)에 시달릴 때도 하나님이 받아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제3장은 신앙과 인간적 보호가 갖는 의미를 여러 자서전의 예를 통해 보여준다. 여기서는 후천적 소아마비(지체장애), 후천적 우울증(심리장애), 후천적 시각장애(감각장애), 정치적 박해, 선천적·후천적 뇌손상(정신장애), 암(만성질환), 버림받음과 같은 위기와 고난의 여러 종류와 함께 순진하면서 냉담한 반응과 비판적이면서 호의적인 반응 같은 상이한 신앙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직접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적절하거나 잘못된 또는 부족한 담당자들의 보호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1980년에 처음으로 『자전적 경험과 학문적 이론』, 『사회 통합』 제1권 그리고 『평생교육-위기극복』과 『위기관리』 제2권(그중 1권의 p. 28 이하, p. 209 이하, p. 282 이하와 2권의 p. 367 이하 및 p. 687 이하를 참조하라. 개정증보판. Bielefeld, 2003, 참고문헌과 DVD 포함)에 소개한 바 있는 필자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뒷받침해주었다.

-직간접적으로 위기를 맞은 사람이 사회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과 상관없이 위기극복의 전 학습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첫 번째 기본전제가 옳다는 것이 모든 수기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간접적으로 위기를 당한 사례로 정신지체아의 부모인 펄빅, 괴레스 부부와 루트 뮐러-가른의 예를 소개했으며 직접 위기를 경험한 사례로는 로렐 리(암에 걸려 버림받음)와 루이제 하벨(지체장애)과 베버-가스트 부부(심리장애)와 자크 뤼세랑(감각장애와 정치적 박해)의 예를 소개했다.

-기독교 신앙은 공격성(3)을 카타르시스로 풀어내고 위기를 수용(6)하게 하는 힘이라는 두 번째 기본전제가 옳다는 것도 거의 모든 수기 저자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상이한 두 가지의 신앙태도가 나타난다. 루트 뮐러-가른은 신이 부여한 위기와 고난을 무조건 순종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의 순진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의 수난을 긍정하는 신앙적인 공감을 통해) 의심의 싹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많은 수기 저자들은 구약의 읍처럼 비판적이면서 호의적

인 반응을 보이며 싸워나간다. 루이제 하벨, 베버-가스트 부부, 자크 뤼세랑, 피레스 부부, 로렐 리가 그 전형적 예에 속한다.

—카타르시스로서의 공격성이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세 번째 기본전제는 루이제 하벨의 어머니를 통해 다시금 입증되었다. 루이제 하벨의 어머니는 ‘장애아를 지닌 삶’을 수용하지 못한 채 삶을 끝내고 말았다. 공격성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을 중간단계에서 중단하고 마침내 자살을 택했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한 공격성이 내부로, 즉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기 때문이다.(2,000여 개의 수기 저자 중 3분의 2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결과를 참조하라. 이들은 모두 죽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한다.)

—네 번째 기본전제는 상담이나 인간적 보호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위기극복의 학습과정이 중간단계에서 중단되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위기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적절한 보호가 수반될 경우 최종단계인 사회통합에서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체 수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루이제 하벨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상담의 예를 보여준다. 베버-가스트 부부는 배우자 치료의 예를 보여주며, 자크 뤼세랑은 부모의 보호와 친구 제레미의 보호를 고통의 경험에서 ‘수용의 현실’로 묘사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크 뤼세랑도 다른 사람을 돕는 후원자가 되었다. 로렐 리는 버림받은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의 힘을 고백한다. 루트 뮐러-가른에게는 피레스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담을 해주고 돌보아주는 후원자가 없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상담이란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아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신앙이 주요 버팀목이 되었다는 점은 모든 수기에서 증명된다. 덧붙여야 할 것은 저서 목록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점과 나아가 질문의 대상인 신앙과 상담의 문제는 확정하거나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독교 존재는 모험이자 비밀(!)로 남게 된다.

제4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상담자 역할에 주목하면서 보호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귀납적으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과 아직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 서술한 글들을 소개했다. 아직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중심 문제는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하여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세 번째 논제에 이른다.

-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즉 ‘아직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엔 연역적으로 학문분야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입장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슈미트바우어의 봉사자 증후군, 건강한 자들의 병에 관한 브로히의 논제, 비장애인이 오히려 짐적 존재가 된다는 피셔의 반전, 리히터의 불안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 폴트만의 능력 있는 자들의 냉담한 사회, 끝으로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의 상대적 정당성에 대한 바이체커의 이론, 이어서 이를 통해 가시화되는 인간행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식, 즉 사회적·인간적 해석과 죄와 관련된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네 번째 논제로 이어진다.

-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동체와 사회가 하나의 도전이듯, 아직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와 사회는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제5장에서는 고난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알아보기 위해 보론 형태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 접근방식을 소개했다. 신학자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한다. 그러나 기독교 존재의 현실을 보여주는 해석방식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아쉬운 점은 ‘진행형’에 대한 모든 설명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적 보호를 관련시키는 시각, 즉 신의 선물로서 관계능력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스 쾨은 진정한 신정론으로서의 인정론에 대해 언급한다. 인정론에서 신 자신을 통한 신의 의인은 신과 거리가 먼 인간의 의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한 인간은 이러한 의인으로부터, 즉 신과 멀어지는 ‘무조건적인 고난’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조건적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 이는 삶을 상당히 추상화시키는 표현이다.

도로테 쾨레는 고난과 배움을 관련시키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요구를 옹호한다. 쾨레는 이를 침묵에서 나와 언어(외침과 탄탄)를 거쳐 행동에 이르는 고난의 언어화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마조히즘과 탈기독교적 무관심을 단호히 거부하고 고난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함께 행동하자고 호소한다.

A. M. K. 뮐러는 고난을 생산적 힘으로 발견한다. 그는 가해자의 도그마를 전복시키자는 입장이다. 즉 고난만이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변화하는 ‘대신할 수 없는’ 불가피한 내면적 과정 대신 외부적 과정을 통해 ‘대신할 수 있는’ 고난을 무너뜨리자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절망의 바닥으로부터 다른 인식의 수위에 자리한 새로운 사유에 이르는 사유의 피안성이 가능해진다. 뮐러는 바로 여기서 위기에 직면한 인류의 이론적인 생존기회를 발견한다.

기스베르트 그레스하케는 고난이 자유의 대가이자 사랑의 대가임을 증명한다. 그로부터 ‘인간이 유발한 고난’과 ‘구조적 고난’이라는 두 가지 고난이 인류 진화의 부산물로서 설명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고난이 인간의 죄에 그 원인과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왜, 그리고, 어디로부터 생겨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관관계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무엇 때문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고난을 당한 자와 신의 만남 속에서 그 의미를 밝혀줄 수 있다. 이는 평생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보호자의 후원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보호자는 고난을 함께할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위기극복의 특정 단계에 (특히 공격성과 협상과 우울 단계에) 일시적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담이나 위안이 되는 성경 말씀 혹은 신학적 논거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해준다. 이러한 것들은 중간단계에서는 별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주 특이한 현상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보호자들이 곁에서 함께하며 돌보아주고, 보호자적 태도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약함과 문제를 숨기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위기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견상의 약함을 통해 보호자는 조용히 연대하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싸우고 원망하는 인간을 인내하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공통적인 경험을 알려서 그들이 절망적인 외로움에서 빠져 나오게 해야 한다. 보호자와 고난을 당한 자 모두 인간과 어둠을 함께 하는 하나님의 승인을 경험한다.

상담을 하는 보호자의 역할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호자가 (혼자 리드하지 않고, 부차적 역할에 머물면서) 돌봄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앞이나 뒤가 아닌 옆에서 함께 걷기
- 도움의 방법이 언제 방해가 되고 언제 용기를 주며 또한 언제 상처를 주는지 분별하기
-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기
- 고난을 당한 사람과 돌보아주는 보호자가 약함 속에서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기

- 1) KUSHNER, Harold: *Wenn guten Menschen Böses widerfährt. Wieso läßt Gott Ungerechtigkeit zu? Hilfe in seelischer Not, in Unglück, bei Schicksalsschlägen, Krankheit und Tod.* Tomus Verlag, München 1983, 143 S. 영어 원제: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Schocken Books, New York 1981.

HAN, Suyin: *Nur durch die Kraft der Liebe. Ein autobiographischer Bericht.* Albrecht Knaus Verlag, München, Hamburg 1987, 220 S.

KLEMM, Michael; HEBELER, Gerlinde; HÄCKER, Werner (Hrsg.): *Tränen unterm Regenbogen. Phantastisches und Wirkliches. Aufgeschrieben von Mädchen und Jungen der Kinderklinik Tübingen.* Attempto-Verlag, Tübingen 1989, 1991<sup>7</sup>, 236 S.

JONAS, Hans: *Der Gottesbegriff nach Auschwitz. Eine jüdische Stimme.* Suhrkamp Taschenbuch 1516, Frankfurt/Main 1984, 1987<sup>2</sup>, 48 S.

BONHOEFFER, D.: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München 1963.

- 2) ÖKUMENISCHER RAT DER KIRCHEN, ÖRK (Hrsg.): *Bericht aus Nairobi 1975.* Frankfurt 1976, S. 23-38.

- 3) ÖKUMENISCHER RAT DER KIRCHEN, ÖRK (Hrsg.): »Im Zeichen des Heiligen Geistes«-Berichte aus Canberra. Frankfurt 1991, 367 S.

ÖRK (Hrsg.): »Gathered for life«. Berichte aus Vancouver. Frankfurt 1984.

ÖRK (Hrsg.): *Partners in life.* The handicapped and The Church. Faith and Order Paper No.89, Genf 1979. 독일: Müller-Fahrenholz, Geiko (Hrsg.): *Wir brauchen einander.* Frankfurt 1979, S. IX.



- 4) LUTHERISCHER WELTBUND, LWB (Hrsg.): *»Ich habe das Schreien meines Volkes gehört«*. Offizieller Bericht der VIII. Vollversammlung Curitiba/Brasilien. Kreuz Verlag, Stuttgart 1990, 256 S.  
LWB (Hrsg.): *»In Christus Hoffnung für die Welt«*-Report 1984. Genf, Stuttgart 1985, S. 214ff.
- 5) HABEL, L.: *Herrgott, schaff die Treppen ab!* Stuttgart/Berlin 1978, S. 167-170.
- 6) HÄMER, P.: *Rehabilitation von unten*. Der Platz der Körperbehinderten im Aufgabenfeld der Kirche. Mainz 1978, S. 11.
- 7) HABEL, L.: a. a. O., S. 65/66.
- 8) ZAHRT, H.: *Warum ich glaube*. Meine Sache mit Gott. München 1977, S. 320.
- 9) SCHLETT, C.: ... *Krüppel sein dagegen sehr*-Lebensbericht einer spastisch Gelähmten. Wuppertal-Barmen 1970, S. 72/73.
- 10) LEGRIX, D.: *Und doch als Mensch geboren*. Freiburg 1963-Berlin 1977. 프랑스어 원제: *Née comme ça*. Paris o. J., S. 57.
- 11) MIQUEL, A.: *Warum mußt du geben?* Freiburg 1971. S. 88.
- 12) WEBER-GAST, I.: *Weil du nicht geflohen bist vor meiner Angst*. Mainz 1978, S. 34.
- 13) HÄMER, P.: a. a. O., S. 12.
- 14) BROWN, C.: *Mein linker Fuß*. Berlin 1970, 1978<sup>8</sup>, S. 102. 영어 원제: *My left Foot*, o. J., m. E. 1954.  
DERS.: *Ein Fuß voll Leben*. Bern, München und Wien 1974, 1975<sup>2</sup>. 영어 원제: *Down all the days*. 1970.
- 15) HÄMER, P.: a. a. O., S. 52.
- 16) WEBER-GAST, I.: a. a. O., S. 34.
- 17) GÖRRES, S.: *Leben mit einem behinderten Kind*. Mit einem Nachwort von GÖRRES, A. Zürich/Köln 1974, S. 129/130.
- 18) MEISINGER, E.: *Über die Schwelle*. Aufzeichnungen einer spastisch Gelähmten. Berlin o. J., m. E. 1957, S. 74ff.
- 19) DIAKONISCHES WERK DER EV. KIRCHE IN DEUTSCHLAND, EKD (Hrsg.), *Hilfe für Behinderte*. Zweites Schwerpunktprogramm der Diakonie.

Jahrbuch '75. Stuttgart 1975.-DASS. (Hrsg.) von 13 Broschüren, u. a.:

- *psychisch krank*. Psychisch Kranke brauchen Verständnis, Förderung, Annahme und Begleitung. Stuttgart 1976.
- *sinnesbehindert*. Sinnesbehinderte brauchen des anderen Auge, Ohr und Hand als Brücke zum Leben. Stuttgart 1977.
- *körperbehindert*. Behinderte Menschen unterwegs aus dem Abseits zur aktiven Partnerschaft. Stuttgart 1977.
- *geistigbehindert*. >Gemeinsam leben< mit geistigbehinderten Menschen muß durch Zuwendung, Ermutigung und Begleitung verwirklicht werden. Stuttgart 1978.
- *lebensgestört*. Evangelische Familien- und Lebensberatung hilft Menschen in Krisen und Beziehungsstörungen, ihr Leben neu zu entdecken. Stuttgart 1979.

DASS. (Hrsg.): *Initiativen für Behinderte und Nichtbehinderte*. »Nehmt einander an, wie Christus uns angenommen hat.« (Informationsmaterial Arbeitshilfen, Medien u. a.). Public-Relations-Aktion,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Stuttgart 1981.

- 20) SCHUCHARDT, E.: *Biographische Erfahrung und wissenschaftliche Theorie*. Soziale Integration Bd. 1. Mit Bibliographie der Lebensgeschichten seit 1900 bis zur Gegenwart (alphabetisch-gegliedert-annotiert, 52 S.). Bad Heilbrunn 1980, 5., durchges. u. maßgebl. erw. Aufl. 1993<sup>5</sup>, 225 S., 8 Graphiken.
- 21) E. KÜBLER-Ross의 연구(*Interviews mit Sterbenden*, 1979)가 “어떻게 죽어가는 법을 배울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룬다면 우리의 연구는 “더 이상 살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하여 어떻게 살어나가는 법을 배울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 22) SCHUCHARDT, E.: *Weiterblidung als Krisenverarbeitung*. Soziale Intergration Bd. 2. Mit Bibliographie zur Krisenverarbeitung seit 1900 bis zur Gegenwart (gegliedert-annotiert, 35 S.). Bad Heilbrunn 1980, 5., durchges. u. maßgebl. erw. Aufl. 1993, 231 S. 12 Graphiken.
- 23) Ebda., S. 237.
- 24) Ebda., S. 267.

- 25) Ebda., S. 251.
- 26) Ebda., S. 286.
- 27) Ebda., S. 296.
- 28) Ebda., S. 302.
- 29) Ebda., S. 304.
- 30) Ebda., S. 297.
- 31) Ebda., S. 317.
- 32) HABEL, L.: *Herrgott, schaff die Treppen ab!* Erfahrungen einer Behinderten. Stuttgart 1978.
- 33) WEBER-GAST, I.: *Weil du nicht geflohen bist vor meiner Angst*. Ein Ehepaar durchlebt die Depression des einen Partners. Mainz 1978.
- 34) Deutsches Allgemeines Sonntagsblatt, DAS, Nr. 44, 22. Oktober 1978, S. 29.
- 35) 이에 대해서는 INGRID WEBER-GAST의 책 35쪽을 참조하라.
- 36) LUSSEYRAN, J.: *Das wiedergefundene Licht*. Stuttgart 1963, 1975<sup>7</sup>. 영어 원제: *And there was Light*. O. J. DERS.: *Das Leben beginnt heute*. Stuttgart 1976. 프랑스어 원제: *Le monde commence aujourd'hui*. Paris 1959.
- 37) MÜLLER-GARNN, R.: *... und halte dich an meiner Hand*. Würzburg 1977. DIES.: *Das Morgenrot ist weit*. Geschichte der Hoffnung. Echter Verlag 1980.
- 38) GÖRRES, S.: *Leben mit einem behinderten Kind*. Mit einem Nachwort von GÖRRES, A. Zürich, Köln 1974.
- 39) GÖRRES, A.: *Kennt die Psychologie den Menschen?* Fragen zwischen Psychotherapie, Anthropologie und Christentum. München 1979.
- 40) LEE, L.: *Wenn du durchs Feuer gehst, sollst du nicht brennen*. Gütersloh 1978. 영어 원제: *Walking through the fire*. New York 1977.
- 41) GORNIK, H.A.: *Begegnung am Rhein*. Die amerikanische Bestsellerautorin LAUREL LEE in der Bundesrepublik. »Zauberhafte Dinge im Tod«. Eine Krankheit wird im Buch für Ärzte und Kinder angenommen. In: Deutsches Allgemeines Sonntagsblatt, DAS, Nr. 36, 3. September 1978, S. 9.
- 42) Ebda., S. 9.
- 43) KIRCHENKANZLEI DER EV. KIRCHE IN DEUTSCHLAND, EKD (Hrsg.):

- Leben und Erziehen wozu?* Eine Dokumentation über Entschließungen der Synode der EKD 1978, Gütersloh 1979.
- 44) ZINK, J.: *Vorbemerkungen*, S. 9. In: HABEL, L.: *Herrgott, schaff die Treppen ab!* Stuttgart, Berlin 1978.
- 45) MOLTMANN, J.: *Neuer Lebensstil*. Schritte zur Gemeinde. München 1977, S. 22.
- 46) Projekt, Studentin 1. In: SCHUCHARDT, E.: *Projektorientiertes Studium in Bethel: »Integration durch Interaktion«*, mss., Hannover 1979.
- 47) Ebda., Studentin 7.
- 48) Ebda., Studentin 11.
- 49) Ebde., Student 15.
- 50) Ebda., Studentin 3.
- 51) BODELSCHWINGH, F. von: Gespräch mit Dr. BRANDT, dem Abgeordneten HITLERS. In: *Bote von Bethel*, Sonderdruck 66, Bethel 1964, S. 9ff. Vgl. auch: Hephata Hessisches Diakoniezentrum (Hrsg.), GÖBEL, P., THORMANN, H. E.: *Verlegt-vernichtet-vergessen...? Leidenswege von Menschen aus Hephata im Dritten Reich*. Eine Dokumentation. Plag-Druck, Schwalmstadt/Treysa 1985, 1986<sup>2</sup>, 88 S.
- 52) BODELSCHWINGH, F. von (Neffe des vorgenannten Pastors), a. a. O.
- 53) Projekt, Student 4, a. a. O.
- 54) Ebda., Student 8.
- 55) SCHMIDBAUER, W.: *Die hilflosen Helfer*. Über die seelische Problematik der helfenden Berufe. Reinbek bei Hamburg 1977, S. 12.
- 56) Projekt, Studentin 13, a. a. O.
- 57) Ebda., Studentin 13.
- 58) Ebda., Studentin 13.
- 59) SCHMIDBAUER, W.: a. a. O., S. 10.
- 60) Ebda., S. 42, 43, 44.
- 61) Ebda., S. 90, 91.
- 62) Ebda., S. 219.
- 63) BROCHER, T.: Vortrag auf dem 17. Deutschen Evangelischen Kirchentag

- vom 8.-12. Juni 1977. In: Kirchentag: Dokumentarband. Stuttgart 1978.
- 64) FISCHER, M.: *Das Geheimnis des Menschen*. Theologische Überlegungen zur Zielsetzung der Behindertenhilfe. In: Diakonie. Jahrbuch des Diakonischen Werkes 1975. Stuttgart 1975, S. 75.
- 65) MOLTSMANN, J.: *Neuer Lebensstil*. Schritte zur Gemeinde. München 1977, S. 12,13.
- 66) RICHTER, H. E.: *Lernziel Solidarität*. Hamburg 1974, S. 222,223.
- 67) WEIZSÄCKER, C. F. von: *Der Behinderte in unserer Gesellschaft*. Vortrag, gehalten in der Bayerischen Landesschule für Blinde, anlässlich ihres 150jährigen Bestehens. Oktober 1976. In: *Der Garten des Menschlichen*. Beiträge zur geschichtlichen Anthropologie. München, Wien 1977<sup>3</sup>, S. 107.
- 68) Ebda., S. 112.
- 69) SÖLLE, D.: *Die Hinreise*. Zur religiösen Erfahrung. Texte und Überlegungen. Stuttgart 1975, S. 9.
- 70) Ebda., S. 10ff.
- 71) GENFER WELTKIRCHENRAT: *Leben und Zeugnis der Behinderten in der christlichen Gemeinde*. Memorandum einer Konsultation 1978. In: Dokumentation epd., evang. Pressedienst Nr. 36 a, 1978.
- 72) 이 장은 신학자인 에리카 라이홀레(Erika REICHLE) 박사, 게르타 샤르페노르트(Gertha SCHARFFENORTH) 박사, 클라우스 트래데(Klaus THRAEDE) 교수와의 집중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쓰여진 것이다.
- 73) KÜNG, H.: *Gott und das Leid*. Einsiedeln 1967, 1974 5. Aufl.
- 74) Vgl. dazu: SELLIN, Ernst und FOHRER, Georg: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1965, 10. Aufl., § 50, S. 352-365. Und; KAISER, Otto: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Gütersloh 1978, 4. Aufl., § 34, S. 344-353.
- 75) 마찬가지로 1952년에 융(C. G. JUNG)의 《옴에 대한 응답 *Antwort auf Hiob*》(제 3판)이 취리히에서 출간되었다.
- 76)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기독교 내의 무신론 *Atheismus im Christentum*》(Frankfurt 1968, S. 148-167, 옴에 대한 부분)이 독특한 사고전통과 경험에서 비롯된 더 나은 인식 때문에 튀빙겐과 다른 곳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골비처(H. GOLLWITZER)의

애정 어린 비판(굵은 나무, 곧은 걸음, München 1970, S. 224-250.)은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블로흐의 책이 출간되기 이미 오래전에 에렌베르크(EHRENBERG)가 커다란 테두리에서 다룬 바 있다.

77) 바르트가 1955년에 쓴 내용은 본회퍼의 《예수를 본받음과 십자가 *Die Nachfolge und Kreuz*》(in: *Nachfolge* (München 1937, S. 39/46)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고난’에 대해 언급하면 거의 모두 ‘예수를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런 점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78) SÖLLE, D.: *Leiden*. Stuttgart 1973.

79) 그런데 이 토론집에는 몰트만에게서 사변적 신정론을 추정하거나(D. L. MIGLIORE, ebd. S. 42) 적어도 몰트만의 주요 연구대상이 신정론이라고 보는 더욱 ‘독단적인’ 입장들이(H. H. MISKOTTE, ebd. S.76-89.) 담겨 있다.

80) 소위 무관심-원칙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는 뵐의 책(E. JÜNGEL: *Gott als Geheimnis der Welt*, 3. Aufl. Tübingen 1979, S. 508 und S. 511)을 참조하라. “사랑의 하나님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야 하며 유한한 인간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고 끝없이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은 루터의 그리스도론과 헤겔의 철학에서 영감을 얻은 근대 신학의 아주 중요한 인식이다.”(S. 511) “신의 죽음의 신학”(S. 55-137)에 대한 뵐의 상세한 설명과 여기서 특히 “신의 죽음을 말함에 대한 의미와 무의미”(S. 55-58)에 관한 §4는 이 영역에서 문외한인 우리에게 때때로 유행하는 판단에 대해 거리를 취하도록 해준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뵐은 69쪽에서 신정론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과 연결시킨다.

81) G. EBELING: *Dogmatik des christlichen Glaubens II*, Tübingen 1979, S. 202-205. 에벨링은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유행이 되었다가 다시 구식이 되어버린 신의 죽음을 주장하는 입장”에 반대한다.(S. 203) 실제로 고대 기독교의 그리스도론도 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대의 무신론에 대한 고착은 과거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에벨링의 광범위한 §19의 제목은 “신의 죽음”(S. 128-255)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먼저 “인간의 죽음”에 대해(S. 132-149) 다루고 그 다음에 (B) 중심부분(!)으로 “예수의 죽음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화해”를 다룬다.(S. 149-255) 뵐과 에벨링에 비할 때 차르트(H. ZAHRT)는 “신의 죽음-논리적 모순”이라는 제목하에(in: *Gott kann nicht sterben*, 3. Aufl. München 1970, S. 52-60) 1961년 미국에서 대두된 테마를 파상적으로 다룬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의>(S. 509-528)라는 장에 포함된 신정론 문제(Dogmatik des christlichen Glaubens III, Tübingen 1979, S. 511-519)에 관한 에벨링의 글을 추천한다. “신의 자기의인”(칼 바르트)은 “신에 의한 인간의 의인이다. 그것은 신정론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이다. 이로써 옴의 문제는 배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함께 지양됐음을 믿어도 된다.” 이는 결코 악의 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악은 설명될 수 없는 어둠으로 확실히 남게 된다.(S. 518f.) 분명 철학적 신정론은 고난을 당하는 인간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한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고난을 당하는 인간과 이들의 “왜”라는 물음에 대한 연대를 중심에 놓는 반면(S. 518), 철학적 신정론은 고난을 겪는 인간들에게 신 앞의 존재로서 말을 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신정론’이라는 핵심어가 항상 숨겨진 채 진정한 신을 떠올리게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진정한 신의 권세는 신의 사랑과 일체가 되려고 하며, 이는 이러한 일치에 대한 모든 의심을 버리는 ‘믿음 속에서’ 가능하다.

끝으로 슈파른(W. SPARN)이 펴낸 책 *Leiden-Erfahrung und Denken. Materialien zum Theodizeeproblem*, München 1980(Theol. Bücherei, Bd. 67)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현대의 “신정론 문제의 수정에 대한 해설”이라는 부록에 상세한 참고문헌도 실려 있음을 알려준다. 나는 거기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했다. “시험받은 신앙의 탄식이 신 앞에서 신의 찬양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경험한 고난은 설명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 니체와 루터의 견해는 각기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이긴 하지만 모두 옳았다. 의미부여는 ‘신정론’으로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S. 274) 이러한 최근의 입장들을 소개하기에는 지면과 필자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은 적어도 힌트나 인용문으로, 때로는 여기서 짧게 소개한 사상을 교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슈파른은 부록에서 간단명료하게 현재의 신학적 답안에 대해 정리한다.(바르트, 에레르트, 고가르텐, 킬리히, S. 248-252) 이어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 번 “신학적 과제”(S. 264-272)가 “탈유신론적 상황”이라는 배경 하에서 논의된다.

82) JÜNGEL, E.: *Tod*. Stuttgart 1971.

83) MÜLLER, A. M. K.: *Der Sturz des Dogmas vom Täter*. In: *Lutherische Monatshefte*, 13. Jg. 1974, S. 468-474.

DERS.: *Vom Sinn des Leidens*. In: *Die vielen Namen Gottes. Festschrift für*

*Gerd Heinz-Mobr.* Stuttgart 1974.

DERS.: *Wende der Wahrnehmung. Erwägungen zur Grundlagenkrise in Physik, Medizin, Pädagogik und Theologie.* München 1978.

84) GRESHAKE, G.: *Der Preis der Liebe.* Besinnung über das Leid. Freiburg 1978.

85) ZAHRT, H.: *Leiden—wie kann Gott das zulassen? Warum ich glaube. Meine Sache mit Gott.* München 1977.

86) 그레스하케의 입장은 상당 부분 볼핑어(WOLFINGER, F.)가 개진한 《고난의 신학적 극복에 대한 서문》 in: *Leiden als theologisches Problem. Versuch einer Problemskizze* (Catholica 32, 1978, S. 242-266.)과 일치한다.

87) GERSTENBERG, E. S., SCHRAGE, W.: *Leiden.* Kohlhammer Taschenbuchreihe Biblische Konfrontationen. Nr. 1004, Stuttgart 1977.

88) SCHARFFENORTH, G., THRAEDE, K., 《*Freude in Christus werden...*》 Die Beziehung von Mann und Frau als Frage an Theologie und Kirche; Reihe Kennzeichen, Band 1, Berlin 1977, S. 18-95.



## ◎ 참고문헌

- ADORNO, Theodor W.: *Negative Dialektik*. Frankfurt/M. 1966.
- ALHEIT, P.: *Biographieforschung in der Erwachsenenbildung* (Teil I). In: SIEBERT, H.; WEINBERG, J.: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Münster 13, 1984, S. 40 ff. und (Teil II) 14, 1984, S. 31 ff.
- ALTNER, G.: *Die Überlebenskrise in der Gegenwart*. Darmstadt 1987, 234 S.
- ARBEITSGRUPPE BIELEFELDER SOZIOLOGEN: *Kommunikative Sozialforschung*. München 1976.
- ARONSON, E.; PINES, A. M.; KAFRY, D.: *Ausgebrannt*. Stuttgart 1983.
- BAAKE, D.; SCHULZE, T. (Hrsg.): *Aus Geschichten lernen. Zur Einübung pädagogischen Verstehens*. München 1979.
- BACH, U.: *Dem Traum entsagen, mehr als ein Mensch zu sein. Auf dem Wege zu einer diakonischen Kirche*. Neukirchener, Vluyn 1986, 176 S.
- BARTH, K.: *Kirchliche Dogmatik*. Bd. 1 I-IV 4. Zürich 1932-1967, Register 1970.
- BATTEGAY, Raymond: *Grenzsituationen*. Bern 1981.
- BECK, Ulrich: *Eigenes Leben. Ausflüge in die unbekannte Gesellschaft, in der wir leben*. Beck, München 1995.
- BEER, Ulrich: *Lebenskraft aus Lebenskrisen*. Echler, Würzburg 2001.
- BERGER, P. L.: *Auf den Spuren der Engel. Die moderne Gesellschaft und die Wiederentdeckung der Transzendenz*. Frankfurt/M. 1961.
- BERGER, P. L.: *Zur Dialektik von Religion und Gesellschaft*. Amerik. 1967, Frankfurt/M. 1973.

- BERGER, P. L.; LUCKMANN, T.: *Die gesellschaftliche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Frankfurt/M. 1970 (engl. 1966).
- BLOCH, E.: *Das Prinzip Hoffnung*. Suhrkamp, Frankfurt/M. 1959.
- BLOCH, E.: *Atheismus im Christentum*. Frankfurt/M. 1968.
- BODELSCHWINGH, F. von: *Gespräch mit Dr. Brandt, dem Abgeordneten Hitlers*. In: *Bote von Bethel*, Sonderdruck 66, Archiv Bethel 1964.
- BÖHME, W. (Hrsg.): *Ist Gott grausam? Eine Stellungnahme zu Tilmann Mosers ›Gottesvergiftung‹*. Tagungsbericht der Evangelischen Akademie Bad Herrenalb, o. J.
- BOLLNOW, O. F.: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Stuttgart 1962.
- BOLLNOW, O. F.: *Krise und neuer Anfang. Beiträge zur pädagogischen Anthropologie*. Heidelberg 1966.
- BONHOEFFER, D.: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BETHGE, G. (Hrsg.): München 1963, 1970.
- BRENNING, J. u. a.: *Leid und Krankheit im Spiegel religiöser Traktatliteratur*. Hamburg 1972.
- BROCHER, T.: *Vortrag auf dem 17. Deutschen Evangelischen Kirchentag vom 8.-12. Juni 1977*. In: *Kirchentag: Dokumentarband*. Stuttgart 1978.
- BUBER, M.: *Das Erlernte*. In: *Erzählungen der Chassidim*. Zürich 1949.
- CAPLAN, G.: *Principles of Preventive Psychiatry*. Tavistock Publication, London 1964.
- CARPA, F.: *Das Tao der Physik*. Bern 1984.
- CLOERKES, G.: *Einstellung und Verhalten gegenüber Behinderten. Eine kritische Bestandsaufnahme internationaler Forschung*. Berlin 1985<sup>3</sup>.
- COHEN, S.; SHERROD, D. R.; CLARK, M. S.: *Social skills and the stress-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986, pp. 963-973.
- CONCILIUM: *Frauen in der Männerkirche?* In: *Concilium* 41, 1980.
- CUTRONA, C. E.: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the transition of parenthood*. I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984, pp. 378-390.

- DAIBER, K. F.: *Leiden als Thema der Predigt. Dokumentation und Auswertung einer Predigtreihe: Leiden des Menschen–Leiden Gottes*. München 1978.
- DEUTSCHES ALLGEMEINES SONNTAGSBLATT, DAS, Nr. 44, 22. Oktober 1978.
- DIAKONISCHES WERK DER EV. KIRCHE IN DEUTSCHLAND, EKD (Hrsg.): *Hilfe für Behinderte. Zweites Schwerpunktprogramm der Diakonie. Jahrbuch '75*. Stuttgart 1975.
- DIAKONISCHES WERK DER EV. KIRCHE IN DEUTSCHLAND, EKD (Hrsg.) von 13 Broschüren, u. a.: *psychisch krank*, 1976–*sinnesbehindert*, 1977–*körperbehindert*, 1977–*geistigbehindert*, 1978–*lebensgestört*, 1979–*Diakonische Initiativen für Behinderte und Nichtbehinderte, >Nicht nur 1981<*, Stuttgart 1982.
- DIETERICH, I.: *Biographie, Lebenslauf und Erwachsenenbildung*. In: WEYMANN, A.: *Handbuch für die Soziologie der Weiterbildung*. Darmstadt 1980, S. 403–417.
- DREITZEL, H. P.: *Die gesellschaftlichen Leiden und das Leiden an der Gesellschaft? Vorstudien zu einer Pathologie des Rollenverhaltens*. Stuttgart 1968.
- DREWERMANN, E.: *Leben, das dem Tod entwächst*. Predigten zur Passions- und Osterzeit. Piper München, 1977<sup>2</sup>.
- DUQUOC, J., u. a.: *Das Kreuz Christi und das Leid der Menschen*. In: *Concilium* 12, 1976.
- EBELING, G.: *Dogmatik des christlichen Glaubens*, Bd. I–III. Tübingen 1979.
- EHLERT, W.: *Der christliche Glaube. Grundlinien der lutherischen Dogmatik*. Hamburg 1940.
- EHRENBERG, H.: *Hiob der Existentialist*. Heidelberg 1952.
- ERIKSON, E. H.: *Identität und Lebenszyklus. Drei Aufsätze*. Frankfurt/M. 1966.
- ERIKSON, Erik H.: *Der vollständige Lebenszyklus*. Frankfurt/M. 1988.
- FILIPP, S. H. (Hrsg.): *Kritische Lebensereignisse*. München 1981.
- FILIPP, S.–H.: *Lebensereignisforschung– Versuch einer (Zwischen)Bilanz*. In: FILIPP, S.–H. (Hrsg.): *Kritische Lebensereignisse*. München, Weinheim

1990<sup>2</sup>.

- FISCHER, M.: *Das Geheimnis des Menschen. Theologische Überlegungen zur Zielsetzung der Behindertenhilfe*. In: *Diakonie Jahrbuch 1975*. Stuttgart 1975, S. 75 ff.
- FRANKL, V. E.: *Der Mensch vor der Frage nach dem Sinn*. München 1979, 1980<sup>2</sup>.
- FRANKL, V. E.: *Ärztliche Seelsorge. Grundlagen der Logotherapie und Existenzanalyse*. Frankfurt/M. 1983.
- FREIRE, P.: *Pädagogik der Unterdrückten*. Reinbek bei Hamburg 1973.
- FROEHLICH, F.: *Die seelische Verarbeitung lebensbedrohlicher Krankheiten im Jugendalter. Grundprobleme und Möglichkeiten einer stützenden Therapie*. Basel, Stuttgart 1986.
- FROMM, E.: *Haben oder Sein. Die seelischen Grundlagen einer neuen Gesellschaft*. Stuttgart 1976, neu bearbeitete Auflage 1979.
- FROMM, E.: *Psychoanalyse und Ethik. Bausteine zu einer humanistischen Charakterologie*. Stuttgart 1982.
- GADAMER, H. G.: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1960, 1975.
- GERSTENBERG, G. S.; SCHRAGE, W.: *Leiden. Reihe Biblische Konfrontationen*. Stuttgart 1977.
- GLASER, B. G.; STRAUSS, A. L.: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1976, 1974; Übersetzung in: HOPF, C.; WEINGARTEN, E.: *Qualitative Sozialforschung*, 1979, S. 91–111.
- GLASER, B. G.; STRAUSS, A. L.: *Interaktion mit Sterbenden*. Göttingen 1974. Englischer Originaltitel: *Awareness of Dying*. 1965.
- GOFFMAN, E.: *Stigma. Über Techniken der Bewältigung beschädigter Identität*. Frankfurt 1963, 1977<sup>3</sup>.
- GOFFMAN, E.: *Interaktionsrituale über das Verhalten in direkter Kommunikation*. Frankfurt/M. 1971.
- GOGARTEN, F.: *Der Mensch zwischen Gott und Welt*. Stuttgart 1956.
- GOLAN, N.: *Krisenintervention. Strategien psychosozialer Hilfen*. Freiburg/Br. 1983.

- GOLLWITZER, H.: *Krummes Holz-aufrechter Gang. Zur Frage nach dem Sinn des Lebens*. München 1970, 1979.
- GORE, S.: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I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978, pp. 157-165.
- GRESHAKE, G.: *Der Preis der Liebe. Besinnung über das Leid*. Freiburg 1978.
- GRIESE, H. (Hrsg.): *Sozialisation im Erwachsenenalter*. Weinheim 1979.
- GRIMM, R.; HERMAND, J.: *Vom Anderen und vom Selbst. Beiträge zu Fragen der Biographie und Autobiographie*. Freiburg/Br. 1982.
- HABERMAS, J.; LUHMANN, 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M. 1971.
- HABERMAS, J.: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In: HABERMAS, J.: *Theorie der Gesellschaft*, a. a. O., S. 101ff.
- HABERMAS, J.: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Suhrkamp. Frankfurt/M. 1996.
- HAEFNER, K.: *Die neue Bildungskrise*. Basel 1983.
- HÄMER, P.: *Rehabilitation von unten. Der Platz der Körperbehinderten im Aufgabenfeld der Kirche*. Mainz 1978.
- HELLINGER, B.: *Wo Schicksal wirkt und Demut heilt*. Carl Auer Systeme Verlag, Heidelberg 1998.
- HENNINGSSEN, J.: *Autobiographie und Erziehungswissenschaft*. Essen 1981.
- HENTIG, H. von: *Aufgeräumte Erfahrungen. Texte zur eigenen Person*. München 1983, 324 S. und Ullstein Taschenbuch 34306, Berlin 1985.
- HEPHATA Hessisches Diakoniezentrum (Hrsg.), GÖBEL P.; THORMANN, H. E.: *Verlegt-vernichtet-vergessen...? Leidenswege von Menschen aus Hephata im Dritten Reich. Eine Dokumentation*. Plag-Druck, Schwalmstadt/Treysa 1986<sup>2</sup>, 88 S.
- HILDENHAGEN, G.: *Geschlossene Räume. Photographien.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Ausstellung vom 4. Oktober- 9. November 1983*. Hamburg 1983, 16 S.
- HOFER, Th., u. a.: *Wenn das Weizenkorn in die Erde fällt. Mit Kindern über Gott*

- und Auferstehung reden.* Gütersloher Taschenbuch 647, Gütersloh 1985.
- HURRELMANN, K.; ULICH, D. (Hrsg.): *Handbuch der Sozialisationsforschung.* Weinheim, Basel 1980.
- JENS, W. (Hrsg.): *Warum ich Christ bin.* München 1979.
- JÜNGEL, E.: *Tod.* Stuttgart 1971.
- JÜNGEL, E.: *Gott als Geheimnis der Welt.* Tübingen 1979<sup>3</sup>.
- JUNG, C. G.: *Antwort auf Hiob.* Zürich 1952<sup>3</sup>.
- JUNG, C. G.: *Symbole der Wandlung.* GW 5. Olten 1973.
- KAISER, O.: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Gütersloh 1978<sup>4</sup>.
- KAST, V.: *Der schöpferische Sprung. Vom therapeutischen Umgang mit Krisen.* Olten 1987.
- KAST, V.: *Lebenskrisen werden Lebenschancen. Wendepunkte des Lebens aktiv gestalten.* Herder Spektrum, Freiburg 2000.
- KATSCHNIG, H. (Ed.): *Life events and psychiatric disorder: Controversial issues.*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6.
- KELLER-HÜSCHEMINGER, M.: *Die Kirche und das Leiden. Versuch einer systematischen Besinnung über ein Menschheitsproblem vom Worte Gottes und der Kirche her.* München 1954.
- KIERKEGAARD, S.: *Die Krankheit zum Tode.* Übersetzt und herausgegeben von Liselotte Richter. Frankfurt/M. 1984.
- KNOLL, J. H.: *Lebenslauf, Lebenszyklen und Erwachsenenbildung.* In: *Internationales Jahrbuch der Erwachsenenbildung.* Köln 1980, S. 159 ff.
- KODALLE, K. M.: *Überwindung antagonistischer Realität?* In: *1/1980,* Frankfurter Hefte.
- KOHLI, M.: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Stuttgart 1984.
- KRÄMER, H. M.: *Eine Sprache des Leidens. Zur Lyrik von Paul Celan.* München 1979.
- KÜBLER-ROSS, E.: *Interviews mit Sterbenden.* Stuttgart 1969. Gekürzte

- Taschenbuchausgabe, Gütersloh, 1990<sup>15</sup>.
- KÜBLER-ROSS, E.: *Kommerzialisierte Leiden für verborgene Leiden*. In: Concilium 12, 1976.
- KÜNG, H.: *Gott und das Leid*. Einsiedeln, Zürich 1967, 1974<sup>5</sup>.
- LEITNER, H.: *Lebenslauf und Identität. Die kulturelle Konstruktion von Zeit in der Biographie*. Campus Forschg. 249. Frankfurt/M. 1982.
- LEONTJEW, A. N.: *Probleme der Entwicklung des Psychischen*. Königstein 1980.
- LOCH, W.: *Lebenslauf und Erziehung*. Essen 1979.
- LOHSE, E.: *Märtyrer und Gottesknecht. Untersuchungen zur urchristlichen Verkündigung vom Sühnetode Jesu Christi*. Göttingen 1955.
- LUHMANN, N.: *Sinn als Grundbegriff der Soziologie*. In: HABERMAS, J.; LUHMANN, 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M. 1971.
- LUHMANN, N.: *Funktion der Religion*. Frankfurt/M. 1977.
- LUKAS, Elisabeth: *Die magische Frage »Wozu«*. Freiburg/Br. 1991.
- LUTHER, M.: *Der Große Katechismus*. ALAND, K. (Hrsg.): *Luther deutsch*, Band 3. Stuttgart 1961.
- MADER, E. T.: *Das erzwungene Sterben von Patienten der Heil- und Pflegeanstalt Kaufbeuren-Irsee zwischen 1940 und 1945, nach Dokumenten und Berichten von Augenzeugen*. Blöcktach 1982, 72, 14 S.
- MARTI, K.: *Zärtlichkeit und Schmerz*. Neuwied, Darmstadt 1979.
- MATTHEWS-SIMONTON, S.: *Heilung in der Familie*. Reinbek 1986.
- MAURER, F. (Hrsg.): *Lebensgeschichte und Identität. Beiträge zur Anthropologie*. Frankfurt/M. 1981.
- MEAD, G. H.: *Geist, Identität und Gesellschaft aus der Sicht des Sozialbavaviourismus*. Mit einer Einleitung herausgegeben von Charles W. MORRIS. 1934, Frankfurt/M. 1973.
- MEERWEIN, F.: *Das ärztliche Gespräch*. Bern, Stuttgart, Toronto 1986.
- MEICHENBAUM, D.: *Stress inoculation training*. Pergamon Press, New York 1985.

- MEUELER, E.: *Wie aus Schwäche Stärke wird. Vom Umgang mit Lebenskrisen.* Reinbek bei Hamburg 1987.
- MITSCHERLICH, M.: *Erinnerungsarbeit. Zur Psychoanalyse der Unfähigkeit zu trauern.* Frankfurt/M. 1987, 175 S.
- MOLTMANN, J.: *Der gekreuzigte Gott. 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München 1972, 1976<sup>3</sup>.
- MOLTMANN, J.: *Neuer Lebensstil. Schritte zur Gemeinde.* München 1977.
- MOSER, T.: *Gottesvergiftung.* Frankfurt/M. 1976.
- MORLOK, K.: *Wo bringt ihr uns hin? »Gebeime Reichssache« Grafeneck.* Stuttgart 1985, 96 S.
- MÜLLER, A. M. K.: *Die präparierte Zeit. Der Mensch in der Krise seiner eigenen Zielsetzungen.* Stuttgart 1972.
- MÜLLER, A. M. K.: *Der Sturz des Dogmas vom Täter.* In: *Luther. Monatshefte*, 13. Jg., 1974.
- MÜLLER, A. M. K.: *Vom Sinn des Leidens angesichts der totalen Krise.* In: *Die vielen Name Gottes. Festschrift für Gerd Heinz-Mohr.* Stuttgart 1974.
- MÜLLER, A. M. K.: *Wende der Wahrnehmung. Erwägungen zur Grundlagenkrise in Physik, Medizin, Pädagogik und Theologie.* München 1978.
- NIPKOW, K. E.: *Erwachsenwerden ohne Gott? Gotteserfahrung im Lebenslauf.* München 1987, 115 S.
- ÖKUMENISCHER RAT DER KIRCHEN, ÖRK (Hrsg.): *Leben und Zeugnis der Behinderten in der christlichen Gemeinde. Memorandum einer Konsultation 1978.* In: *Dokumentation epd., evangelischer Pressedienst* Nr. 36 a, 1978.
- ÖKUMENISCHER RAT DER KIRCHEN, ÖRK (Hrsg.): *Partners In Life. The Handicapped and The Church.* Faith and Order Paper No. 89. Genf 1979. Deutsche Ausgabe: MÜLLER-FAHRENHOLZ, G. (Hrsg.): *Wir brauchen einander. Behinderte in kirchlicher Verantwortung.* Frankfurt/M. 1979. *Partners in Life. Dokumenta-tion zum UNO-Jahr 1981.* Genf 1982. *Im Zeichen des Heiligen Geistes. Berichte der*



- Vollversammlung aus Canberra. Frankfurt/M. 1991.
- OPP, K. D.: *Theorie sozialer Krisen*. Hamburg 1978.
- PAUL, S.: *Begegnungen. Zur Geschichte persönlicher Dokumente in Ethnologie, Soziologie, Psychologie*. 2 Bde. Hohenschäftlam 1979.
- PECCEI, A. (Hrsg.): *Zukunftschance Lernen. Club of Rome. Bericht über die achtziger Jahre*. Gütersloh 1980.
- PETERMANN, F.; NOEKER, M.; BODE, U.: *Psychologie chronischer Krankheiten im Kindes- und Jugendalter*. München, Weinheim 1987.
- PURCE, J.: *Die Spirale-Symbol der Seelenreise*. München 1988, 1993<sup>2</sup>, 2001  
Englischer Originaltitel: *The Mystic Spiral. Journey of the Soul*. Hudson Ltd., London 1974.
- RICHTER, H. E.: *Lernziel Solidarität*. Hamburg 1974.
- RICHTER, H. E.: *Der Gotteskomplex. Die Geburt und die Krise des Glaubens an die Allmacht des Menschen*. 2. Teil: *Die Krankheit, nicht leiden zu können*. Reinbek bei Hamburg 1979.
- RICHTER, H. E.: *Sich der Krise stellen, Reden, Aufsätze, Interviews*. Reinbek bei Hamburg 1981.
- RIEDEL, Ingrid: *Träume als Wegweiser in neue Lebensphasen*. Kreuz, Stuttgart 1998.
- RIEDESSER, P.; WOLFF, G.: *Elterliches Schulterleben bei Erkrankungen ihrer Kinder*. In: *Monatsschrift für Kinderheilkunde*, 133, 1985, S. 315-325.
- RINGLEBEN, J.: *Die Krankheit zum Tode von Sören Kierkegaard. Erklärung und Kommentar*. Vandenhoeck u. Ruprecht, Göttingen 1995.
- RINGLEBEN, J.: *Gott und das ewige Leben- zur theologischen Dimension der Eschatologie*. In: STOCK, K. (Hrsg.): *Die Zukunft der Erlösung. Zur neueren Diskussion um die Eschatologie*. Gütersloh 1994. (Veröffentlichungen der Wissenschaftlichen Gesellschaft für Theologie 7), 49-87.
- RITTER, W. H.; FELDMIEIER, R.; SCHOBERTH, W.; ALTNER, G. (Hrsg.): *Der Allmächtige. Annäherungen an ein umstrittenes Gottesprädikat*.

- Vandenhoeck u. Ruprecht Göttingen 1997.
- ROSCH INGLEHART, M.: *Kritische Lebensereignisse- Eine sozialpsychologische Analyse*. Stuttgart 1988.
- ROSENMAYR, L.: *Biographie und Geschichtswissenschaft. Wiener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Neuzeit*, Bd. 5. Wien 1979.
- ROSENZWEIG, R.: *Solidarität mit den Leidenden im Judentum*. Berlin, New York 1978.
- SCHARFFENORTH, G.; THRAEDE, K.: »Freunde in Christus werden«. *Die Beziehung von Mann und Frau als Frage an Theologie und Kirche*. Reihe Kennzeichen, Band 1. Gelnhausen/Berlin 1977.
- SCHIFFERS, N.: *Fragen der Physik an die Theologie. Die Säkularisierung der Wissenschaft und das Heilsverlangen nach Freiheit*. Düsseldorf 1968.
- SCHMIDBAUER, W.: *Die hilflosen Helfer. Über die seelische Problematik der helfenden Berufe*. Reinbek bei Hamburg 1977.
- SCHMITZ, E.: *Erwachsenenbildung als lebensweltbezogener Erkenntnisprozess*. In: SCHMITZ, E.; TIETGENS, H.: *Erwachsenenbildung*. Stuttgart 1984, S. 95 ff.
- SCHNEIDER, Regina: *Krisen als Chancen- zur Bewältigung scheinbar auswegloser Situationen*. Fischer, Frankfurt 2000<sup>3</sup>.
- SCHUCHARDT, E.: *Biographische Erfahrung und wissenschaftliche Theorie. Studien zur Integrations-Pädagogik (Soziale Integration Band 1)*. Mit Bibliographie der Biographien seit 1900 von Menschen in Krisen wie Krankheit, Behinderung, Sterben und Tod, Partnerverlust; alphabetisch-gegliedert-annotiert. 52 S. Reihe: Theorie und Praxis der Erwachsenenbildung. Klinkhardt Verlag, Bad Heilbrunn 1980, 5. durchges. u. maßgeblich erweiterte Auflage 1993, 225 S.
- SCHUCHARDT, E.: *Weiterbildung als Krisenverarbeitung. Beiträge zur Integrations-Andragogik (Soziale Integration und Band 2)*. Mit Bibliographie der Literatur zur Krisenverarbeitung seit 1900; gegliedert-annotiert 35 S. Reihe: Theorie und Praxis der Erwachsenenbildung. Klinkhardt Verlag, Bad Heilbrunn 1980, 5. durchges. u. maßgeblich erw.

Auflage 1993, 231 S.

SCHUCHARDT, E.: *Warum gerade ich ...? Leben lernen in Krisen. Leiden und Glaube. Fazit aus Lebensgeschichten eines Jahrhunderts.* - Mit Bibliographie der über 2000 Lebensgeschichten von 1900 bis zur Gegenwart; alphabetisch-gegliedert-annotiert. Gemeinsames Geleitwort der Generalsekretäre des Weltkirchenrates und des Lutherischen Weltbundes Genf, (1.-6. Aufl. Offenbach, Burckhardthaus-Laetare Verlag 1981 ff.; ab 7. Aufl. V&R 1993), 11. überarb. u. erw. Aufl., Jubiläumsausgabe. Vandenhoeck und Ruprecht, Göttingen 2002, 377 S. mit 13 Abbildungen und 11 Graphiken. Übertragung in Blindendruck und Übersetzung in mehrere Sprachen. Ausgezeichnet mit dem Literaturpreis.

SCHUCHARDT, E.: *Why is this happening to me? Guidance and Hope for those who suffer.* (Translated by LEUBE, K.). Augsburg Minnea-polis 1989, pp. 208, First North American edition; ISBN 0-8066-2309-8.

SCHUCHARDT, E.: *Hvorfor netop mig ...? Lidelse og tro.* (Pa dansk ved Andersen, Asgar) Dixit 1985, 159 S.

SCHUCHARDT, E.: *The crisis as an opportunity to learn.* In: Women and Disability. Hrsg. Joint UNITED NATIONS Information Committees-JUNIC / NGO Series on Women and Development. Geneves 1981, ferner in: Zed Books Ltd, London/New Jersey 1991.

SCHUCHARDT, E.: *Internationale Dekade der Behinderten 1982-1993.* In: *Internationales Jahrbuch der Erwachsenenbildung.* International Year-Book of Adult Education. L'année internationale de l'éducation des adultes. KNOLL, J. H. (Hrsg.), Köln 1984, S. 100-132.

SCHUCHARDT, E.: *Krisenverarbeitung als Ermutigung zum Leben.* In: *Fernstudium für evangelische Religionslehrer an Sonderschulen,* Studieneinheit 7. Hrsg. Deutsches Institut für Fernstudien an der Universität Tübingen, Tübingen 1984.

SCHUCHARDT, E.: *Jede Krise ist ein neuer Anfang. Aus Lebensgeschichten lernen. Betroffene unserer Zeit berichten im Rahmen des Biographien-Aufrufs »Wir über uns«.* Veröffentlichung des Comenius-Instituts.

- Patmos-Verlag, Düsseldorf 1984, 4. Auflage 1993, 204 S.  
Übersetzungen in mehrere Sprachen. Ausgezeichnet mit dem AWM-  
Buchpreis.
- SCHUCHARDT, E.: *Quando la crisi insegna a vivere. Esperienza positiva del dolore*. Roma, 1989. Citta Nuova Editrice.
- SCHUCHARDT, E.: *Krise als Lernchance. Analyse von 331 Lebens-geschichten unserer Zeit*. Wissenschaftliche Begleitforschung zum Biographien-Aufruf »Wir über uns«. Veröffentlichung des Comenius-Instituts. Patmos-Verlag, Düsseldorf 1985, 202 S.
- SCHUCHARDT, E.: *Erwachsenenbildung / Weiterbildung mit behinderten und nichtbehinderten Menschen*. In: *Handbuch der Erwa-chsenenbildung*, Bd. 7: Didaktik der Erwachsenenbildung. Hrsg. PÖGGELER, F.; RAAPKE, H. D.; SCHULENBERG, W., Stuttgart 1985.
- SCHUCHARDT, E.: *Unterrichtswerk der BZGA: Menschen mit Behinderungen- Menschen wie Du und ich*. In: *Jeder ist ein Teil des Ganzen. Der alte, der behinderte, der kranke Mensch*. Unterrichtseinheiten der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BZGA) im Auftrage des Bundesministers für Familie, Frauen, Jugend und Gesundheit (BMFFG). RUPRECHT, H.; SCHUCHARDT, E.; SCHÜTTE, W. (Hrsg.), Klett-Verlag, Stuttgart 1988.
- SCHUCHARDT, E.: *Schritte aufeinander zu. Soziale Integration durch Weiterbildung. Zur Situa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orschungs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MBW). Bad Heilbrunn 1987, 380 S.
- SCHUCHARDT, E.: *Wechselseitiges Lernen- Wissenschaftliches Kolloquium Weiterbildung*. Dokumentation des BMBW-Kolloquiums und der Ausstellung. Forschungs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MBW-Schriftenreihe: Studien, Band 58, Bonn 1988, 136 S.
- SCHUCHARDT, E.: *Ende der UNO-Dekade- Wende zur Integrations-Pädagogik/Andragogik*. In: EBERWEIN, H. (Hrsg.): *Handbuch der integrations-Pädagogik*, Berlin 1989, 2001<sup>6</sup>.

- SCHUCHARDT, E.: *Umgang mit Scheitern: „Warum gerade ich“ Chance, Leben zu lernen*. In: *CONCILIUM Internationale Zeitschrift für Theologie*. Veröffentlichung in 6 Sprachen: deutsch, engl., franz., ital., holländ., portug., 26. Jahrgang Heft 5, 1990.
- SCHUCHARDT, E.: *Vom Gesundsein der Kranken*. In: *Was macht den Menschen krank? 18 kritische Analysen*. Internationaler Kongreß »Gesundsein in eigener Verantwortung«. Hrsg. von ILLICH, I. u. a., Birkhäuser Verlag, Basel, Boston, Berlin 1991.
- SCHUCHARDT, E.: *Anfragen der Erziehungswissenschaft an die Hospizbewegung*. In: Dokumentation der Tagung »Hospiz«. DIAKONISCHES WERK DER EKD (Hrsg.), Stuttgart 1992.
- SCHUCHARDT, E.: *Vom Modellversuch zum Bundesgesetz. Freiwilliges Ökologisches Jahr (FÖJ). Forschungsdokumentation der bundesweiten Modellentwicklung*. Forschungs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Frauen, Jugend und Gesundheit. Hannover 1994, 177 S.
- SCHUCHARDT, E.: *Von Krisen Betroffene. Auf dem Weg zur Integrations-Pädagogik / Andragogik*. In: TIPPELT, R. (Hrsg.): *Handbuch Erwachsenenbildung/Weiterbildung*. Leske Verlag, Leverkusen 1994, 2000<sup>2</sup>.
- SCHUCHARDT, E.; KOPELEW, L.: *Die Stimmen der Kinder von Tschernobyl-Geschichte einer stillen Revolution*. Herder, Freiburg 1996, 2000<sup>4</sup>, 189 S.-ukrainische Übersetzung 1996, russische Übersetzung 2001.
- SCHUCHARDT, E.: *Krisenmanagement im Spiegel von Lebensgeschichten der Weltliteratur-Jubiläums-Ringvorlesung zum 250jährigen Jubiläum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Braunschweig*. In: *Wissenschaft, Wirtschaft, Gesellschaft*. BOHNET, M.; LOMPE, K. (Hrsg.), Braunschweig 1996.
- SCHUCHARDT, E.: *Das muß ich mir mal von der Seele schreiben... Lebensgeschichten-erfahren, bedacht, erzählt, geschrieben-als Geburtshilfe zu >neuem< Leben: Bibliothherapie in krisen*. In: *Kranke kinder brauchen Bücher-Bibliothherapie Theorie und Praxis*. Hrsg. Verlag des Deutschen Ärztinnenbundes e.V. München 1996.

- SCHUCHARDT, E.: *Leben und Sterben lernen im Spiegel von über 1000 Biographien der Weltliteratur*. In: *Sterben und Tod in Europa*, BECKER, U.; JOHANNSEN, F. (Hrsg.), Neukirchener Verlag, Neukirchen 1998.
- SCHUCHARDT, E.: *EXPO 2000–Messe– und Ausstellungspädagogik*. In: *Erlebnis Erwachsenenbildung– zur Aktualität handlungsorientierter Erwachsenenbildung*, Grundlagen der Erwachsenenbildung, CUVRY DE, A. u. a. (Hrsg.), Luchterhand, Frankfurt 1999.
- SCHUCHARDT, E.: *Der Mensch hat Vorrang– Stellungnahme zum ›Übereinkomme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der Menschenwürde im Hinblick auf die Anwendung von Biologie und Medizin‹ des Europarates–Mit Ergänzungs–Antrag; Franktionsübergreifender Vorschlag für eine völkerrechtliche Interpretationserklärung zu Artikel 17 Absatz 2 vom 13. 08. 1999 sowie mit Synopse der Veränderungen in den drei Fassungen 1994, 1995, 1996 des Menschenrechts–Übereinkommens zur Bio–Medizin*. Berlin 2000.
- SCHUCHARDT, E. / SCHMINCKE, CH.: *Neue Chancen– Längsschnittstudie mit Patienten der TCM–Klinik am Steigerwald*. Video, Gerolzhofen/Berlin 2001.
- SCHUCHARDT, E.: *100 Jahre HEPHATA– Begründer Dr. Hermann Schubard: Leuchtfener am Kap Kirche, Innere Mission, Erwachsenenbildung 1901–2001*. HEPHATA, Treysa/Kassel 2001.
- SCHUCHARDT, E.: *Krisen–Management und Integration*. Doppel–Band mit DVD. Band 1: *Biographische Erfahrungen und wissenschaftliche Theorie*. Band 2: *Weiterbildung als Krisenverarbeitung*. DVD: Jahrhundertbibliographie un. 18 Film–Dokumentationen. Reihe: *Theorie und Praxis der Erwachsenenbildung–Bestseller*, 8. überarb. und erw. Auflage Bielefeld 2003.  
www.ciando.com www.bol.de www.die-bonn.de
- SCHUCHARDT, E.: *Gebeilt allein macht noch nicht heil...! Das Wagnis der Krisenverarbeitung*. In: *Wie Jesus heilen. Geistiges Heilen: ein Akt christlicher Nächstenliebe*. Hg. Wiesendanger, H. Basel/Schönbrunn

2004.

SCHUCHARDT, E./OBERIN, Georgia: *Gottesschmunzeln: Was wollte Maria ...? >SOKO-Halleluja< Franziskaner-Ordensschwwestern erfolgreich auf den Spuren von Miss Marple ...!* Berlin 2005.

[www.franziskus-berlin.de/gottesschmunzeln](http://www.franziskus-berlin.de/gottesschmunzeln)

[www.prof-schuchardt.de/gottesschmunzeln](http://www.prof-schuchardt.de/gottesschmunzeln)

SCHUCHARDT, E.: *Brückenbau- 15 Jahre Begegnungsschulen im Südlichen Afrika. Erfolgsmodell deutscher Auswärtiger Kulturpolitik. Auftakt zur UN-Dekade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2005-2014<. Die Verarbeitung der Krise >Fremdsein< im Universal-Krisen-Management-Interaktionsmodell zum Lernprozess Krisenverarbeitung im Spiegel von über 100 Testimonies-IBA-media & book Berlin 2005.*

[www.prof-schuchardt.de/brueckenbau](http://www.prof-schuchardt.de/brueckenbau)

SCHUCHARDT, E.: *Why me? Learning to Live in Crisis. The Result of a Study of Live Stories covering a Century. Based on the German 12<sup>th</sup>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With 20 illustrations and 12 diagrams. With Bibliography of more than 2,000 Life Stories from 1900 to the Present, alphabetical, classified, annotated. Awarded the Prize for Literatur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Geneva 2005.*

[www.wcc-coe.org](http://www.wcc-coe.org)

SCHUCHARDT, E.: *Festvortrag Nationaler Frankl-Jubiläums-Kongress BR Deutschland, Mainz Viktor E. Frankls >Trotzmacht des Geistes<-Entscheidung zum Sinn oder Erika Schuchardts >Chance: Krise-ein verborgener Reichtum<, in: Existenz und Logos. Zeitschrift für sinnzentrierte Therapie, Beratung, Bildung, Hg. Vorstand der DGL. 14. Jgg. Freiburg 2006.*

SCHUCHARDT, E.: *Festvortrag Nationaler Frankl-Jubiläums-Kongress Wien: Berufen zum Sinn: Krisenverarbeitung wagen, verborgenen Reichtum entdecken. Internationaler Kongress für Logotherapie und Existenzanalyse. Frankl-Jubiläums-Festschrift Beltz Verlag Weinheim 2006 i.V.*

SCHUCHARDT, E.: *Berufen zum Sinn: Krisenverarbeitung wagen, verborgenen*

- Reichtum entdecken–Konvergenz zwischen Viktor E. Frankls Psychologie im KZ und Erikas Schuchardts Krisen–Management–Interaktionsmodell zum Lernprozess Krisenverarbeitung.* Böhlau Wien 2006 i.V.
- SCHUCHARDT, E.: *CHANCE: Krise–ein verborgener Reichtum. In den Medien: Funk, Fernsehen, Presse, Publikationen.* DVD Berlin 2006 2006 i.V.
- SCHUCHARDT, E.: *»Es hat mir die Sprache verschlagen...!« Vom Wiederfinden der Sprache in Bild, Wort, Ton.* Berlin 2006 i.V.
- SCHUCHARDT, E. / EDINGER, K. P.: *Ich schenk dir was: Aggression ist Liebesbeweis! Die Hiobs–Botschaft wird uns zur Botschaft Hiobs.* Göttingen 2006 i.V.
- SCHUCHARDT, E.: *Geschwister kann man sich nicht aussuchen. Wir gehören doch zusammen.* i.V. 2002.
- SCHUCHARDT, E.: *(M)eine Wunde ist (m)ein Wunder geworden–durch (m)eine Entscheidung zum Leben.* i.V.
- SCHUCHARDT, E.: *Aufstehen zum Leben–unterwegs zum Heil. Tagebuch einer wechselseitigen Begleitung im >Sterben< zum >Leben<.* i.V.
- SCHUCHARDT, E.: *Ein Geschenk über den Tod hinaus.–Briefe von Menschen, die ein Organ spendeten oder empfangen.* i.V.
- SCHUCHARDT, E.: *UN–Dekade 2005–2014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Die Kompetenz der >Kinder von Tschernobyl– 20 Jahre danach< 1986–2006.* Berlin i.V.
- SCHUCHARDT, E.: *»Stark«–Kinder erzählen ihre Kummer–Geschichten: »Pech, ich weiß nicht weiter ...?« Handbuch Kinder–Krisen–Management–DVD mit kritischen Lebensereignissen in Büchern und Filmen für Kinder und Jugendliche.* i.V.
- SCHUCHARDT, E.: *Karikaturen– Wer lächelt, heilt.* Berlin i.V.
- SCHULTZ, W.: *Die Deutung des Leids im Humanismus und im Christentum.* In: POST, G. H. (Hrsg.): *Theologie und Wirklichkeit.* Kiel 1969.
- SCHULZE, H. (Hrsg.): *Der leidende Mensch.* Neukirchen–Vluyt 1974.
- SCHWARZER, R.; LEPPIN, A.: *Sozialer Rückhalt und Gesundheit. Eine Metaanalyse.* Göttingen 1989.



- SELLIN, E.; FOHRER, G.: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1965<sup>10</sup>.
- SELLSCHOPP, A.; HÄBERLE, H.: *Untersuchungen zur Familiendynamik nach dem Verlust eines krebskranken Kindes*. In: BRÄUTIGAM, W.; MEERWEIN, F. (Hrsg.): *Das therapeutische Gespräch mit Krebskranken*. Bern 1985.
- SIEBERT, H.: *Erwachsenenbildung als Bildungshilfe*. Heilbrunn 1983.
- SÖLLE, D.: *Leiden*. Stuttgart 1973, 1976<sup>3</sup>, Herder, Freiburg 1993.
- SÖLLE, D.: *Die Hinreise. Zur religiösen Erfahrung. Texte und Überlegungen*. Stuttgart 1975.
- SÖLLE, D.: *Gott denken. Einführung in die Theologie*. München 1997.
- SPARN, W. (Hrsg.): *Leiden- Erfahrung und Denken. Materialien zum Theodizeeproblem. (Anhang: Hinweise zur Revision des Theodizeeproblems, verbunden mit einer ausführlichen Bibliographie)*. Theologische Bücherei Band 67. München 1980.
- SPORKEN, P.: *Begleitung in schwierigen Lebenssituationen. Ein Leitfaden für Helfer*. Freiburg 1984.
- SZCZEPANSKI, J.: *Die biographische Methode*. In: KÖNIG, R. (Hrsg.): *Handbuch der empirischen Sozialforschung*, Bd. 1. Stuttgart 1974<sup>3</sup>, S. 226 ff.
- TAUSCH, A.-M.: *Gespräche gegen die Angst*. Zürich 1985.
- TERHART, E.: *Institution- Interpretation- Argumentation*. Zum Problem der Geltungsbegründung von Interpretationen. Z. f. Päd., 27. Jg., 4, 1981.
- THOMAS, K.: *Selbstanalyse. Die heilende Biographie, ihre Abfassung und ihre Auswirkung*. Stuttgart 1976.
- TIETGENS, H.: *Die Erwachsenenbildung*. München 1981.
- TILICH, P.: *Systematische Theologie*, Bd. I-III. Stuttgart 1955-1966.
- TISCHLER, G.: *Leiden an der Allmacht Gottes*. In: *Information* 82, 1981. Evang. Zentralstelle für Weltanschauungsfragen EZW (Hrsg.).
- UEXKÜLL, T. v.: *Psychosomatische Medizin*. München, Wien 1986.
- VAILLANT, G. E.: *Werdegänge. Erkenntnisse der Lebenslauf-Forschung*.

Hamburg 1980. Amerikanischer Originaltitel: *Adaptation to Life*. Brown and Company, Boston/Toronto 1977.

WATZLAWICK, P.: *Anleitung zum Unglücklichsein*. München 1983.

WATZLAWICK, P. u. a.: *Menschliche Kommunikation*. München 1972.

WEIL, S.: *Das Unglück und die Gottesliebe*. München 1953.

WEIZSÄCKER, C. F. von: *Wege in der Gefahr. Eine Studie über Wirtschaft, Gesellschaft und Kriegsverbütung*. München 1978.

WEIZSÄCKER, C. F. von: *In Christus-Hoffnung für die Menschheit. Referat zur Friedensfrage. Vollversammlung des Lutherischen Weltbundes. Budapest 22. 7.-5. 8. 1984*. In: *Dokumentation der VII. Vollversammlung des LWB in Budapest*. Genf 1985.

WELKER, M. (Hrsg.): *Diskussion über Jürgen Moltmanns Buch »Der gekreuzigte Gott«*. München 1979.

WIESE, B. von: *Die deutsche Tragödie von Lessing bis Hebbel*. Hamburg 1948, 1952<sup>2</sup>.

WOLFINGER, F.: *Prolegomena zu einer theologischen Bewältigung des Leidens*. In: *Leiden als theologisches Problem: Versuch einer Problemskizze*. In: *Catholica* 32, 1978.

ZAHRNT, H.: *Der Tod Gottes- ein logischer Widerspruch*. In: DERS.: *Gott kann nicht sterben*. München 1970.

ZAHRNT, H.: *Wie kann Gott das zulassen? Hiob- der Mensch im Leid*. München 1996<sup>6</sup>.

㉔ 주해 및 내용요약이 포함된 2,000여 권의 저서 목록  
분류표 개요(1900년-현재)

필자는 <저서 목록 분류표>에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과 고난과 신앙 그리고 위기 속에 삶 배우기라는 문제가 다루어진 2,000여 권의 저서(독일어 원본과 번역본)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I)은 자신들이 경험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부모(II), 배우자(III), 전문가(IV), 때로는 위기에 직면한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V) 다른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보고하고 설명해준다. 다양한 운명과 경험, 생각을 지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도록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바이다. <저서 목록 분류표>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www.wcc-coe.org/wcc/news/pubs/why-me-bibliog.html](http://www.wcc-coe.org/wcc/news/pubs/why-me-bibliog.html)

[www.prof-schuchardt.de/bibliographie-warum](http://www.prof-schuchardt.de/bibliographie-warum)

독자 여러분도 자기 나라에서 출간된 수기의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란다.

































저서 목록은 각종 위기사건, 위기경험의 원인 및 저술동기(이하 ‘위기사건’을 뜻하는 ‘K’는 K1에서 K17로 표기) 그리고 각 저서의 서술관점에 따라 (저자가 어떤 개인 또는 그룹인가에 따라 I에서 V로 표기)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K8<sup>III</sup>은 위기사건이 암에 해당되며 (K8)  
 위기에 직면한 사람의   
 배우자가 저술한 저서임을 의미한다.(III)

저서 목록의 분류기준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 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저자의 서술관점 상징 I-V〉
- 〈개관: 저서 목록 분류표 K<sup>1</sup>-K<sup>17</sup>〉

## 저자의 서술 관점 상징 I-V

서술관점	상징	여성 저자	남성 저자	여성과 남성 공동 저자
당사자				
부모				
성인 자녀				
형제자매				
친족				
배우자				
전문가				
당사자와 전문가				

1900년부터



2034



© 에리카 슈하르트



## 개관: 저서 목록 분류표 K1-K17








▶ 2001년까지	<b>중대한 인생사건</b>	
176	<b>삶의 장애 · 위기원인</b> <small>의존적 여성 · 인공유신 · 살인 · 가정 문제 · 위험 임신 · 모방 · 성적 고통 · 당뇨 · 간질 · 심장대리 · 뇌종양                      흡수상태 · 폐쇄증 · 편두통 · 신경성 피부염 · 신장염 · 파킨슨병 · 비출증 · 두렛증후군 · 장기이식</small>	K <sup>1</sup>
48	<b>성폭력 · 성학대</b> <small>근친상간 · 성폭력 · 성착취</small>	K <sup>2</sup>
196	<b>임종 · 사망 · 자살 · 슬픔</b>	K <sup>3</sup>
39	<b>이별 · 버림받음 · 외로움</b> <small>입양 문제 · 이혼 · 결혼가장커터 · 버려진 아이들 · 버림받은 배우자</small>	K <sup>4</sup>
489	<b>박해 · 감금 · 폭력</b> <small>홀로코스트 · 강제수용소 · 강제노동 · 양면 · 전쟁 · 파란 · 인종주의 · 망명신청자 · 여성 적대적 전통</small>	K <sup>5</sup>
▶ 1980년까지	<b>장기질환</b>	
54	<b>에이즈</b>	K <sup>6</sup>
21	<b>알츠하이머</b>	K <sup>7</sup>
199	<b>암</b>	K <sup>8</sup>
27	<b>다발성 경화증</b>	K <sup>9</sup>
258	<b>심리장애</b> <small>불안 · 지해 · 경계성 증후군 · 다식증 · 거식증 · 우울증 · 정신분열/다인격 · 지해 · 강박증</small>	K <sup>10</sup>
154	<b>중독</b> <small>알코올 · 니코틴 · 약물 · 도박</small>	K <sup>11</sup>
▶ 1970년까지	<b>장애</b>	
92	<b>정신장애</b>	K <sup>12</sup>
126	<b>신체장애</b>	K <sup>13</sup>
9	<b>학습장애</b>	K <sup>14</sup>
112	<b>감각장애</b> <small>시각장애 · 실명 · 난청 · 청각장애/청력상실 · 청각 및 시각장애</small>	K <sup>15</sup>
17	<b>언어장애</b>	K <sup>16</sup>
17	<b>행동장애</b>	K <sup>17</sup>

㉔ 알파벳 순서에 따른 위기극복 관련 2,000여 명의 작가 및  
 도서 제목 목록 개요(1900년-현재)

각 도서 제목 뒤에는 숫자가 표시된 알파벳 'K'(K<sup>1</sup>-K<sup>17</sup>)와 어깨글자로 된 로마 숫자(I-V)가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각각 위기사건과 서술 관점을 표시한다. 저서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위기사건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는 <저서 목록 분류표 K<sup>1</sup>-K<sup>17</sup>>를 참조하라.

K1-K17 = 위기사건 <K<sup>1</sup>부터 K<sup>17</sup>까지>

- I-V = 서술관점
- I 당사자 
  - II 부모 
  - III 배우자 
  - IV 전문가 
  - V 당사자와 전문가 

알파벳 분류에 따른 저서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라.

[www.wcc-coe.org/wcc/news/pubs/why-me-bibliog.html](http://www.wcc-coe.org/wcc/news/pubs/why-me-bibliog.html)

[www.prof-schuchardt.de/bibliographie-warum](http://www.prof-schuchardt.de/bibliographie-warum)

## V. Concerto: Pulchra es

a due voci

The image shows a page of a musical score for 'Pulchra es' by Vivaldi. It is a concerto for two voices and basso continuo. The score is written in G major and 4/4 time. It features two vocal parts (Cantus I and Cantus II) and a basso continuo part. The lyrics are in Latin: 'Pul-chra es, a-mi-ca me-a, su-a-vis et de-co-ra fi-li-a Je-ru-sa-lem. Pul-chra es, a-mi-ca me-a, su-a-vis et de-co-ra fi-li-a Je-ru-sa-lem.'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clefs, notes, rests, and dynamics. There are also some performance instructions like 'Cantus (I)', 'Cantus (II)', and 'basso generalis (Partitura)'. The page is numbered 5, 6, 9, and 11.

### 음악으로 살피는 동반에 대한 비교 테제

우리는 특히 음악연주에서 동반의 예술을 체험하고 배운다. 알토 소리를 내되 독창은 하지 않는 것, 이를 통해 소프라노는 비로소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교육을 통해 동반자의 보완적 보호를 받으며) 스스로 결정하며 기량을 펼칠 수 있다.





**치유를 향해 가는 여정의 동반자**

병이 치유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다. 온전함이란 치유된 것 이상이다. 즉 위기를 극복하려는 숨겨진 자신을 발견하고, '숨겨진 하나님'을 '계시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다.

에른스트 바흐라흐(Ernst Barlach), 함부르크,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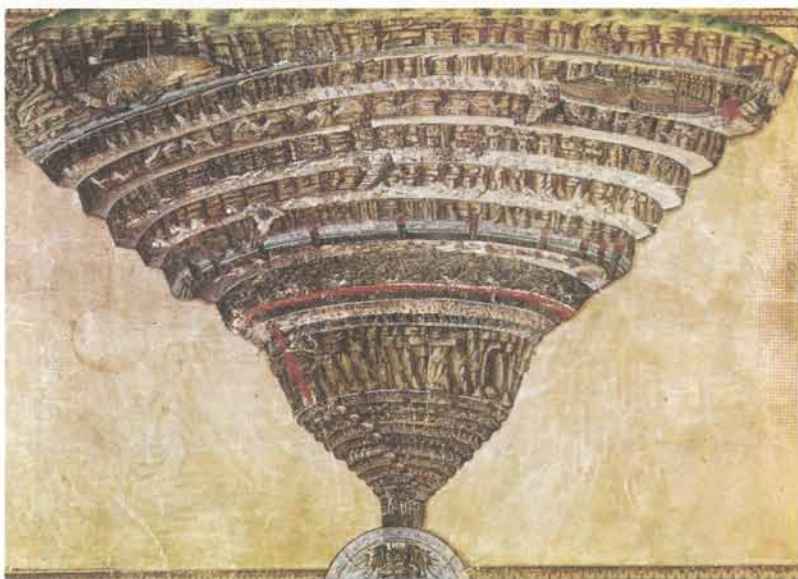


**나선형-마음여행의 상징**

사마라 이슬람 사원, 첨탑까지 나선형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이라크, 9세기



나선형-마음여행의 상징  
바티칸 박물관과 도서관의 나선형 계단, 로마, 1932



**나선형 - 마음여행의 상징**

단테의 『신곡』을 소재로 한 벽화, 연옥산과 지옥 사이의 나선형 길(위)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피렌체, 15세기(아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  
위기 속에서 배우는 삶

에리카 슈하르트 지음  
강승희 옮김

예장기독교서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위기 속에서 배우는 삶

© 에리카 슈하르트 2010

2010년 9월 4일 초판 1쇄

지은이/에리카 슈하르트

옮긴이/강승희

펴낸이/정지강

펴낸곳/대한기독교서회

편집책임/권오인 · 이혜자 · 민소영

등록/1967년 8월 26일 제-77호

주소/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9-1

전화/출판 553-0873~4 영업 553-0870-7

팩스/출판 3453-1639 영업 555-7721

e-mail/editor@clsk.org

http://www.clsk.org

직영서점/기독교서회

종로 5가 기독교회관 1층, 전화 744-6733 팩스 745-8064

값/12,800원 책번호/1688

ISBN 978-89-511-1294-2 03230

**Warum gerade ich?**

-Leben lernen in Krisen

© Erika Schuchardt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by Erika Schuchardt

tr. by Kang, Seung-Hee

All rights reserved.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Seoul

Printed in Korea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저작권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 안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